

建築士



K.I.R.A

vol. 412

2003



uid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주 제 : 도시의 틈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성에 맞는 실제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조경, 실내·외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 주제설명

역사가 진행되는 한, 그리고 역사가 도시를 필요로 하는 한, 도시는 계속 변모해간다. 오직 유적으로서만 정지된 상태의 도시가 존재할 뿐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거나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이룩된 신도시이거나 간에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도시를 계속 변모시켜 나간다. 그럼에도 도시는 표준화된 원리로 편제되어 근대도시체계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공간을 균질화시켜 그와 함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분해하여 대규모로 집적시켜 재배치하는 기능주의적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기능은 생산력의 극대화를 위주로 편성되고 반면 개개인의 삶은 개별화되고 이질화되어, 이분법적으로 경계자음으로서 그 중간을 매개하는 도시공동사회는 지극히 왜소해졌다. 즉 개별적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편리, 효율, 합리성이 한없이 축적되어 결국 전체의 차원에서는 불편, 비효율, 불합리성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개체의 대상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맥락 전체를 아우르면서 계획의 목적은 헤아리고 사용자의 삶도 시야에 넣으면서 그것과 사물사이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도시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에워싸는 모든 건물, 도로, 광장, 표지, 수목... 그리고 그 위와 옆에서 일어나는 온갖 활동과 사건이 구체적인 도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고, 자신을 보다 큰 도시 전체의 모습에 위치 지을 수 있음으로서, 도시의 틈은 발견되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틈이라 함은 개별 주체가 기억하고 움직이는 대안적 노선에 따라 지도를 그리고 또 다시 그려낼 수 있는 분명한 상상분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장소의 감각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도시 삶의 필연적인 결과라면 삶의 정직한 표현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태도 - 그것은 주위 환경을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정보나 모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협존하는 거리의 현장에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어 체험의 대상으로서의 도시의 틈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개체로서의 차별화로부터 동질성으로서의 맥락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읽어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도시 한 조직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서들)

도시와 건축	개체와 전체	상업성과 공공성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
인공과 자연	전통과 현대	단절과 소통	평면과 입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003 한국건축문화大賞

작 품 공 모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2003 한국건축문화大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부문
 - 주거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2003년 8월 이후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응모지역: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서 제출 인허가관련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 비주거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2003년 9월 이후 국내에 준공된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 응모지역: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서 제출 인허가관련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응모지역: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가.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나. 건축물대장 1부
 - 다. 건축허가서 1부
 - 라.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 응모작품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문 명사해야 하며, 외국사 참여작품의 경우 관련사실을 명히 기재하여야 함
 - 수상자가 공동출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 대해 사진첩
 - 마.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출일은 우후 통보
-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도시의 품"
 - 주제설명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a.or.kr)를 참조
 - 패널(750x900mm×세로120cm)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포스터(750×세로 750mm×가로 900mm 또는 900×세로 750mm, 높이 750mm이하) 1점 제출
 - 작품의뢰자는 출품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함

■ 작품접수

-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2003. 9. 1(월)~9. 2(화) 09:00~18:00
 - 계획건축물부문: 2003. 10. 7(화) 09:00~18:00
-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관현황
- * 출품작품은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출품료는 없음)

■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우후 명단발표)

■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 표: 2003년 11월중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일정 및 장소 추후공고)
- 시 상 식: (일시 및 장소 추후공고)

■ 기타 출품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정사유 발생시 출품무효 또는 영상권 취소할 수 있음
 1.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2.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3. 설계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서류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4.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 출품자는 작품접수 이후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시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계획건축물부문은 패널 제작사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 및 모형 제작작업을 금함
- 준공건축물부문 제출 사진첩중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보관하지 않으며, 대상 및 본상 수상작 패널은 사후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시상배우

▶ 준공건축물부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관계자시상
대상(1점)	대통령상 트로피 하위건축물상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위건축물상	국무총리상 건축원부처를 임명	
본상(6점)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하위건축물상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위건축물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건축주부처를 임명	- 주거건축물 3점 - 비주거건축물 3점
입상작(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산업진흥원상	서울경제산업진흥원상	건축문화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 수여
공로상		트로피		

▶ 계획건축물부문

- 금 상 (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 상 (2점):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 상 (3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 상 (다수):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
- * 동상이상 수상자를 대학학선에 한해 영어 연태취득시험 거쳐 2인중 선발.
- * ARCSIA(아시아건축사협회) 학생멤버리대회 파견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주)서울경제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주택협회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관현황 (Tel. 581-5711 ~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안골주택(강대화)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컬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김영웅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시흥시 여성회관	안길원·서학조	22
	안골주택	강대화	34
	유한대학 타워	백문기·황철호	44
기고	건축사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이종호	54
	환경친화적인 섬유질 단열재	권영철	57
연재	공간 클럽 - 03	이세훈	60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67
	해의잡지동향		73
	현상설계		82

82



92



96



Column

Since the Opening of Apartment Prices to Self-Regulation--- Kim Young-Ung 18

Cartoon Yoo Won-Jai 21

Works

Shiheung Woman Welfare Center Ahn Kil-Won & Suh Hak-Jo 22

Angol Residence Kang Dae-Hwa 34

Yuhan College Tower Beack Moon-Ki + Hwang Chul-Ho 44

Feature

The Social Role and Status of the Architect Lee Jong-Ho 54

Environment - Friendly Cellulose Insulation Kwon Young-Cheol 57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60

Architects' Plaza

Archi-Net 67

Overseas Journal 73

Competition 82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Since the Opening of Apartment Prices to Self-Regulation...

김영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by Kim Young-Ung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분양가(分讓價)는 IMF 이전까지 공사비의 제한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으면서 분양가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직후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공급이 급감(急減)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9년도에 경기촉진책으로 분양가의 자율화, 소형평형 의무제한 철폐, 주거용 오피스텔의 허용 등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중 분양가의 자율화는 획일적으로 박스(BOX)형의 단순아파트에서 질 높은 아파트의 건설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였다. 이는 입면형태의 변화나 새로운 평면 유니트(UNIT)의 개발, 용적률을 낮추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때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등 다양한 주거건축물의 연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시행 3~4년이 지난 현재 상당부분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기에는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 개발에 치중하여 부엌, 식당, 현관, 수납장 등 센스 있는 내부 디자인의 효과가 있었다. 또 평면 UNIT에서도 3BAY, 4BAY 등 새로운 용어를 붙인 다양한 평면이 개발되었으며, 외부공간에서도 연못, 휴게시설, 조경시설물의 고급화 등 조경설계의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차츰 입면 형태에서도 소위 아파트 같지 않은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배치에 있어서도 一字형 배치에서 외부공간의 강한 보행 축에 맞추어 배치하거나 곡선형 아파트 배치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가가 끝이 없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물론 새롭게 개발하고, 고급화하면 당연히 분양가는 상승하겠지만 요즘은 분양가는 올라도 너무 오른 것 같다. 상업용 건축물이 상승하는 것은 별도문제지만 적어도 주거부문의 끝없는 상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투기에 의한 상승은 정부의 대책으로 진정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내장마감재의 고급화이다.

최근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 각기 차별화된 내부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백색톤(WHITE TONE)이나, 회색톤(GRAY TONE), 또 목재의 무늬와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분위기 연출 등 다양하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두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며, 분양자들에게는 고급스럽고 멋있는 집이다. 여기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을 SET로 구성하여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과거 주택이 부족할 때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양적 공급에 치중하였고, 이제는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를 개인이 고급화하려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재료를 수백 개 주문 시에는 개인이 한 개 주문시보다 훨씬 싸게 공급될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파트 내부공사 후 남는 게 없다는 푸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 공사비보다는 분양가에 반영하는 폭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고급화하여 분양가가 비싼 집이 자녀의 성장 등으로 방의 개수가 더 필요하여 조금 넓은 평형의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분양가가 고가(高價)이면 입주 후에도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많아진다. 우선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있던 소파나 책상 등 대부분의 가구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기존 가구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게 된다.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구들을 버리게 되어 이사 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고 이 또한 환경문제까지 대두된다. 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도 소위 빌트인(BUILT-IN)으로 설치되어 있고,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쓸 수 있는 기존의 가전제품들은 재활용센터나 쓰레기로 처분하게 된다. 가져갈 공간도 없고 또 다른 집과의 밸런스(BALANCE)도 맞지 않는다.

약 20여 년 전 필자는 다국적 기업의 사택단지를 설계하고 상주감리까지 한 적이 있다. 이 사택단지에 18채의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9채는 한국인 임원용이고 9채는 외국인 간부를 위한 주택이었다. 입주 한 달 후, 감리자 입장에서 최종점검과 입주자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방문하고,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작성하였다. 먼저 한국인 임원용 주택을 조사하였는데 9채 모두 준공시의 마감대로 살고 있었고, 불편사항에 대하여만 얘기하였다. 창고가 부족(不足)하다, 거실에 단(段)이 있어 불편하다, 심지어 못이 박혀있지 않아 그림이나 옷을 걸어놓을 곳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불만족스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사택 9채를 방문하고서 필자는 깜짝 놀랐다.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마감한 집인데 9채 모두 다른 집이 되어 있었다. 어느 집은 본인이 연두색을 너무 좋아해 벽지 위에 연한 연두색 페인트를 덧칠하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였고, 뒷산에서 솔방울을 주어다가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벽장식을 한집, 한식 고가구나 집기들을 곳곳에 진열하여 전시한 집 등 각각이 다 특색이 있는 집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면서도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한결같이 집이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대단히 만족한다는 대답이었다. 그중 특색 있는 한 집의 부인에게 '혹시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전공하셨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인문학 전공이라며 아키텍트(ARCHITECT)에게 보이기에 부끄럽다고 겸손해 한다. 취미로 한 내부처장이 건축을 전공하였다는 필자에게는 두고두고 큰 충격이었다.

결국 아파트의 고급화된 실내장식은 수백 채의 똑같은 마감이 아니고, 입주자 개개인의 취향과 경제적 여유에 따라 가구는 집이 진정한 내 가족만의 스위트홈(SWEET HOME)이 아닐까 한다.

하루 이틀 쉬는 호텔은 모든 객실이 동일한 수준의 마감이 필요하겠지만 몇 년 또는 일생을 사는 주택에서는 주인이 수시로 손보고 꾸밀 수 있는 여백(餘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요즈음의 아파트에서 무조건 고급화하여 분양가에 반영하는 경우, 아무장식도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옵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토지가의 상승과 부대경비의 증가이다.

내장재의 고급화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만으로는 분양가가 현재와 같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요인은 토지가의 상승과 부대경비의 증가이다. 좁은 땅에서 토지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요인은 다른 요인이 더 큰 것 같다. 소위 시행사라고 하는 개발업체의 난립으로 강남 등 일부 분양성이 좋은 대지에 대하여는 서로 토지 매입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니 결국 지가(地價)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토지가의 10% 정도만 계약금으로 확보하고 다음 비용은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진행하다보니 이자부담이 커지고, 공사비 증가에 모델하우스는 고급화, 분양광고는 연속으로 대형화, 분양 수수료, 부동산 신탁비용, 여기에 개발업체의 개발이익금 등이 모두 분양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들이다.

토지가가 비싸면 수익성이 없어 포기하였던 과거에는 주변의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가 대부분 싸게 공급되었고, 따라서 분양을 받으면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가 분양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현재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분양 받은 사람보다는 개발업체를 비롯한 몇몇의 업체에서 독식(獨食)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계산상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다보니 하나의 토지에 많은 업체가 경쟁하게 되고 각자 나름대로 더 나은 사업수지 분석을 위하여 여러 건축사사무실에서 규모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며, 우리 건축사들은 이들에게 열심히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회사로서는 여러 PROJECT에서 실패하여도 1~2개의 PROJECT에서 성공하면 기존비용을 제하고도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PROJECT의 성공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간혹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정상적인 이사 사이클(CYCLE)은 결혼하여 일정기간 후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자녀의 탄생에 따라 방이 필요하여 조금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얼마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입주 가능하고, 또 다시 자녀의 성장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큰 평형의 주거에서 생활하다가 자녀의 출가(出家) 등으로 가족수가 줄어들면 다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급화된 고가(高價)의 분양 아파트는 초기구입부터가 쉽지 않으니 요즘 젊은 층에서는 아파트 구입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가족이 거주할 주택이 해결되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여러 면에서 안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택 때문에 항상 고민하다보면 급여나 수입 등 모든 부분이 불안족스럽고 항상 불안하다.

분양가의 자율화를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나 표준화, 규격화, 부품화, 자재의 절약, 생산성 및 품질향상, 소화, 피난에 대한 안전성 등에 중점을 두어 그야말로 품질은 좋고 분양가는 저렴하며, 우리생활패턴(PATTERN)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인가?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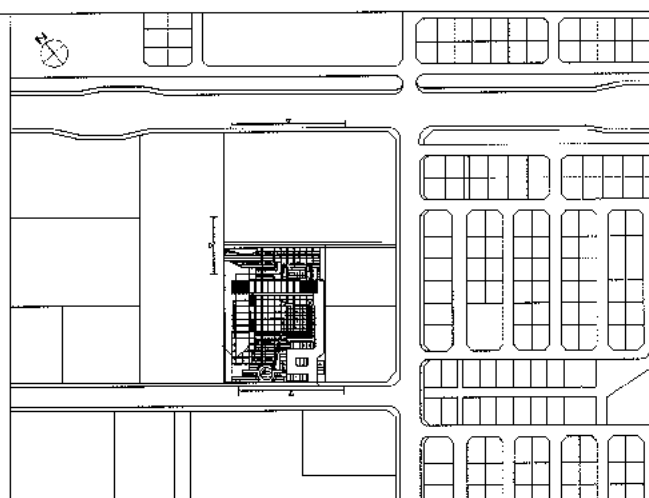
시흥시 여성회관

Shiheung Woman Welf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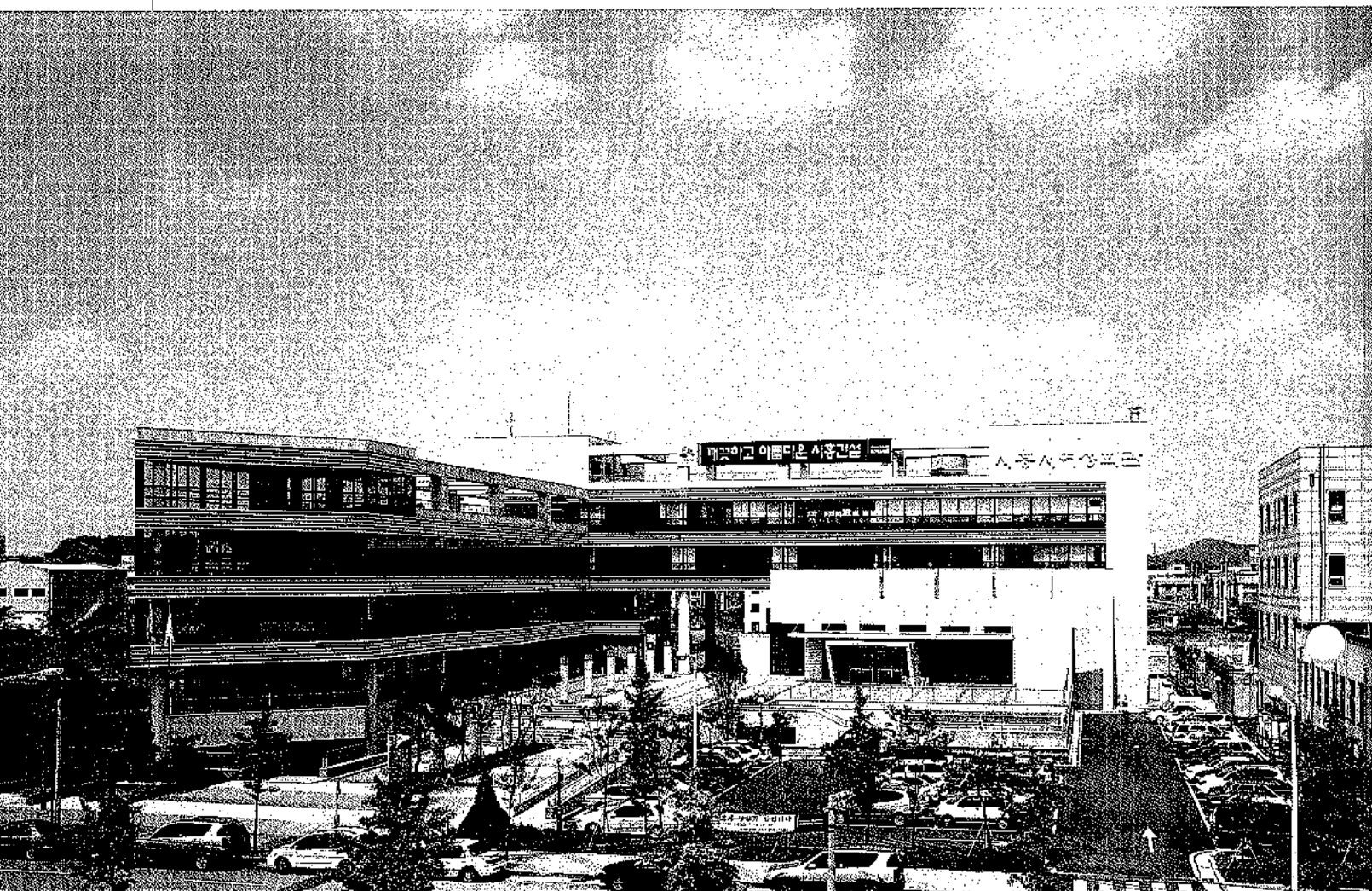
안길원 · 서학조 / (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Kil-Won & Suh Hak-Jo

건축개요

대지위치	시흥시 정왕동 1800-7번지
지 역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6,905.80㎡(2,098평)
건축면적	1,459.59㎡(441.53평)
연 면 적	5,189.12㎡(1,569.71평)
건 폐 율	21.14%
용 적 륜	43.84%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THK24 컬러목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설계담당	최창설, 노광현, 송도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여성들의 평생교육 및 시흥시 지역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 활용 및 문화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시흥시 여성회관은 공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연계적인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개성적이고 랜드마크 크적인 이미지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진입부에 열린광장을 형성하고 건물과 외부공간이 서로 개방감과 위요감을 갖도록 투명성을 부여하였으며, 각 시설물간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또한 도시의 축과 인접 공원과의 연계를 위하여 접근성, 조망 등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체육시설로 진입할 수 있는 쉼터기둥을 별도로 두어 지역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주출입부분을 필로티를 두어 인지성 및 공간의 연속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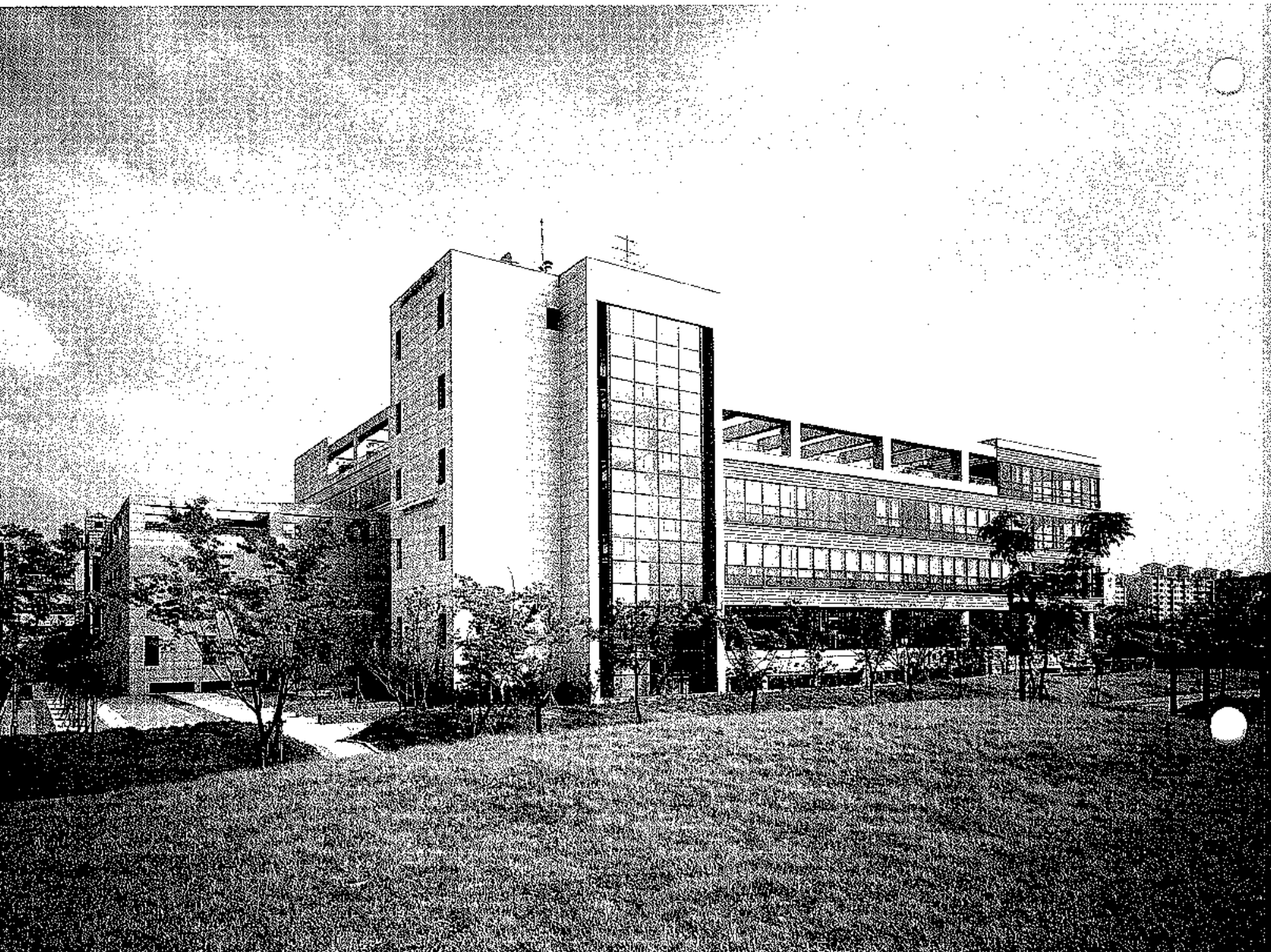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첫째, 교육시설의 남향에 대한 배려 둘째, 대지 우측의 복지시설에 대한 시각적 개방감 셋째, 남쪽으로부터의 보행 및 시선축 고려 넷째, 부출입구에 대한 시각적 대응 다섯째, 근린공

원으로의 대지 내 시각적 개방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배치 결정되었다.

남쪽으로부터의 강한 보행축과 근린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함에 있어 이 부분을 열어줄 것인가 막을 것인가가 배치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열린 근린공원에 또다시 대지를 열어 준다면 근린공원의 성격이 오히려 퇴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 계획에서 제안된 이벤트 광장은 배치계획에 있어 우측 복지시설에 대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줄 수 있고, 복지시설에 연계되는 중심에 광장을 형성한다는 개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근린공원과의 시각적 연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원 측에 면한 교육동 저층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평면계획서의 주안점은 수영장 및 강당이 별도동선을 유지하면서 교육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간 동선관계를 고려하였고,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절제하면서 부분적으로 곡선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시흥시 여성회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여성의 지적, 사회적 역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서 타 여성회관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

● 입면상세계획

- 여성회관으로서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거친 면처리를 지양하고 매끈하고 깔끔하게 입면을 처리
- 조형계획에 따라 솔리드(Solid)한 면과 보이드(Void)한 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내·외부 공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부각
- 건물의 외부입면과 광장 및 데크의 바닥디자인을 잘 조화되게끔 통일성과 변화 부여

● 단면계획

- 데크를 이용한 대지조성

- 공간적 위계부여를 위한 레벨 변화로서 데크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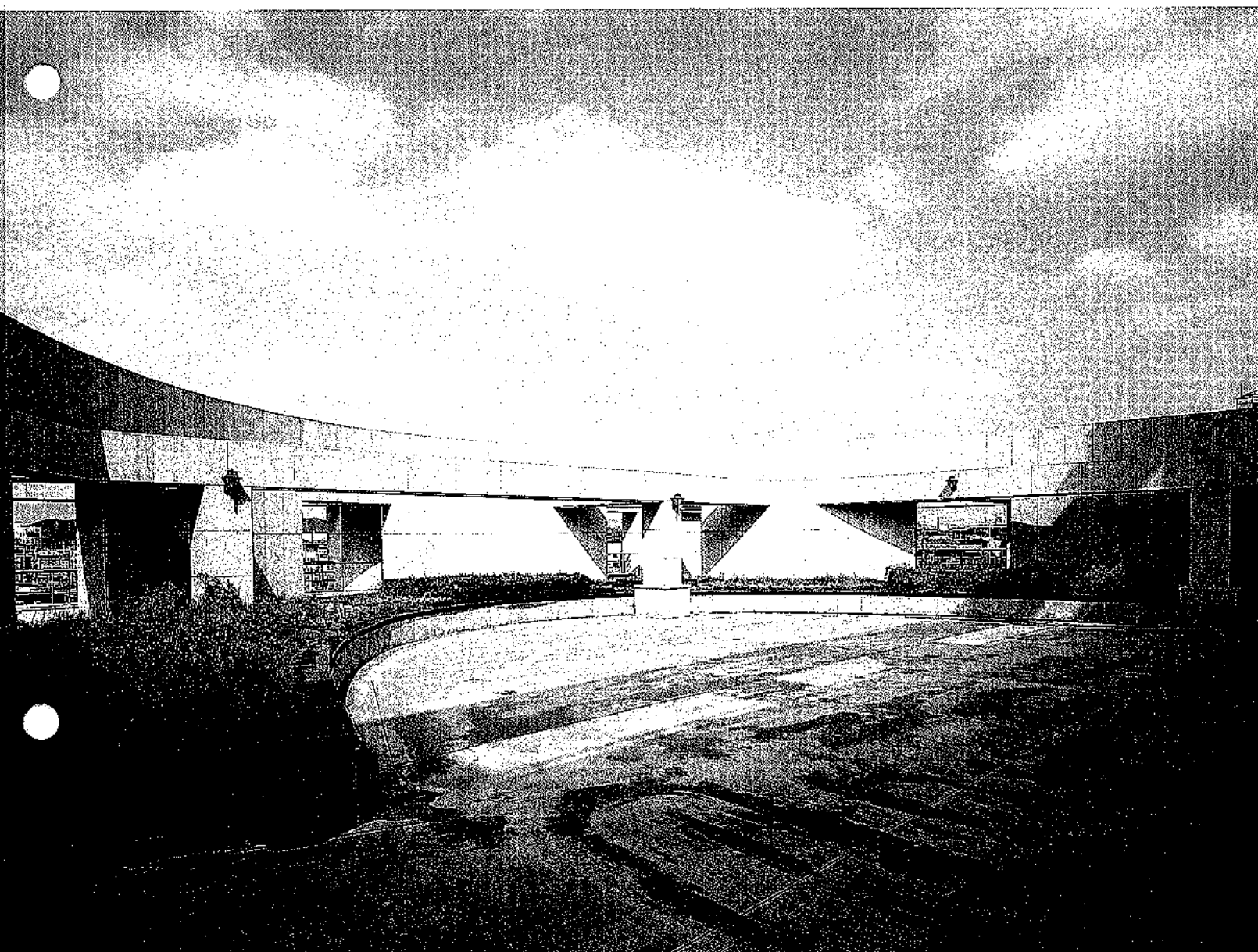
- 데크의 천장을 통해 지하 1층의 수영장에 자연스럽게 자연채광을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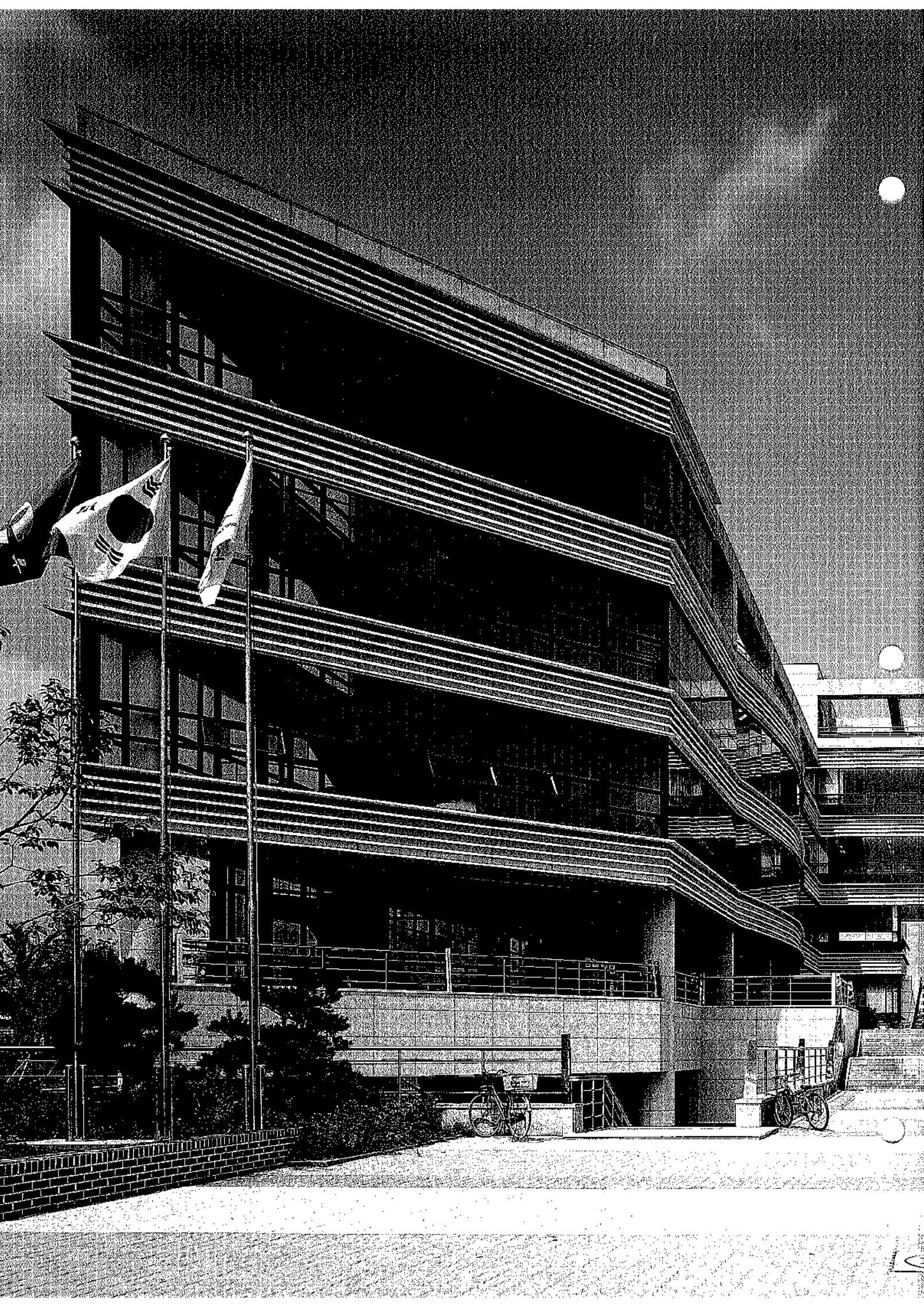
• 시각적 개방감 부여

- 주출입부분을 피로티로 구성하여 시각적 암시 및 공간의 연속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
- 계획된 건물의 내부공간(데크)은 인접 노유자 시설에도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하며 일련의 복지시설군을 형성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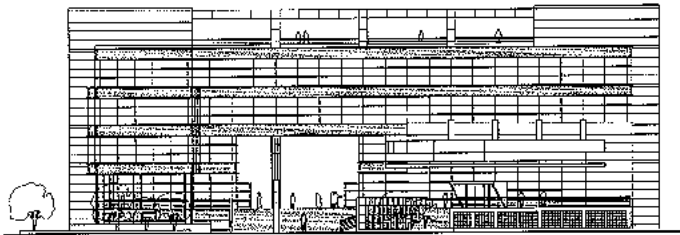
• 적정 층고 계획

- 지하 1층 : 6.5M 수영장 5.5M(기타 체육시설, 기계실, 전기실)
- 1층 : 4.5M(강당부분은 장스판 공간으로 별도 층고계획)
- 기준층 : 3.9M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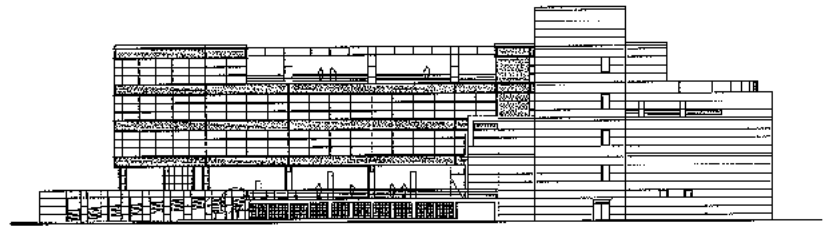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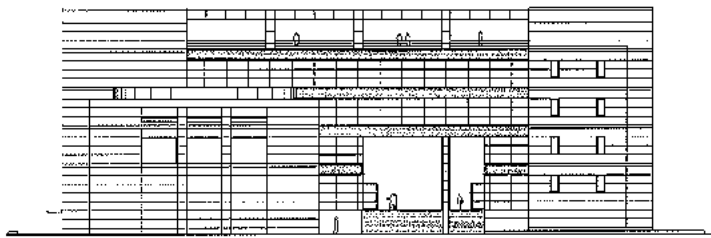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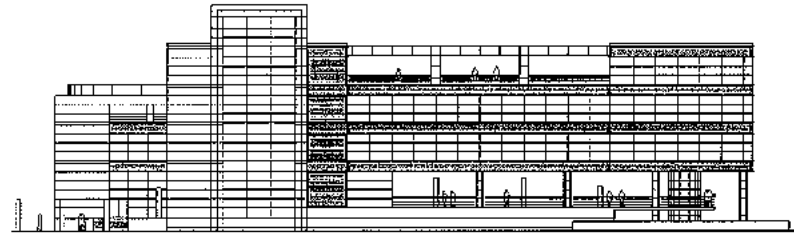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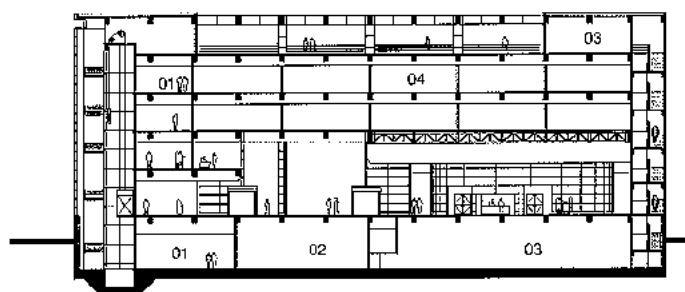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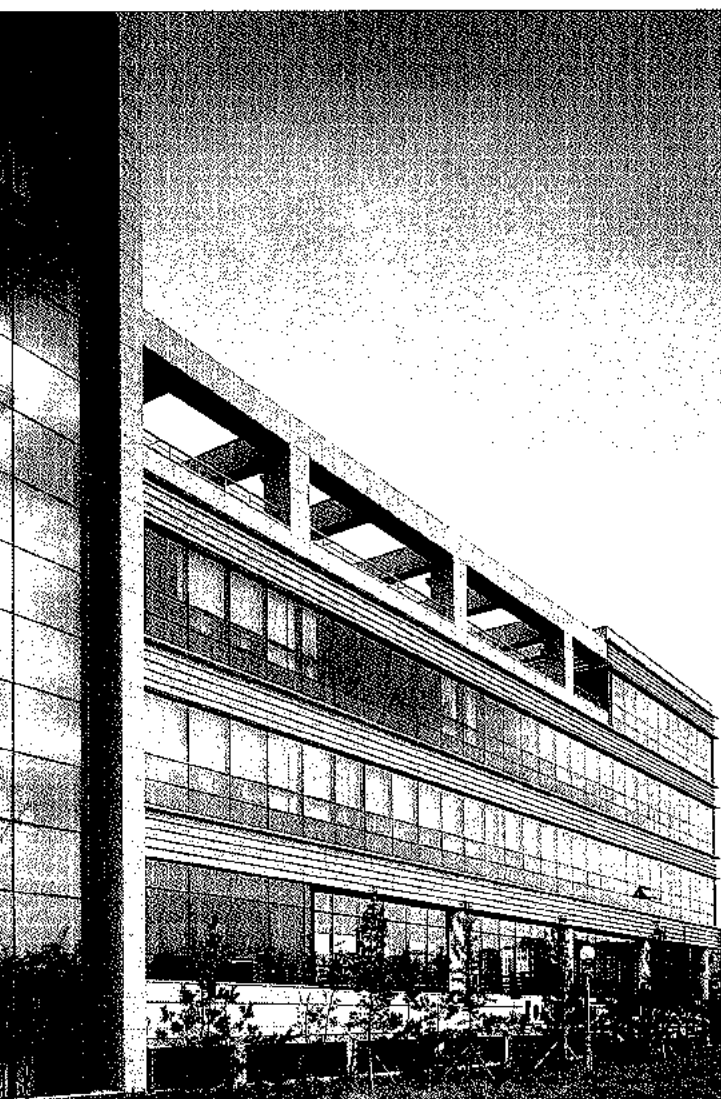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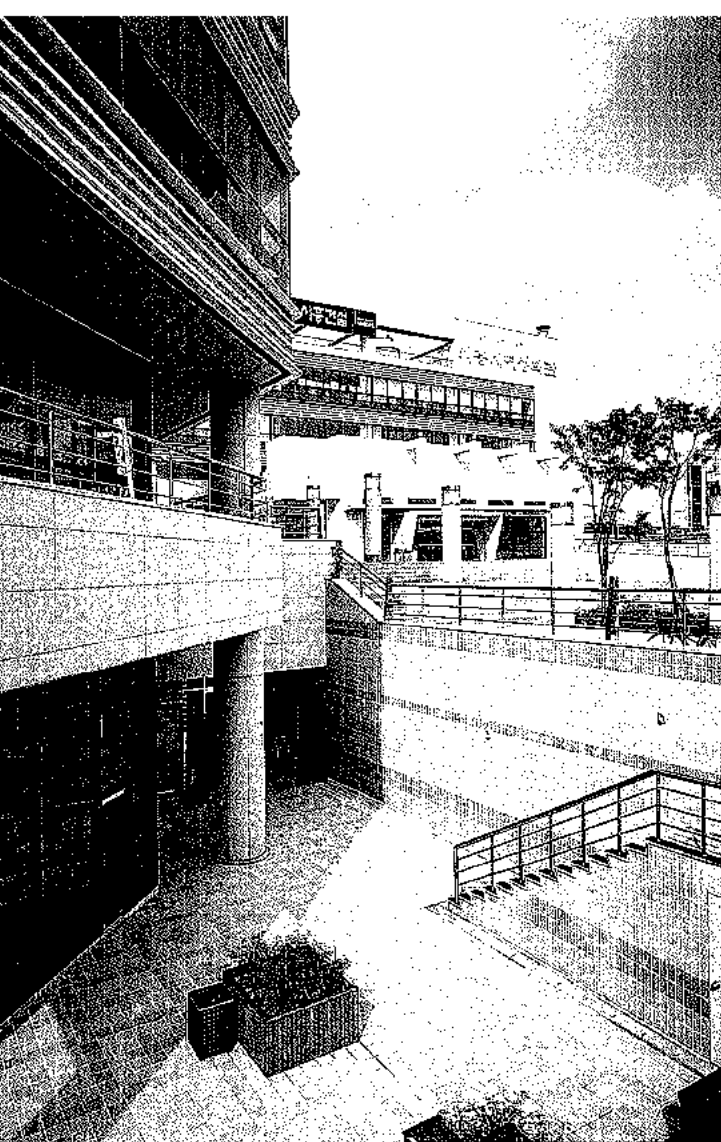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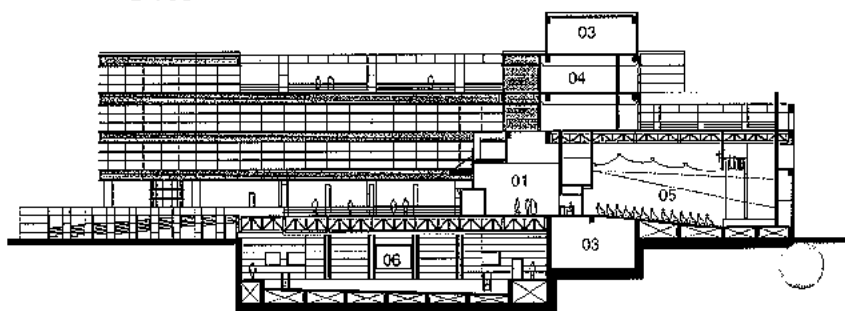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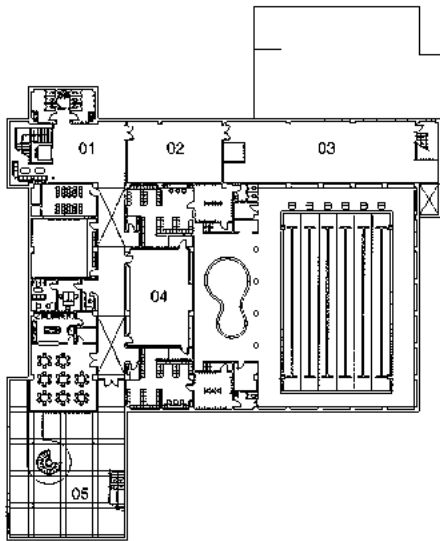


- 01_ 홀
- 02_ 전기실
- 03_ 기계실
- 04_ 직업강의실
- 05_ 강당
- 06_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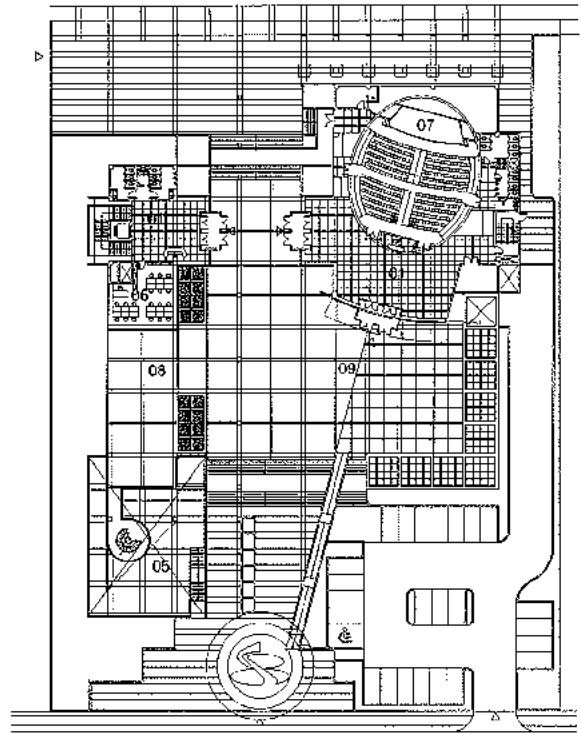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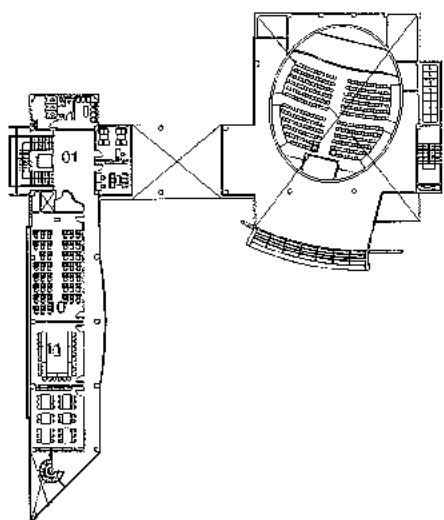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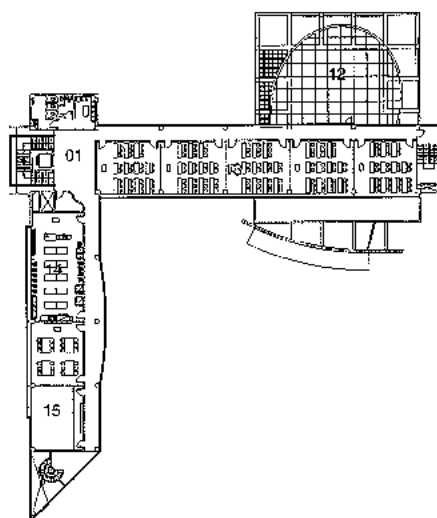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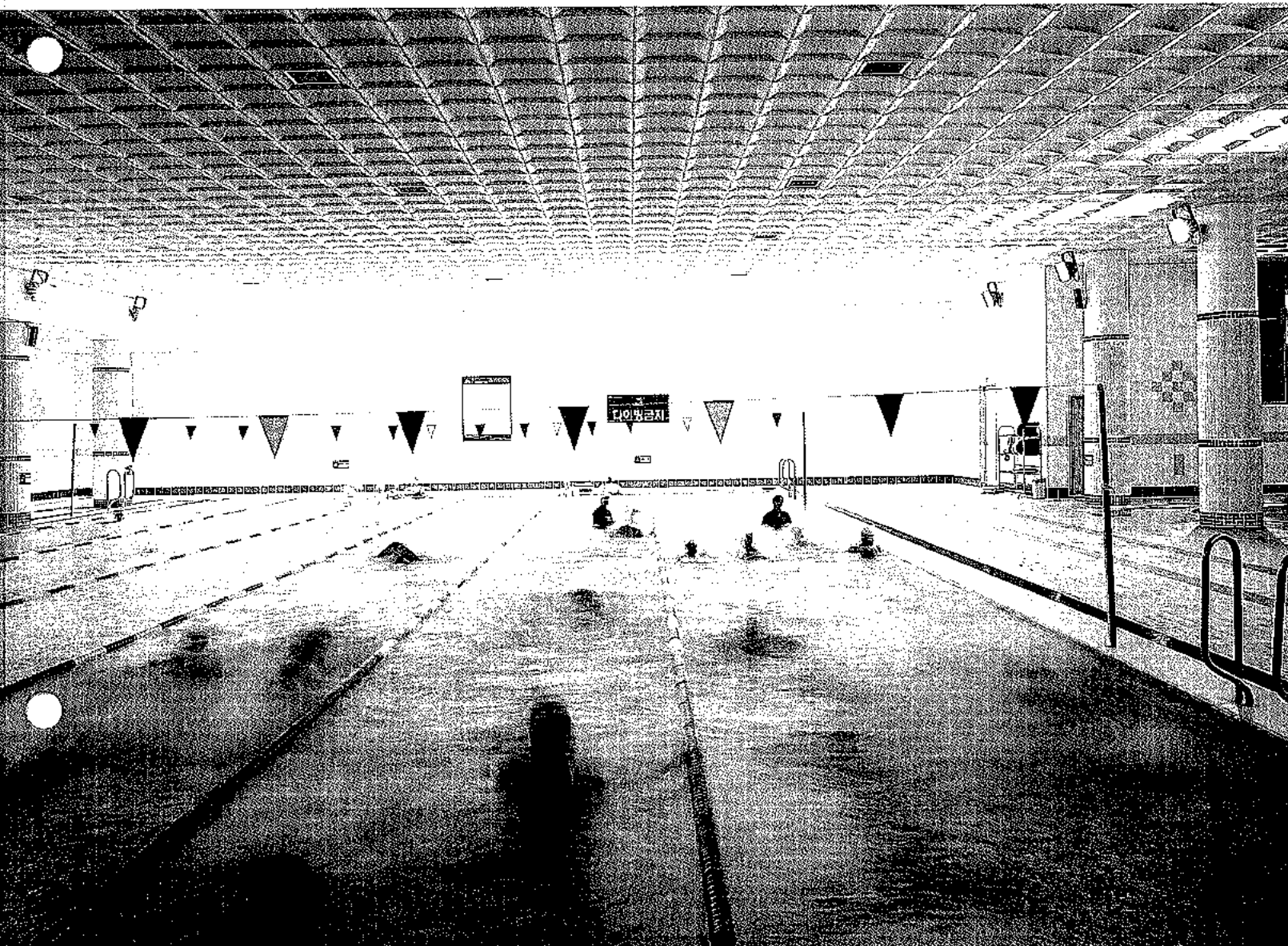


- 01_홀
- 02_전기실
- 03_기계실
- 04_체육실
- 05_신원가든
- 06_사무실
- 07_강당
- 08_그늘광장
- 09_이벤트광장
- 10_컴퓨터교실
- 11_세미나실
- 12_음악학술실
- 13_직업강의실
- 14_제방교실
- 15_온돌강의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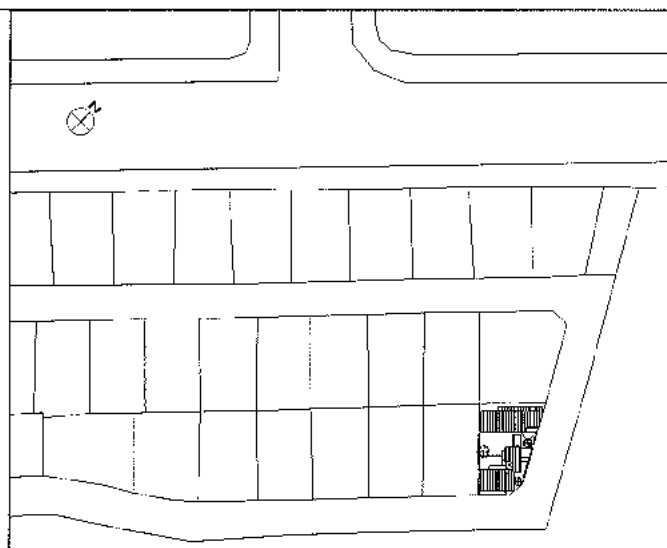
안골주택

Angol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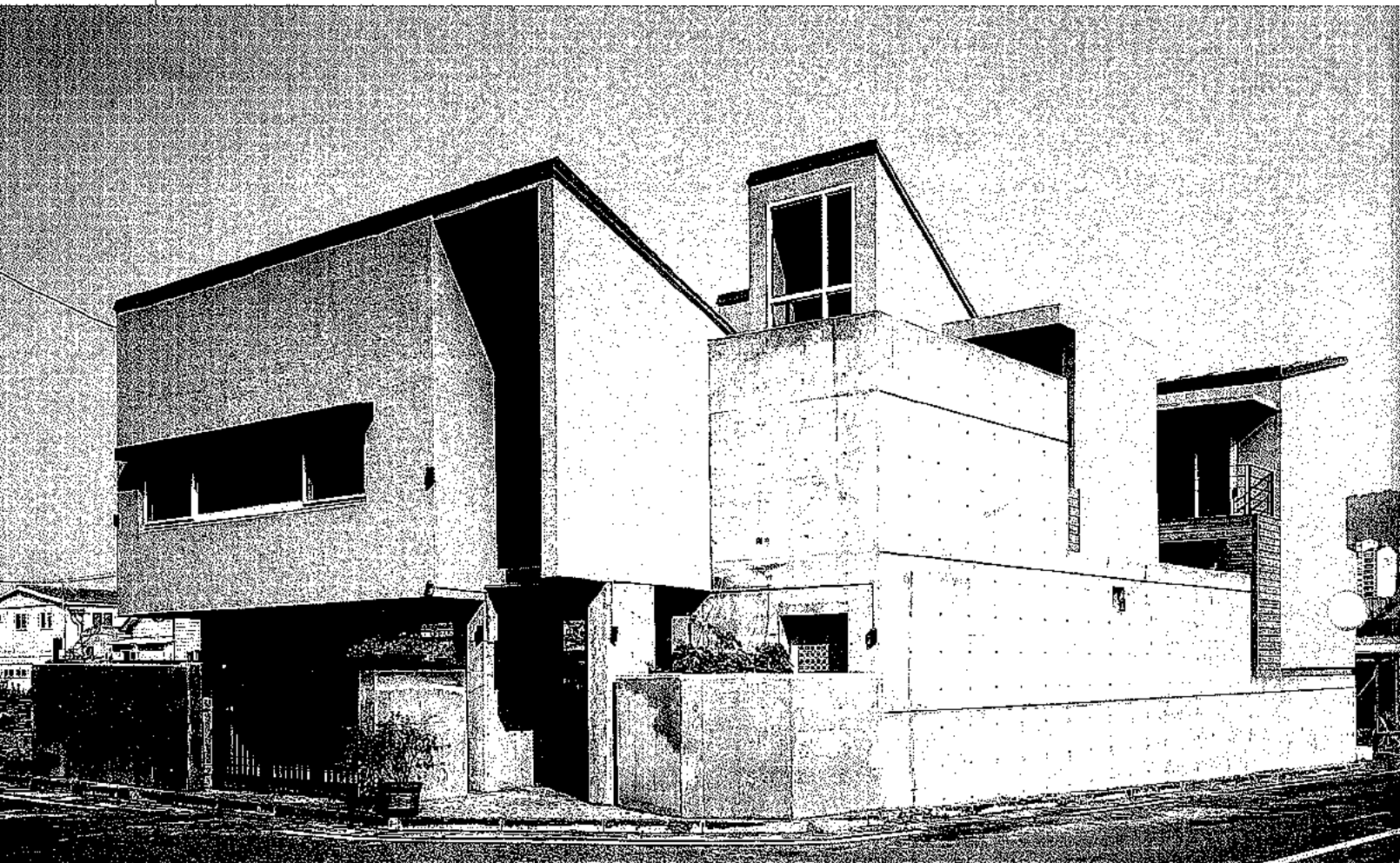
강대화 / 건축사사무소 토탈
Designed by Kang Dae-Hwa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377-15번지
지 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61.40 m ²
건축면적	139.10 m ²
연 면 적	197.49 m ²
주요용도	단독주택
건 폐 율	53.12 %
용 적 륜	75.40 %
층 수	지상 2층
최고높이	8.00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판평판갈기(지붕)
내부마감	우드 플로링, 벽지, 무늬목
설계담당	탁현경, 안광순
시 공 자	에원종합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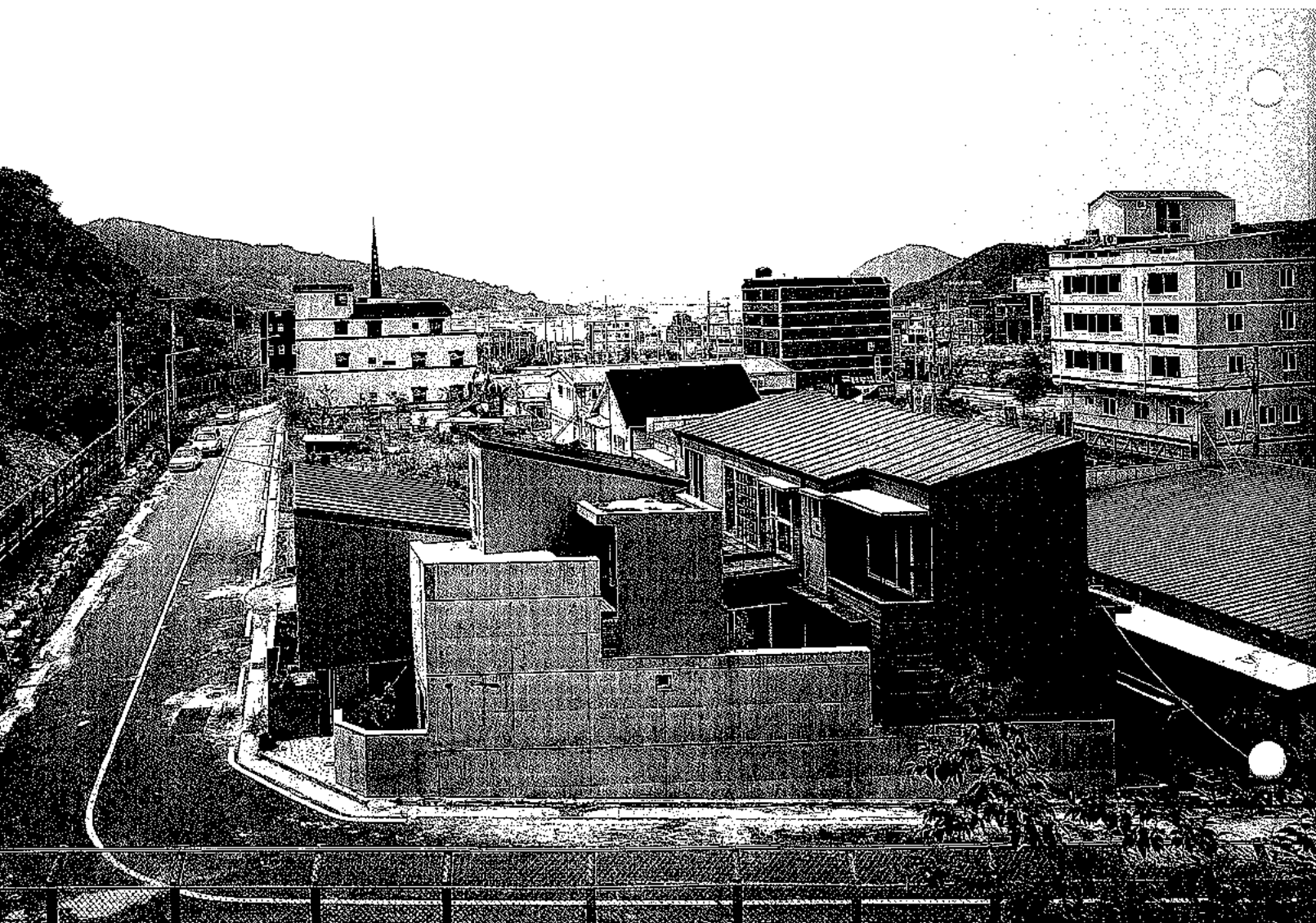


녹산공단과 인접하고있는 진해시 용원동일대의 50여 만평 규모의 녹산 주거단지는 원래 평지보다 산지가 많았던지 특히 용원동과 안골동일대는 단지를 둘러 싸고있는 외각의 크고 작은 산들이 대부분 허리가 잘려진 모습으로 전개되고있다. 경제적 어려운 시기로 인해 토지분양이후에도 상당기간 단지는 비워있었고 느린 속도로 점 조직처럼 서서히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곳의 택지용지에는 최소한의 규범만이 있었는데 모든 주택은 경사지붕이 되어야 하고 복합용도일 경우 주택용도 외 근린생활시설을 건물면적의 40%까지 허용했다. 이로 인해 개인주택 이라기보다는 근린시설성격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주거단지는 초기부터 지역고유의 색깔이나 형태를 갖지 못하고 기형적 모습으로 형성되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현재 국내 신개발 택지의 공통된 현상이겠지만 시간이 갖는 영속성과 지속성의 부재로 집단적 양상으로 인한 가치는 역시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외각에 위치한 부지는 한적함은 있으나 미려하지 않는 식당들이 부

지뒤편 블록 한편으로 인접해 있어 건축주가 기대하는 전원주택의 분위기는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 남향 도로를 경계로 바짝 접근한 급경사의 절개지가 병풍처럼 위협적으로 가로막아 유일한 자연조건마저 악조건이 되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다만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암반의 절개지도 언젠가는 돌풍이라도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본다. 고개를 찢쳐야만 보여지는 8부 능선 위로의 산림과 하늘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곳의 자연조건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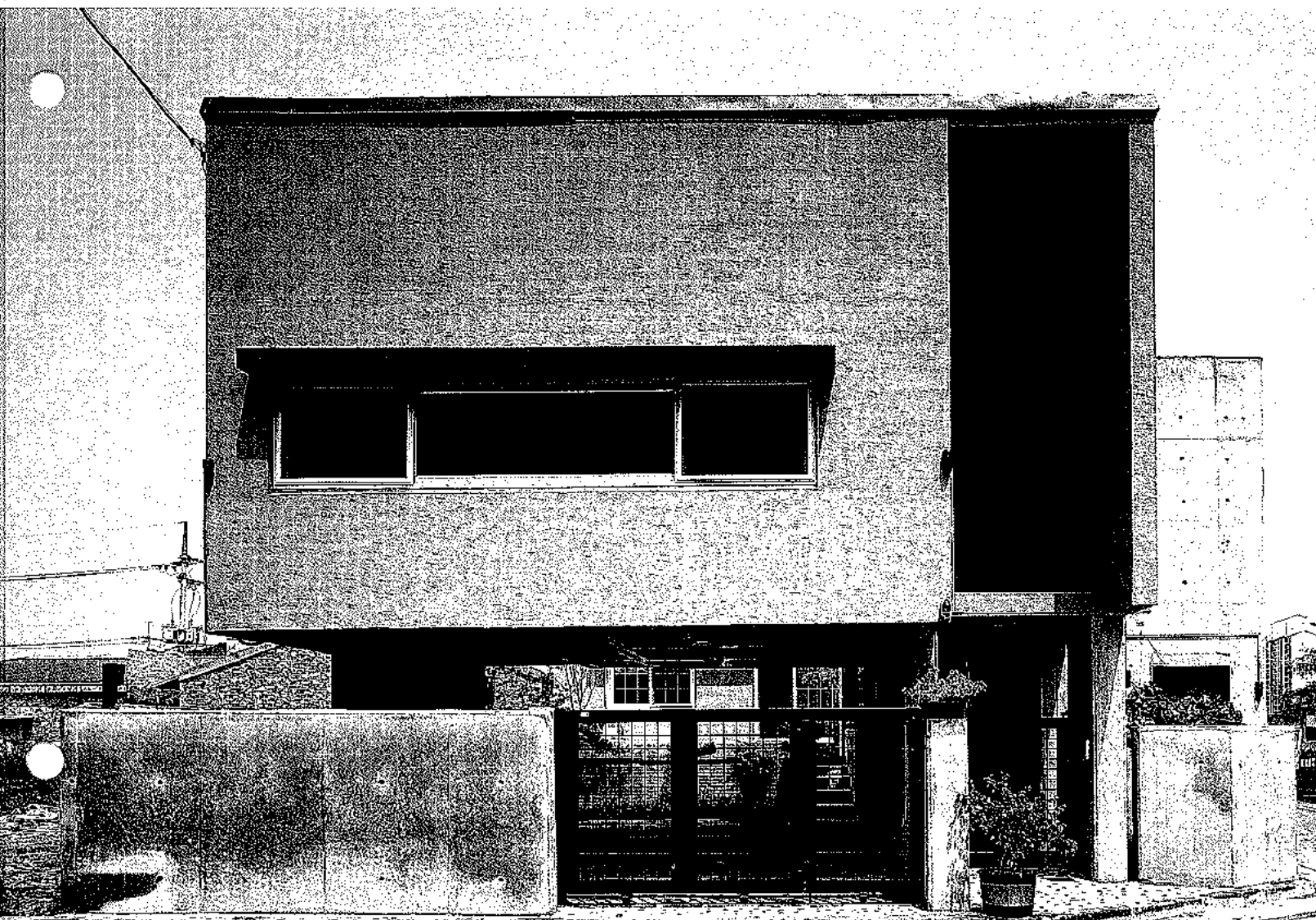
무겁게 전개되고있는 절개지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레벨의 대응은 힘겨울 것 같다. 따라서 부지의 레벨을 2단계로 하여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레벨로의 접근과 연결을 시도했다. 레벨의 변화로 들어올려진 거실의 하부가 되는 피로티가 외부공간으로 확보되면서 마당으로 연속되어 대지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넓은 옥외공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80여 평의 대지가 건축주에게는 꽤 클 것으로 기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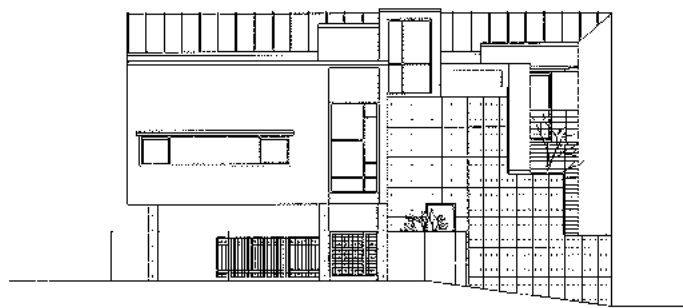


부담을 덜 수 있는 해결책도 되었다. 인위적으로 높아진 마당은 거실
과도 가까워지면서 개방된 면으로 둘러싸여져 내향적 중심공간으로
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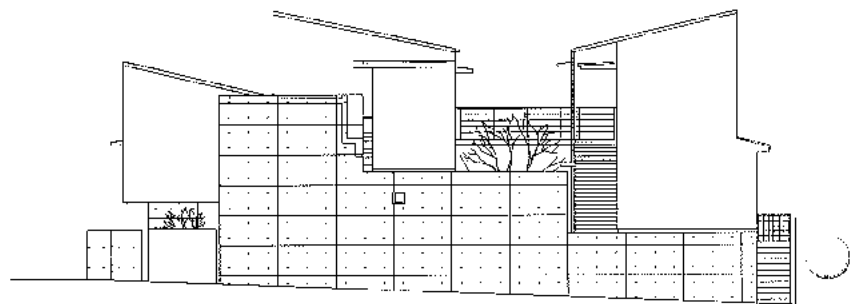
주거에서의 기본적 폼(form)이 끌어들이, 초대의 의미로 표현된다
면 특히 사적영역이 민감하게 요구되고있는 주거건물일 경우 공적영
역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마당으로 향하는 대문 쪽의 하부 접근
공간은 반 개방하여 두 영역과의 교류는 적극화되고 하부공간으로의
트임은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대지에서 떠있는 거실의
불통으로 마당에서 거실지붕 너머로 보여지는 절개지의 모습은 위협
으로 존재하지 않게 한다. 그 외 도로 측에 면한 접지 층의 경계는 철
저히 폐쇄시켜 사적영역을 확보한다. 경계선상의 개방과 폐쇄는 상
하부로 대비시켜 무엇을 끌어들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명확히
구획한다. 즉 하부쪽으로 폐쇄된 곳은 상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
여 다양한 원근의 조망과 교감을 갖게 한다.

인위적인 부지의 켜와 내 외부 공간의 중첩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은 적절한 배치를 통해 서로 투과하면서 삶을 수용할 것이다. 긴
동선으로 연결된 거실의 영역은 편리함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
는 일말의 불안도 있으나 손님초청하기를 즐겨하는 이 집 기장의 취
향에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 서민주택건축 비용에서 약간
상회하는 한정된 예산은 설계가 끝날 때까지 괴롭혔지만 한적한 신
도시주거에 새로이 정착하는 40대 중반 부부의 가족에게서 외출한
후 집에 돌아오면 피로가 가신다고 "집이 피로회복제 같다"고 하니
일단은 성공한 것인가?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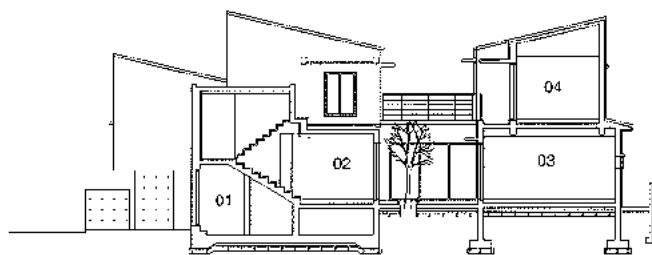


우측면도

0 1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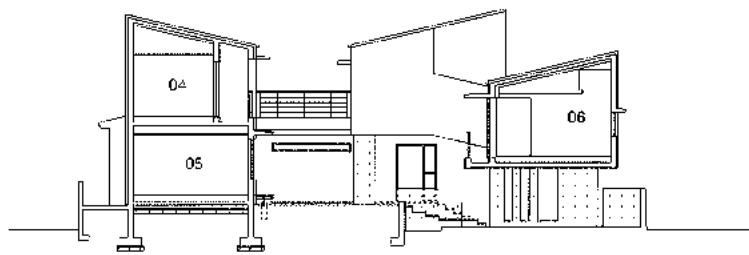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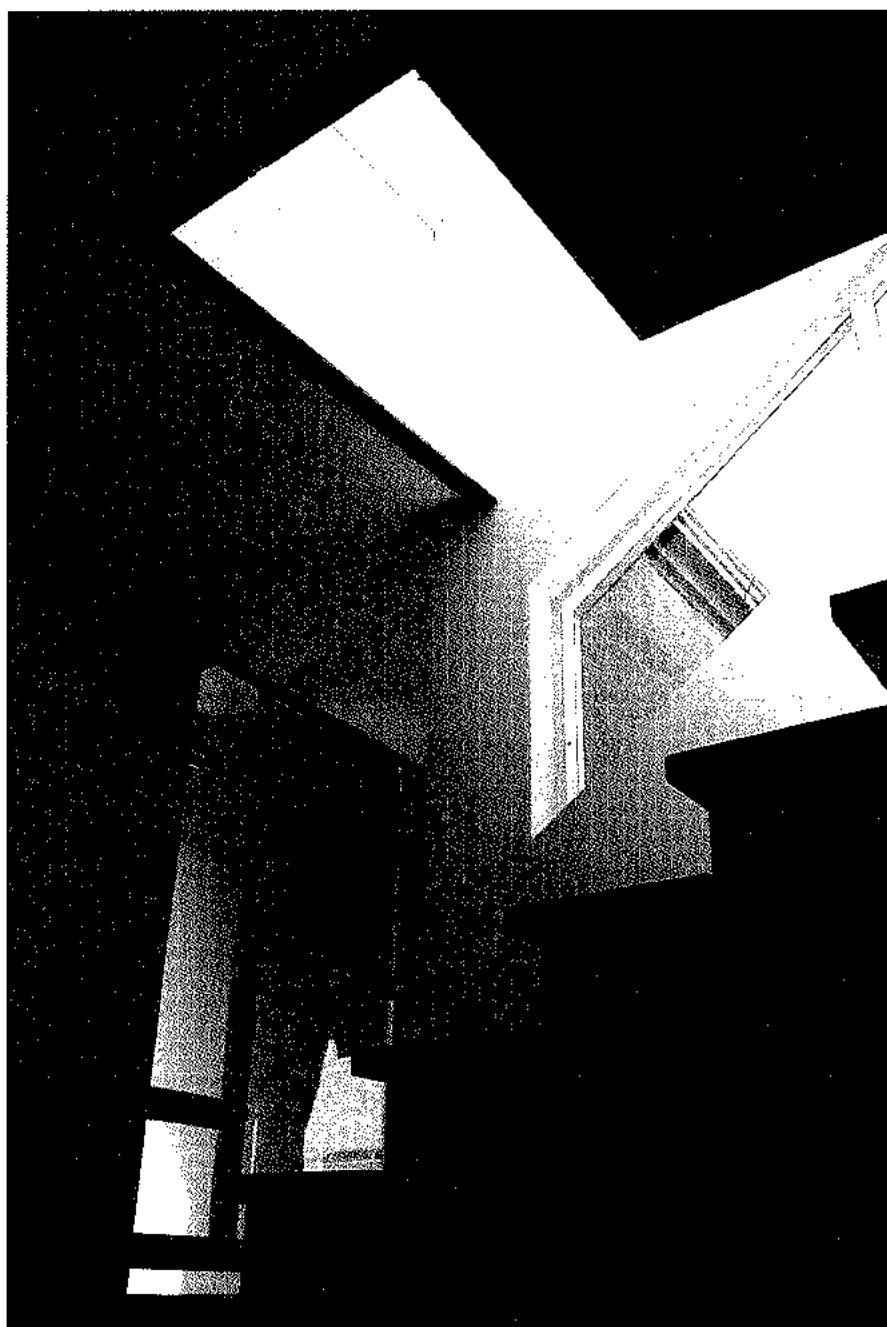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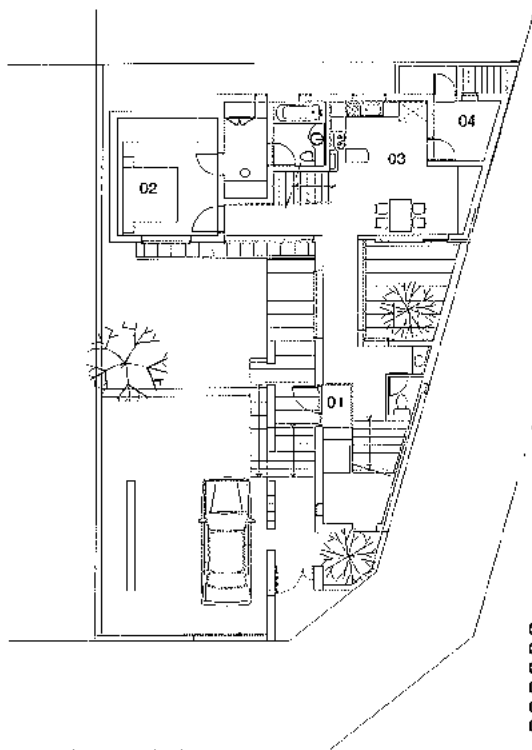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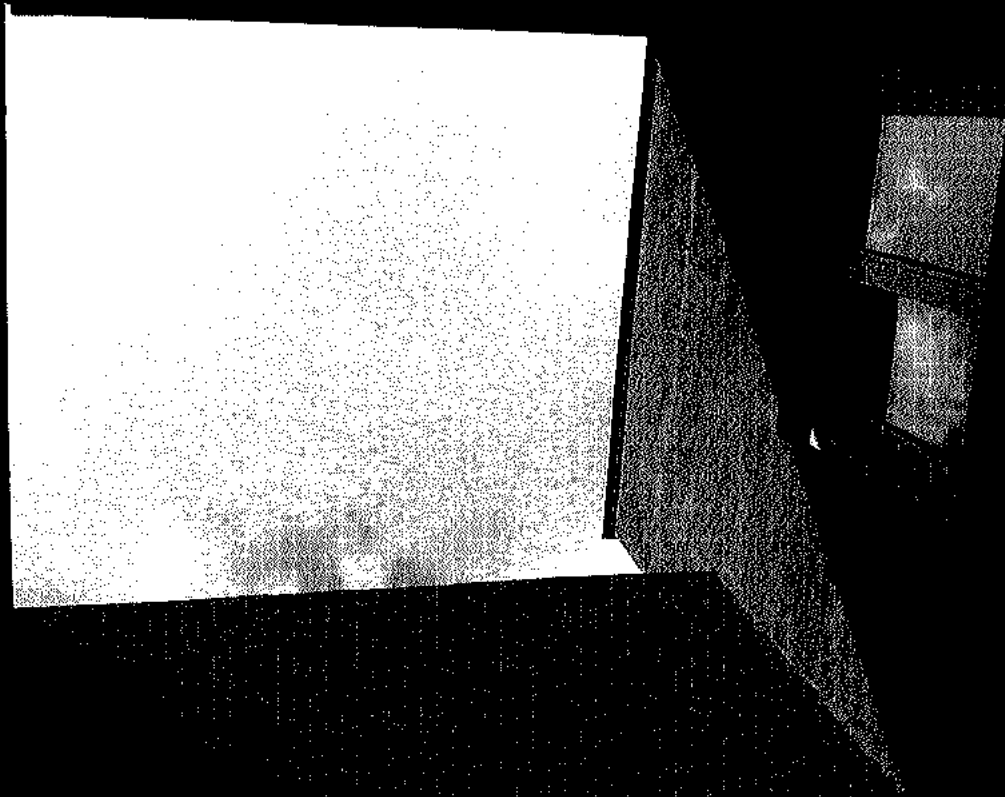
- 01_ 창고
- 02_ 현관
- 03_ 주방 및 식당
- 04_ 방
- 05_ 안방
- 06_ 거실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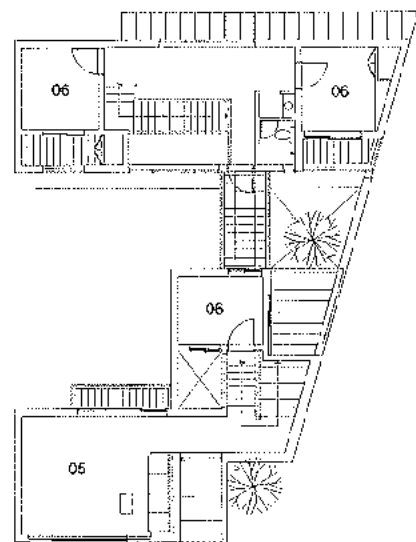
단면도





1층 평면도

- 01_현관
- 02_안방
- 03_주방 및 식당
- 04_다용도실
- 05_거실
- 06_방



0 1 3 5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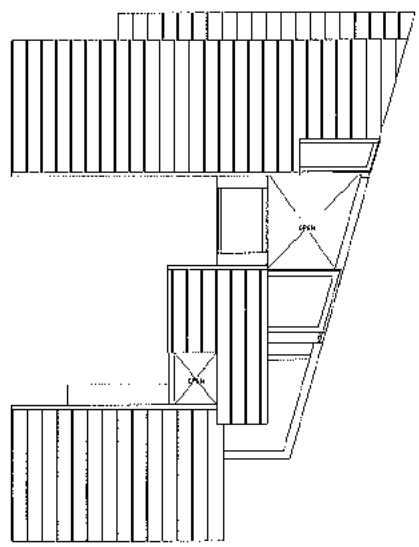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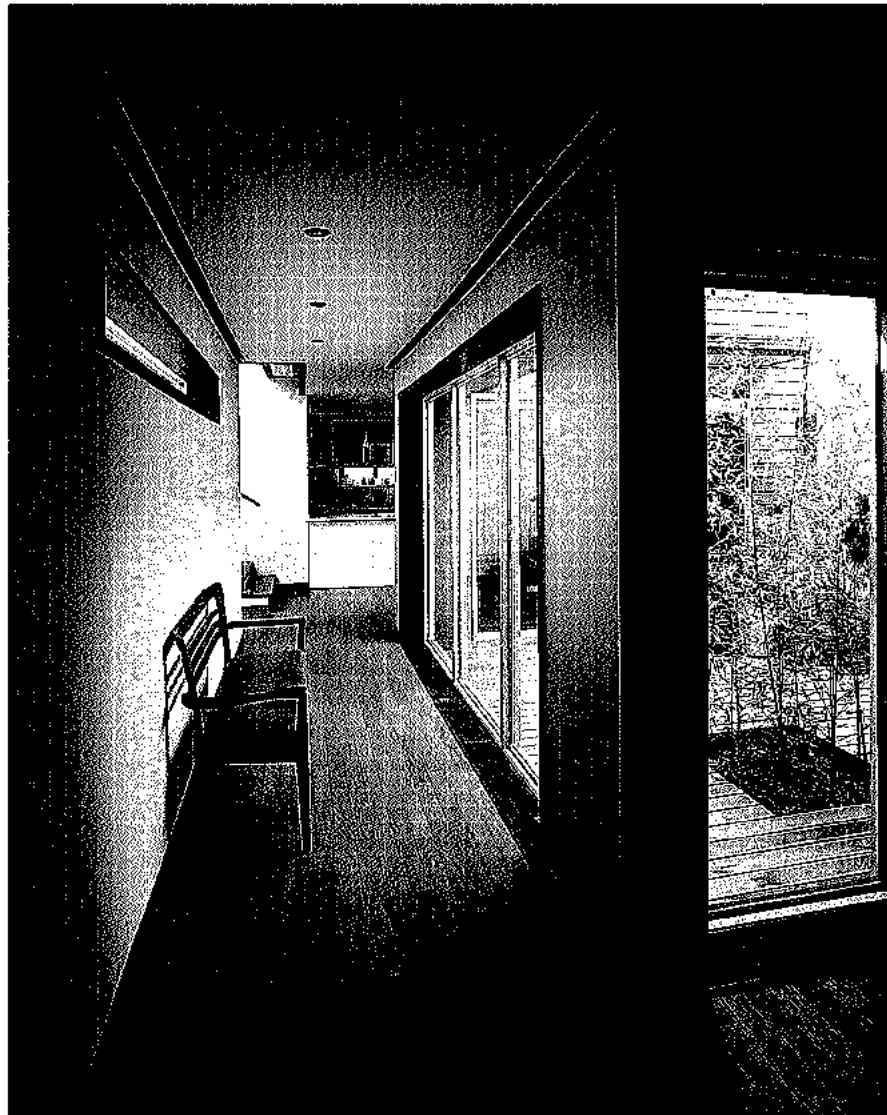


图 10-1-1

유한대학 타워

Yuhan College Tower

백문기 · 황철호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eack Moon-Ki + Hwang Chul-Ho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과안동 185-34번지의 8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상징탑, 홍보탑, 휴게시설, 전망대, EL, 계단, 물탱크, 정화조 등 복합시설)
대지면적	56463.00㎡ (전체)
건축면적	159.47㎡ (타워)
연 면 적	463.60㎡ (타워)
조경면적	13676.00㎡ (전체)
건 폐 율	0.28% (타워)
용 적 륜	0.82% (타워)
주차대수	2대 (타워)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편칭메탈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벽 / 수성페인트, 천장 / 비닐페인트
설계담당	전웅석, 윤세형, 김용만
구조설계	(주)크로스구조
기 계	(주)정도설비
전 기	(주)유원이엔씨
시 공	(주)올림건설
감 리	(주)정림건축
건축주	유한대학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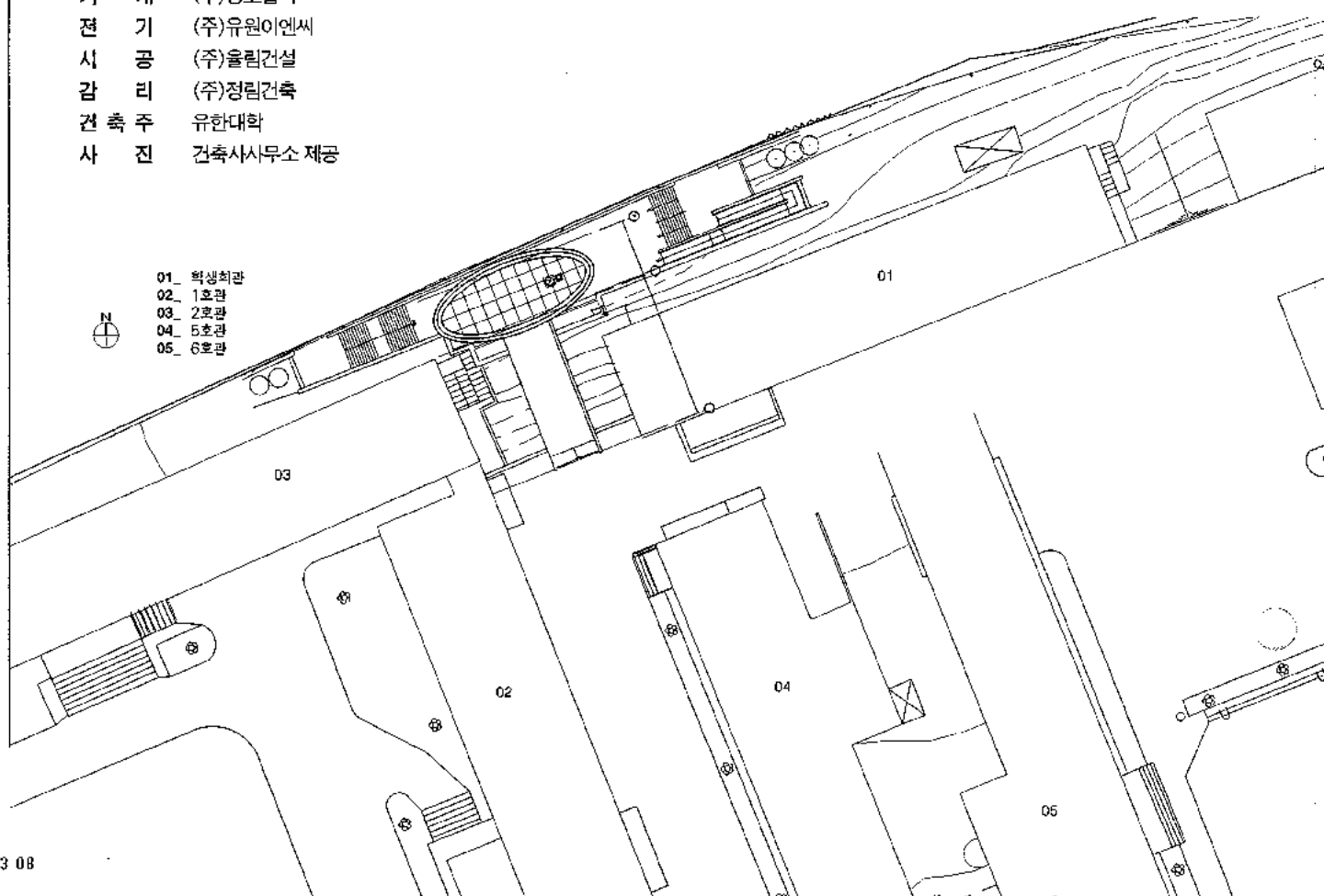
정체성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의 가로 문맥에서 독특한 존재의 타워를 구현한다.

건축주는 기존의 낙후된 환경을 변화시키고, 복합기능을 소화하는 무언가 독특한 것을 원했다. 그 기능은 홍보탑, 상징탑, 계단, 엘리베이터, 휴게시설, 전망대, 정화조, 물탱크 등의 복합적인 것이었다.

유한대학은 그 지명도에 비해 건축 환경은 좋지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알루미늄 편칭메탈과 유리 커튼월의 2중의 커로 된 타원형의 타워를 제안하였다. 순수 기하학적 타워의 모습을 통해 기존의 박스 형태의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며 눈에 띄면서도 우아한, 독특한 존재의 타워를 구현하고자 했다.

배치도







단순성 - simpli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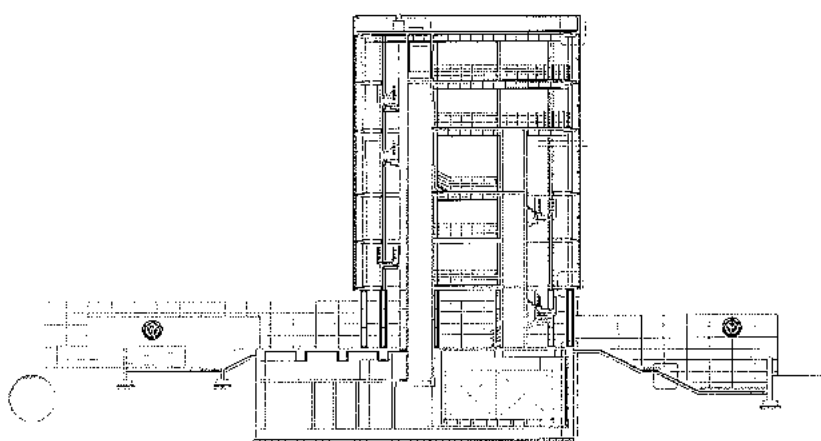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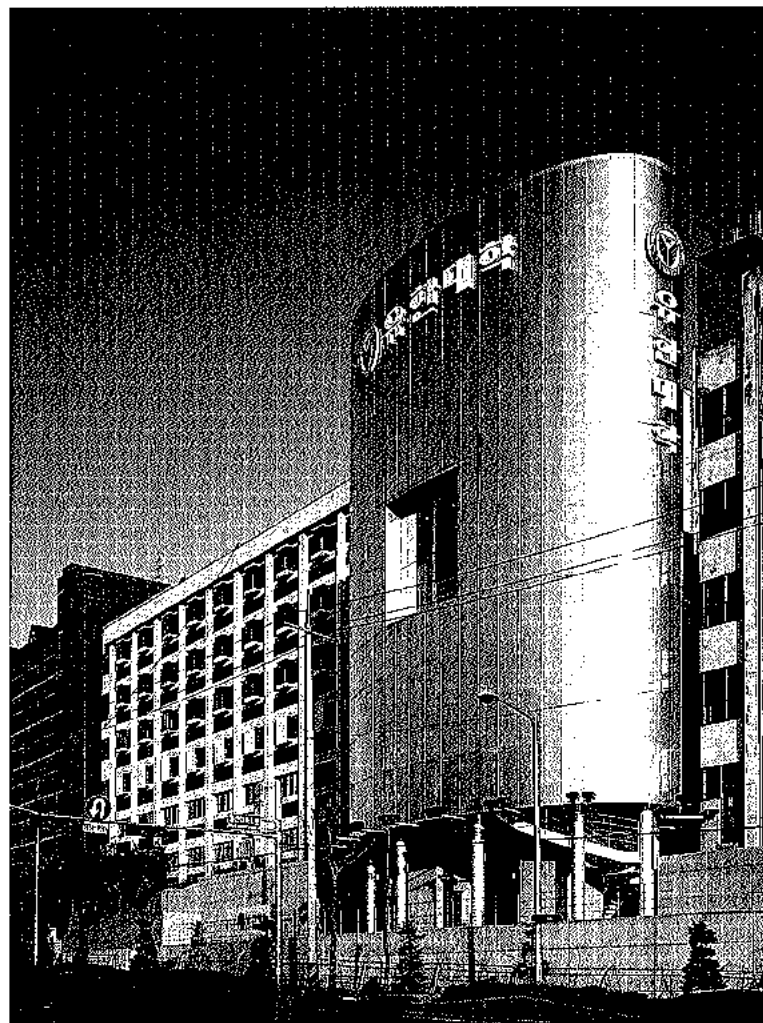
사람들은 단순성에의 욕구가 있으며, 건축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이에 있다.

단순성은 지루함이나 부족함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며 풍요로움이다. 단순한 타원형의 타워는 진부함의 반복이 아니고, 다양한 만남과 행위를 내포한다. 기단부의 회유하는 동선과 더불어 타원을 따라 변하는 계단의 움직임은 매우 역동적인 체험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단순한 형태가 내포하는 유동적인 공간으로 인해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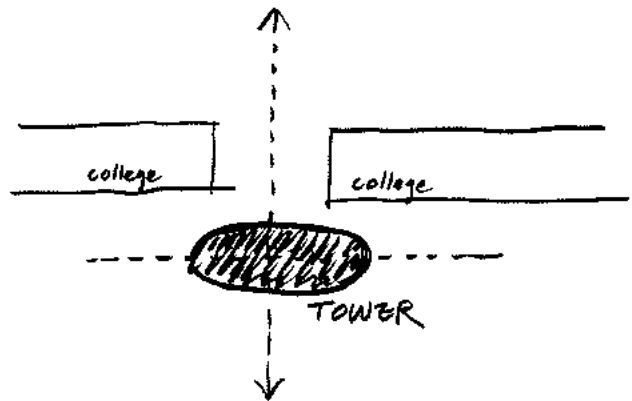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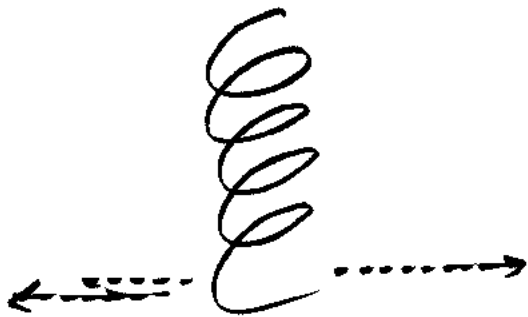
빛의 타워

빛은 그냥 빛이 아니며, 하얀 그림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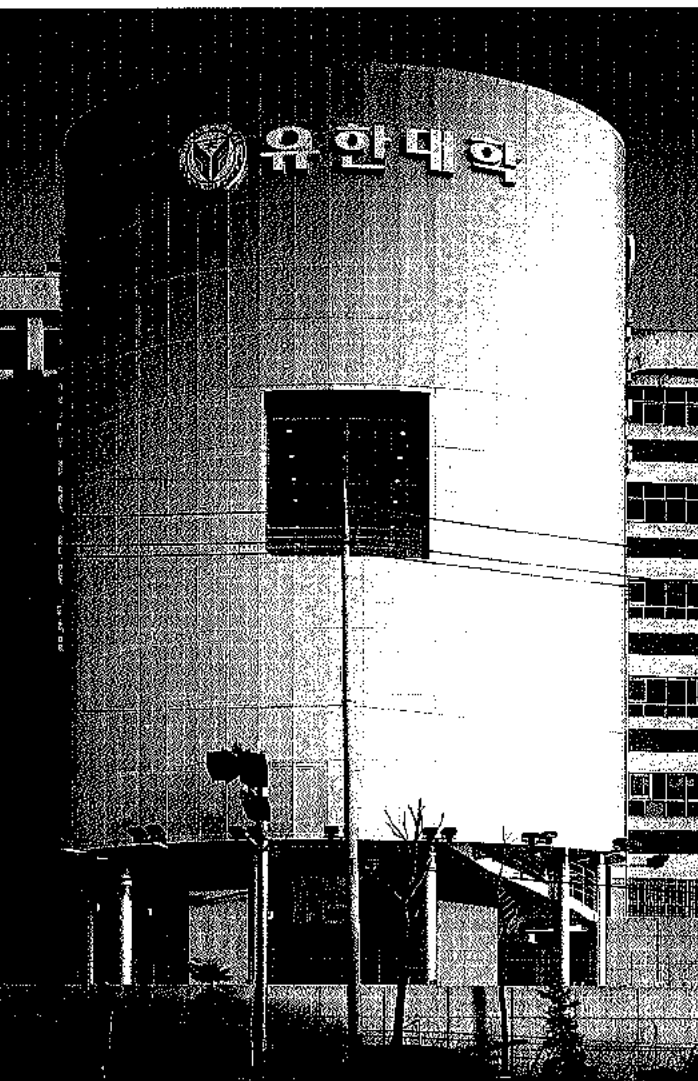
타워의 매력은 다중성에 있다. 알루미늄 편칭메탈과 유리의 2중의 커가 갖는 물성은 그것을 극대화한다. 다층적인 변화(반사성, 투과성, 굴절성, 투명성)와 빛으로 인한 일시성은 예기치 못했던 신비로운 면모까지 띄게 된다. 밤이 되면 모든것은 역전한다. 실체로서의 타워는 사라지고 빛의, 빛만의 타워가 된다. 우리는 감히 빛을 디자인 하고자 하였고, 빛은 하얀 그림자만 보일 뿐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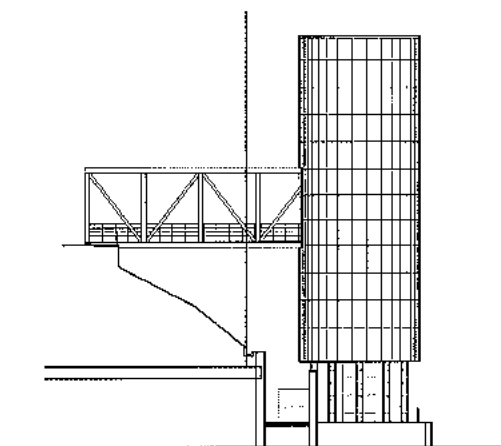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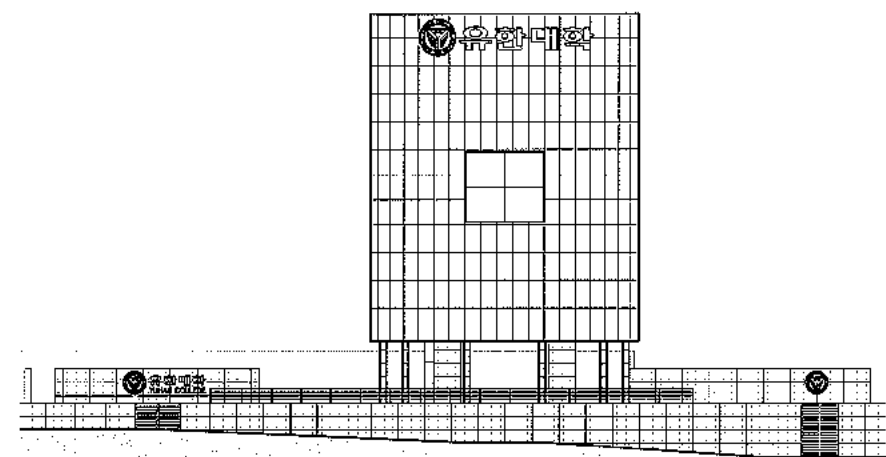
개념다이아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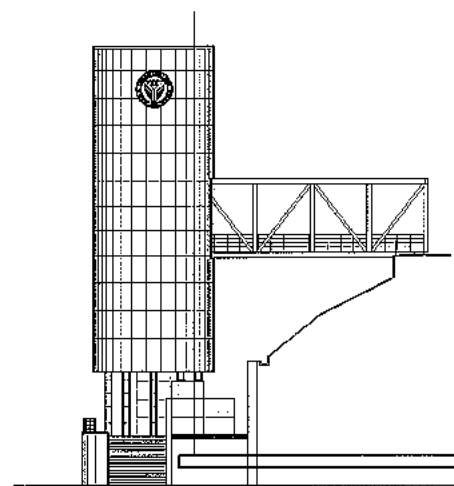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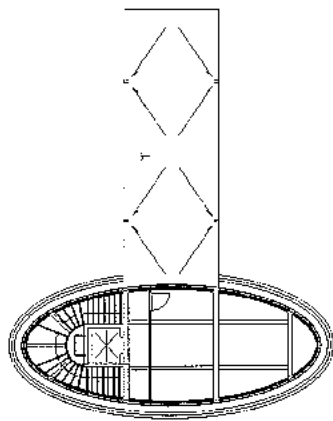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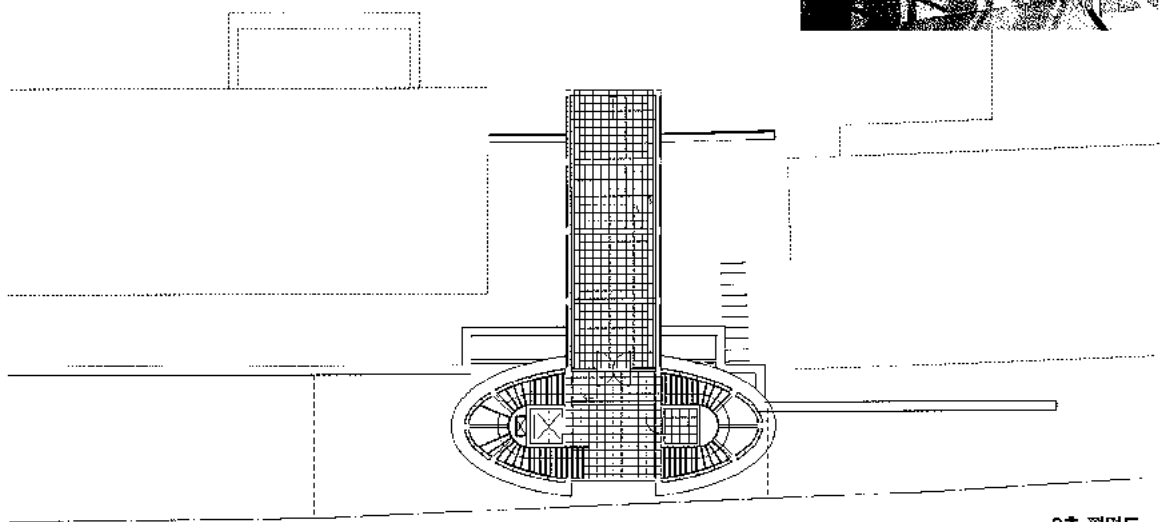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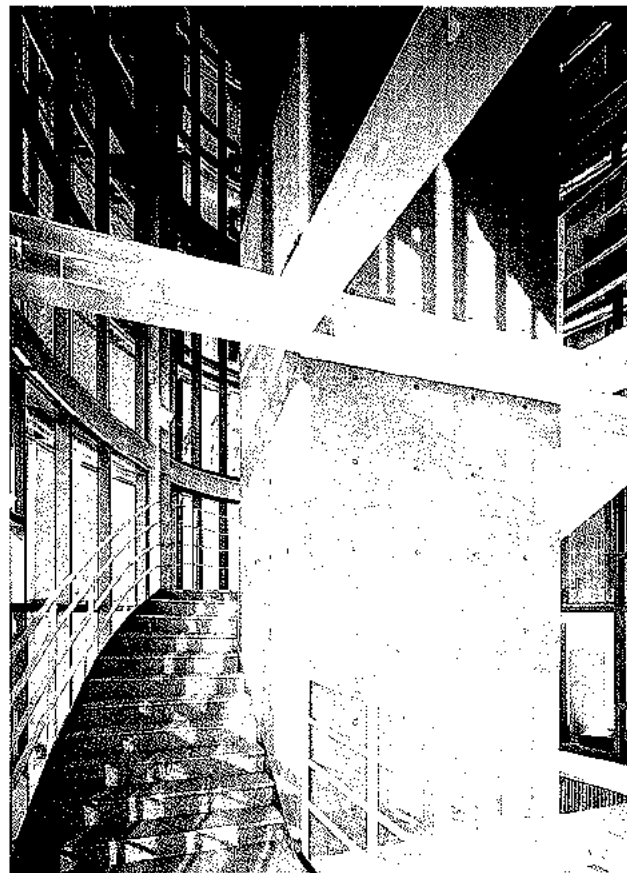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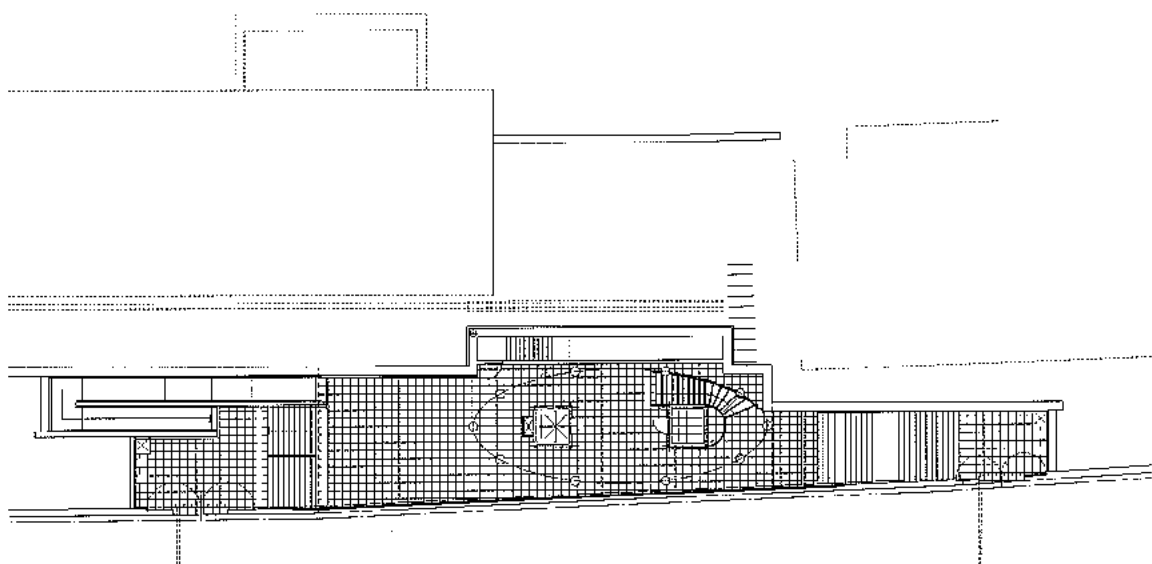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축사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The Social Role and Status of the Architect

이종호 /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니를 찾는 일

「내가 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로 시작되는 노래가사가 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사람? 건축문화 창달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인?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은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선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마치 여름 장마철 곳은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흐리기만 하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원망과 한탄을 하고 때론 분노를 표출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불합리한 제도, 과다 배출된 건축사, 생계마저 위협받을 정도의 낮은 설계비, 추락할대로 추락한 건축사의 위상...

그런데 건축사의 지위(위상)를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실제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 무감각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흔한 예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건축사」를 「건축설계사」로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설계사무소」로 잘못 호칭하는 등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건축사의 이미지나 위상이 왜곡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모니터링제도 바람직)우리 건축사들 스스로가 그러한 잘못된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협회 관련단체에서 발간하는 신문, 잡지, 책자에서 조차 오류가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2001년 9월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건축사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호칭을 「○○○소장」에서 「○○○건축사」로 개선키로 하고 홍보 중에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소장」, 「○○○설계사」로 통하기 일쑤다.

심지어는 건축사(犬畜事)라느니 복덕방만도 못하다느니 하면서 자기 비하를 일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하면서 남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를 존중은커녕 조롱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겠는가?

내가 나의 잠재적 가치를 찾고 자존심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철학의 열쇠는 자기 최면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직업을 사랑하자. 설령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고 다독여주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켜 보자.

협회에 참여하는 일

금년 들어 우리 사회의 으뜸 화두는 단연 「참여」가 아닌가 싶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것이 「참여정부」이니 그럴 법도 하다.

참여는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해도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도 나와 무관한 것이 없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렇지만 나라 없는 국민이 얼마나 서러운지,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책이 되어 힘을 발휘하는지(공무원의 정부조직, 노동자의 조합 등)를 생각하면 외톨이로 살아 갈 수 없는 것이 세상 현실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38년 동안의 오랜 전통을 간직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든든한 조직이 있다.

물론 그동안 협회에서 회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지 못하며,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등한시 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면이 있어 왔다. 그래서 협회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은 회원대로 분리되어서는 곤란하다. 협회는 임직원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회원일 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회원 모두가 주인 아닌가.

이제 뒤에서 품만 잡고 불평불만 하기보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적극적인 현실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바른말과 행동을 하는 회원이 많아야 협회가 바로 설 수 있고 회원들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럴 때 건축사의 위상도 높아지고 협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건축사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협회에 참여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보자. 현재의 우리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후배들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보자.

그리고 일부 회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설계비 덩핑, 불법면허 대여 등)를 추방하기 위하여 나 하나쯤, 내 사무실만 하는 식의 철저한 개인주의를 버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연대의식을 갖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자. 건축계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는 건축사의 위상도 바로 서지 않는다.

협회 또한 침묵하는 다수 의견을 읽는 지혜

를 발휘하여 회원 모두가 함께 하는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원 관리 차원을 넘어 경쟁력 있는 경영 체제로 전환, 협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회원 복지 향상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이기적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나

빠지는 내가 아니라

참여하는 나

내가 살고 협회가 사는 길

사회에 봉사하는 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큰 집에 최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도 인생의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심뿐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사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싶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축일만 잘하면 됐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학생이 우선 공부를 잘 해야겠지만 학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생상이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의 입학요건에는 공부뿐 아니라 사회봉사, 헌혈 등 다양한 경험을 고려한다고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관은 변하여 19세기의 자유, 20세기의 평등에서 21세기 들어서는 박애를 추구하고 있다.

생각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다.

또한 삶의 질은 주변 세계에 대한 공헌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해 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우리가 다른 이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할 때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기꺼이 박수를 쳐주었을 때 본인 이 건강해 질 수 있는 이치와 다름없다.

성공과 행복도 대의를 위해 헌신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인생에서 뭐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 보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자 독특한 재능과 자질을 부여받았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양과 비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전문 직업인이다.

사람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건축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도록 하는데 건축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간의 크기, 형태에서부터 마감 재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 사람에게 이로운지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해보자.

항간에는 건축사가 돈 있는 사람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다. 물론 나 역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생각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건축 세상은 넥타이를 맨 반듯한 사람보다는 잠바차림의 서민들,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편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은 거다. 설계자의 만족을 위한 건축, 입신출세를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엘리트 건축에서 일반 대중건축, 생활건축으로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건축주만을 위한 건축은 지양되어야 하고 공적 시각으로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

건축물은 건축주만의 것이 아닌 「더불어 삶」을 위한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생태환경을 도외시한 비인간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이제는 삶의 질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건축과 대중과의 교감으로 거리를 좁혀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한 건축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영세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건축사가 나서보자. 민간 차원의 「사랑의 집짓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등 시민사회 운동을 비롯 각종 사회활동에도 기회가 닿으면 참여해 보자. 돈과 명예도 좋지만 나누는 삶이 더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직원이 회사에도 애착을 갖는다하여 외국계 일부기업에서는 1년 중 정해놓고 봉사 현장근무를 하도록 한다.

우리 건축사들도 1년에 하루만이라도 봉사활동(건축상담, 분쟁조정, 건물안전, 예방, 수해복구 등)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사는 길

나 자신부터 우선 바로 세우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역량)을 키우자. 나의 노력이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보자.

변화를 두려워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확실히 변화하자. 하지만 변화의 노력은 개인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조직화, 극대화하기 위해 협회를 구심점으로 삼자.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한 번 큰 맘 먹고 의식과 행동을 바꿔보자.

도시계획 과정부터 건축사가 참여하여 딱딱하게 굳어가는 도시를 유연하게 살려보자. 건축허가 자체도 궁극적으로 협회(지역건축사회)에서 담당하고 건축사에 대한 처분도 윤리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보자. 건축사의 손을 떠나 방황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의 손을 거치도록 하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축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자.

평생 배우는 자세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연수기회도 갖자. 그리고 여유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공헌)하자.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길이다. 

환경친화적인 섬유질 단열재

Environment - Friendly Cellulose Insulation

권영철 / 한라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by Kwon Young-Cheol

섬유질 단열재의 국내외 현황

정부는 2001년 1월 16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열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건물외피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 우레탄폼, 유리면, 암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 외에도 섬유질 단열재라는 것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섬유질 단열재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몇몇 중소기업체가 생산하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한국에서의 섬유질 단열재 산업은 초기단계로 연간 1,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단열재 시장 점유율은 약 0.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단열재 시장의 약 71%를 스티로폼, 우레탄 등의 유기단열재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9%는 유리섬유, 암면과 같은 무기질 단열재가 점유하고 있다. 반면, 북미의 경우, 1940년대부터 섬유질 단열재가 사용되어 왔으며, 단열재의 물성향상과 적용확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최근 2년간 매년 약 750,000톤의 종이와 섬유질단열재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약 940,000톤의 섬유질 단열재가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점유율로는 주거용 건물의 8~10%, 상업용 분사식 단열재 시장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STM 기준에서 섬유질 단열재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ASTM C 739는 천장공간과 이와 유사한 수평단열에 주로 사용되는 공기분사식 섬유질 단열재의 표준시방을 다루고 있으며, ASTM C 1497에서는 안정화된 섬유질 단열재의 수평적용을 위한 표준시방을 다루고 있다. 안정화된 섬유질 단열재는 시공 후 가라앉음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분사식 단열재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분사하는 단열재이다. ASTM C 1149에 기술되어 있는 자립형 분사식 섬유질 단열재는 상업용 건물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립형 분사식 섬유질 단열재는 벽이나 천장에 지지물 없이 부착될 수 있을 만큼의 상당량의 접착제를 포함하고 있다.

섬유질 단열재의 생산

섬유질 단열재는 주로 폐신문지와 판지로부터 만들어진다. 섬유질 단열재는 중량의 80%가 섬유질이며 20%는 화학물질로 대부분은 봉산, 봉사와 황산암모늄과 같은 내화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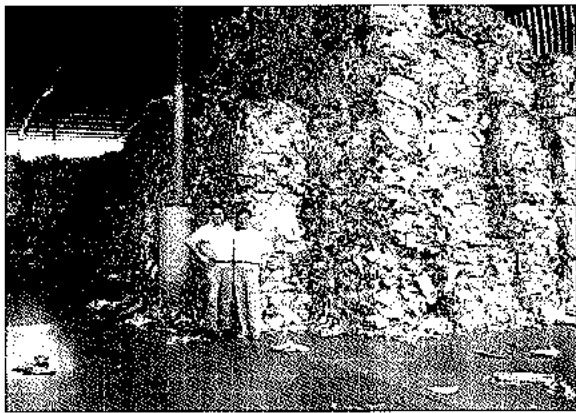


그림 1. 섬유질 단열재 생산을 위한 폐신문지 더미

전형적인 섬유질 생산 공장에는 대량의 폐지를 저장, 운송하고, 절단, 분쇄, 화학약품 첨가 및 포장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종이처리와 가루 형태의 내화재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량의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대식 섬유질 생산공장에는 먼지를 집진하는 장치도 있다.

내화재는 보통 분쇄나 섬유화 공정 전에 종이흐름 속으로 계량 투입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와 건조한 화학첨가제가 서로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이다.

섬유질 단열재의 환경친화성

국내의 단열재 시장은 유기질 단열재(스티로폼 55%, 압축보드 6%, 폴리우레탄 29%)가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기질 단열재(유리면, 암면)는 29%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단열재들은 비교적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물리적 강도나 흡수성, 시공성 등에서 성능이 우수하여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존의 단열재들은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단열재들은 귀중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자원고갈 및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된다. 무기질단열재는 광석을 채취하여 생산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할 수 있고, 화학합성단열재는 귀중한 석유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기존 단열재는 생산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다. 즉, 제조과정에서 용해 및 압축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됨으로써 재료자체에 내재에너지(embodied

energy)가 이미 다량 함유되어 있다.

셋째, 기존 단열재는 건물의 해체시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부 폐기물로서 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넷째, 기존 단열재 중 가장 보편적인 화학합성단열재는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화재시 유독화학가스를 발산하여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단열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섬유질단열재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섬유질단열재는 원료의 대부분을 폐지에서 얻기 때문에 폐지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경친화적이며, 동시에 건물의 해체시에도 쉽게 폐기하여 부식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기존의 단열재와 거의 동일한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심지어 섬유질단열재가 유리섬유에 비해 26.4%나 단열성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 제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사용이 적으므로 내재에너지가 적은 친환경제품이다. 캐나다 표준협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일 무게의 무기질 단열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섬유질 단열재 생산 에너지에 비해 59배나 필요하며, 동일 열저항을 얻기 위해서는 15에서 20배의 생산에너지가 소요된다고 한다.

4) 실내공기오염이 방지되고 내화재를 첨가함으로써 내화, 내연성을 지니게 된다. 스티로폼, 우레탄폼, 우레아폼 등에 비해 내화성과 내연성이 뛰어나다.



그림 2. 섬유질단열재의 내화성능 실험상면 (섬유질 단열재 위의 등인이 녹지만 불은 붙지 않음)

섬유질 단열재의 단열성능

공기분사식 섬유질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ASTM C 518에 따라 제작된 Lasercomp FOX405와 FOX600모델을 이용하여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실험하였다. 시편의 평균온도, 시편의 밀도, 시편의 두께, 내화재 함유량 등을 변수로 열전도율을 측정하였으며, 공기분사식 유리섬유와 단열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유리섬유와 섬유질 단열재의 열전도율 실험을 실시하였다.

1) 열전도율 실험 결과

① 시편의 평균온도와 열전도율

시편의 밀도가 25.35 kg/cm³인

섬유질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온도에 비례하며, 열전도율(λ , kcal/m²·h·°C)과 온도(t , °C)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lambda = 0.02976 + 0.0001195t \quad (R^2 = 99.96\%)$$

② 시편의 밀도와 열전도율

섬유질 단열재는 특정밀도를 중심으로 밀도가 작거나 클 경우 열전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시편의 두께와 열전도율

밀도가 25.23kg/m³인 시편의 평균온도 24°C에서의 두께에 따른 열전도율실험을 한 결과, 9개의 실험결과가 모두 0.033kcal/m²·h·°C전후로 나타났으며, 두께에 따른 열전도율 실험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내화재 함유량과 열전도율

내화재 함유량에 따른 섬유질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내화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내화재를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 열전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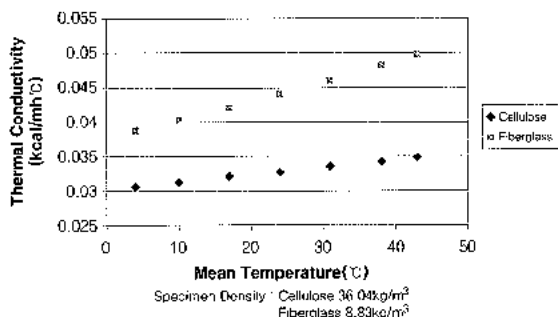


그림 3. 섬유질 단열재와 유리섬유의 단열성능 비교

⑤ 유리섬유와 열전도율 비교

분사식 섬유질 단열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사식 유리섬유에 비해 측정 온도에 따라 약 25~43%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리섬유에 비해 밀도가 높아, 단열재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적인 섬유질 단열재의 경우, 20±5°C에서의 열전도율은 0.033~0.034kcal/m²·h·°C로 유리섬유에 비해서는 약 30% 열전도율이 낮고, 스티로폼과 거의 동등한 열전도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질 단열재의 건축적 적용 제한

환경친화형 섬유질 단열재는 크게 공기분사식과 습식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된다.

공기분사식의 경우, 천장과 지붕사이 공간, 벽체 중공층, 마루 아래공간 등에 Blower Machine으로 넣어넣으면 된다. 이러한 단열시공이 가능한 건축구조는 주로 목구조와 철골구조로 외파단열을 건식으로 할 경우에 매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섬유질 단열재의 낮은 열전도율과 훌륭한 내화성능으로 인해 외피를 글래스울보다 기밀하게 단열할 수 있고,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썼을 경우 우려되는 화재발생시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 단열재의 대체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습식 스프레이 방식의 경우, 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나 철골구조에서 단열과 치음 및 단열과 흡음이 동시에 요구되는 천장이나 벽체부위에 효과적으로 시공될 수 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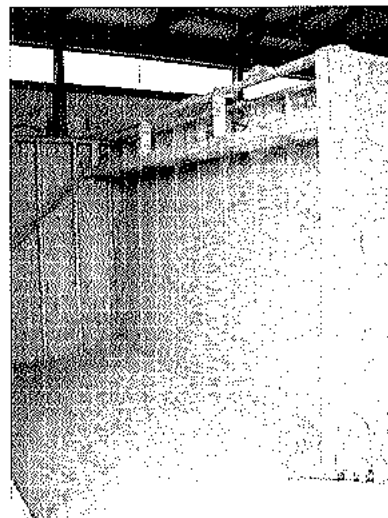


그림 4. 소량의 물을 이용한 버먼 분사

공간 클립 - 03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파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종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b. 공간개념지도
- c.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5회

- a. 중성의 공간
- b. 공간의 성격-공적공간
- c. 공간의 성격-장소성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위계
- c. 공간의 전이

7회

- a. 공간의 창조
- b. 기억나는 공간
- c. 쉬운 공간만들기
- d. 공간실험

8회

-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 b. 공간의 종류
- c. 공간의 극

9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비례

10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11회

- a. 공간속의 기동
- b. 세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2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a. 누구의 공간인가?

Who's space is it?

안동 하회마을 뒤의 병산서원에 가면 만대루라는 누각이 있다. 그곳은 기둥만 있고 벽이 없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사방이 시야에 들어온다. 남쪽으로는 낙동강 물과 맞은편 산의 녹음이 보여지며, 북쪽으로는 병산서당이 들어온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낙동강 건너편의 산과 숲은 병산서원의 소유는 아니다. 그러나 만대루에 앉으면 앞산의 녹음은 완벽하게 병산서원의 것이 된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되는 순간이다. 실제 그 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그 산을 더욱 더 많이 느끼고 즐기는 쪽은 병산서원 쪽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산은 산주인의 것인가? 만대루에 앉은 사람의 것이 되는가?



그림 1. 만대루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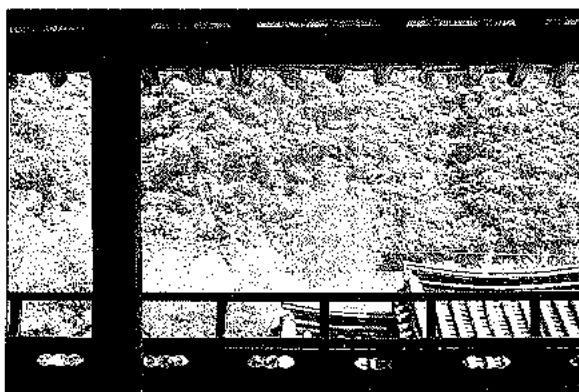


그림 2. 만대루에서 보는 모습

일반적으로 공간의 소유는 내방, 우리 집, 우리 마당, 우리 사무실처럼 정해진 틀을 갖고 이루어진다. 명확하게 실명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를 나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제 소유하였더라도 그 사람은 그 공

간의 값을 소유한 것이지, 그 공간의 가치를 소유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공간의 가치를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공간을 소유한 것은 다를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 큰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에 대해 좁은 의미를 갖는다면 나는 정원 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에서 보이는 먼 산과 하늘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소유의 소유로서 자신에게 의미 있다면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방, 우리 집, 우리 영역과 같이 일정한 부분만을 소유한다면 공간의 한정이 느껴지게 된다. 내방은 3~4m의 폭을 갖는 좁은 공간일 수 있지만 창을 열면 들여진 앞마당이 내방의 확장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담장이 쳐진 우리 집은 한정된 공간일 수 있지만 집밖의 도로가 집 앞의 안마당 역할을 하며 확장될 수도 있다. 소유한 공간은 좁지만 사용하는 공간은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길거리의 모습

아파트의 마당은 거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의 공간이다. 그러나 오히려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되기도 한다. 아파트의 계단실 출입 공간은 두 집의 공동 공간이다. 그러나 양쪽 집 어느 쪽도 자기의 공간으로 생각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 모두 그 곳이 누구의 공간인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공간의 소유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만대루와 같이 시각적인 소유나 아파트 마당과 같이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는 소유에 한정하지 않는 소유를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누구의 공간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된다.

강릉의 선교장은 조선시대 주택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주택의 평면을 보면 남자들의 출입으로 보여지는 솟을지붕

의 대문과 여자들의 출입문인 평지붕의 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각각의 형태를 통해 남자와 여자는 성별에 의해 사용 공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와 건축적 형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재미난 예이기도 하지만 솜을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서면 사랑채로 가는 중간부분에 건물이 튀어나와 있다. 그 공간은 언뜻 보면 남자의 공간에 속한 것처럼 남자 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건물은 남자 쪽 공간으로 창이 없으며 출입구는 모두 반대편으로 나있는 것을 알게 된다. 위치는 남자 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 공간은 여자 쪽 공간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인간은 배치도 상으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적으로 공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자공간에 가깝게 위치하였지만 남자들에게는 그곳이 벽처럼 느껴지고 내부공간을 활용하는 여자들에게는 깊숙한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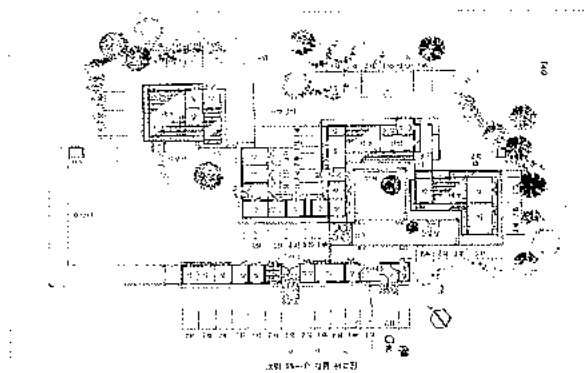


그림 4. 선교집 평면 - 솜을대문 위쪽의 방은 누구의 방인가?

건축가는 건축공간을 설계하며 각각의 공간이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재미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각 실로 나뉘어지는 개별의 공간의 소유는 실명으로서 명확히 구분되지만, 건물의 외부공간이나 통로 공간, 로비 공간, 그리고 멋진 전경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공간, 하늘 공간 등에 대해 누가 그 공간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건축가의 능력에 따라 매우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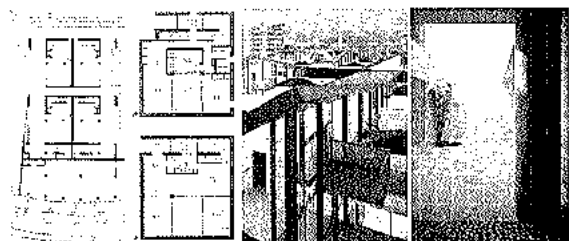


그림 5. 렘 쿨하스의 넥서스 호텔단지 평면

렘 쿨하스는 일본 후쿠오카의 넥서스에 지은 미래형 주택 단지에서, 햇빛을 받는 작은 중정을 1층과 2층, 3층의 중정을 면한 방에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창의 위치를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교묘히 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공간이지만 보기에 따라서 내방에 딸린 공간으로 나뉘어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유가 명확함으로서 꼭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판자촌에 가면 어지러운 집들과 판자로 여다가 길이며 어다가 마당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누구의 길이며, 누구의 마당인지 구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당과 길을 잘 이용한다. 누구의 공간인지 불명확하지만 길 가운데에 빨래를 널거나 고추를 말리곤 한다. 길을 지나는 외지인은 구획되지 않은 길에 당혹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사용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그들만의 코드며, 외지인이 함께 하기 힘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의식일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의 안방은 부모의 방이었지만 부모님이 안게 시거나 함께 있을 때는 가족 공동의 공간이었다. 그 공간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가족간의 친밀감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인간의 관계를 엮는 고리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태리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은 바다와 접해있으며 성당과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여기서 광장은 ㄱ자 모양이라고 단순히 말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ㄱ자의 끝에서는 서로 다른 ㄱ자 광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광장으로 보기 힘들며 ㄱ자의 광장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다쪽에 서있는 사람은 바다쪽의 피아제따 광장에 속해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마르코 성당앞의 광장에 있는 사람은 그가 거기에 속해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광장의 소유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장이 만나는 부분의 공간이 터져있는 부분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사람은 어느쪽에 속해있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이다. 그는 큰 광장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자신이 큰 광장에 속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피아제따 광장의 모서리를 통해 바다를 훑길 수도 있을 것이다. 양쪽 어느쪽으로도 쉽게 그쪽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어느곳에 속해있지 않은 애매한 미묘함이 이 광장을 더욱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만드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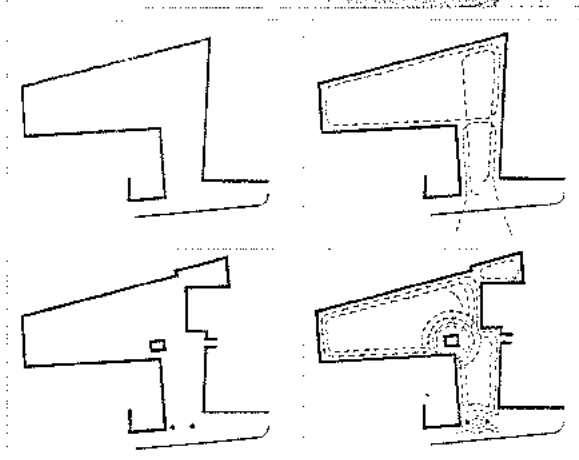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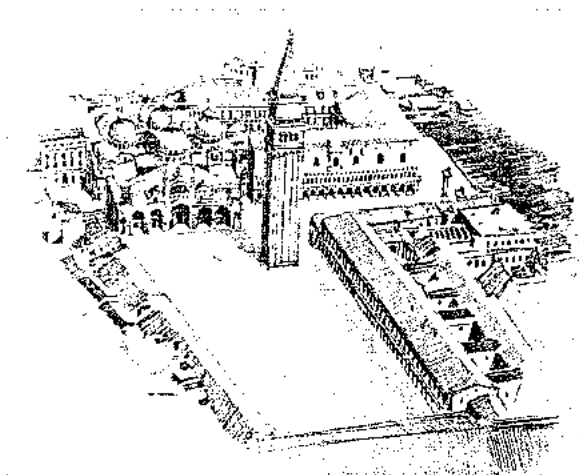


그림 6. 베니스 광장 스케치와 다이어그램

한정된 공간을 제외한다면 무한히 넓은 공간의 향유를 위한 소유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정해져 있지 않은 공적인 세계를 이루는 법칙이기도 하다. 우리의 외부세계를 이루는 공간은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b. 얼어있는 공간

Frozen Space

공간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공간을 둘러싸는 형태에 대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방법으로 평면도나 단면도에 의해 상징적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공간만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볼 수 있는데, Bruno Zevi

는 성 베드로 성당을 예로 들면서 여러 가지 공간표현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공간을 표현한 것인지 의미를 표현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공간 표현에 대해 그래도 아직까지 인정되는 방법은 Noll의 지와 도를 전환하는 방법이다. 그는 형태를 비워두고 공간을 형체화 함으로서 도시를



그림 7. Noll의 지와 도

공간을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공간을 2차원적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즉, 공간의 평면적인 크기만을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수직적 높이는 보여지지 않는다.

MIT의 Jan Wampler 교수는 공간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간을 얼음처럼 얼리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형태요소는 제외하고 공간만을 입체화하여 얼음의 느낌에 가까운 아크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의 방법은 공간으로만 도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놀리의 지도에서 갖지 못했던 공간의 높이를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입체적 느낌전달에 유용함을 갖는다.

공간이 얼어 얼음처럼 보임으로서 그 투명성 때문에 관찰자는 정말 그곳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모든 것을 공간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진 공간모형은 일반적으로는 형태로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모형으로 표현되지 않는 빈 여백이 오히려 벽체나 공간으로서 의미없는 부분이 되며 아크릴 모형으로 표현된 부분이 인간이 느끼고 사용하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보게 되면 건물이나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사건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얼어 있는 공간의 높이는 공간의 강렬도(Intensity)에 의



그림 8. 얼음으로부터 공간으로 - 투명한 아크릴로 공간을 표현

해 정해진다. 강렬도를 쉽게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또는 빈도수 정도로 규정된다. 예를 들면 넓은 근린공원은 공간의 크기는 크지만 공간의 강렬도는 낮을 수 있다. 반면 도심공간은 공간의 크기는 작더라도 공간의 강렬도는 클 수 있다. 이때, 얼음으로 표현되는 공간의 높이는 강렬도에 따라 근린공원은 낮은 높이로, 도심공원은 높은 모형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서 입체적 공간표현이 되며 관찰자는 공간의 강렬도를 입체로서 읽으면서 공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얼어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아크릴을 색상 아크릴로 사용하거나 전구를 넣어 빛을 넣음으로써 공간의 또 다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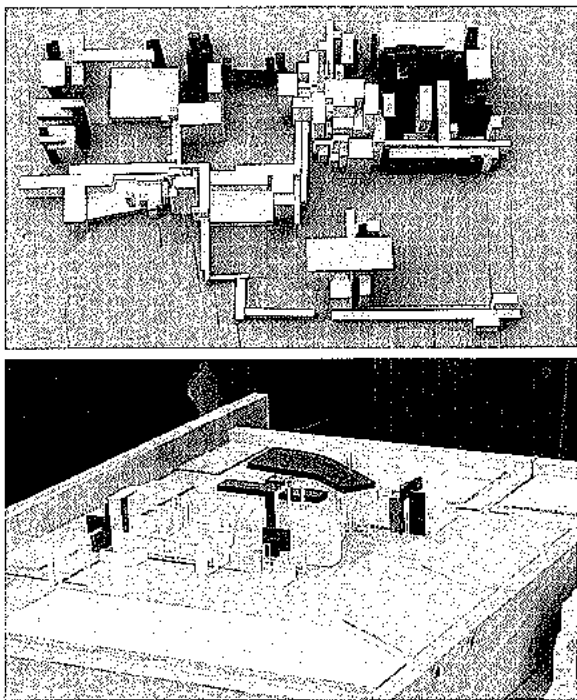


그림 9 공간의 입체적 표현-사제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얼음처럼 공간을 얼려 생각하는 방법은 그 논리적 허점이 많을지라도 매우 재미있는 사고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 아크릴로 제작된 모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쉽게 보이는 것은 아크릴의 투명성 때문에 내부공간의 볼륨을 인식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재질효과를 보이기 위한 형태표현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다. 모형재료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설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공간표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오히려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질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얼어있는 공간으로서 아크릴 모형, 그것이 공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공간의 표현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공간의 관점에서 건물이나 도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 서랍속 공간

Space in a draw

다락속 공간, 품속 공간, 호주머니 공간, 나무속 공간, 엔진속 공간, 그리고 서랍속 공간.....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다른 공간들이 있다. 삶은 이러한 공간들을 건축적 공간의 예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일상적인 부분들이기에 행위 속에서 잊혀진 공간들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서랍속을 챙길 때, 물건을 정리하다가, 긴 연필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서랍속에 물건을 정리할 방법을 생각한다. 편지지는 낮게 넓은 공간으로, 클립은 작게 모아서, 칼과 가위는 길이에 맞춰서, 리본과 잡동사니들은 그에 맞는 위치에.....

서랍속이라는 공간이 있으며, 나는 그 공간을 다룬다.

서랍속의 공간이 갖는 의미는 2가지로 생각된다.

첫째는 이 공간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적 시각이며, 둘째는 내 공간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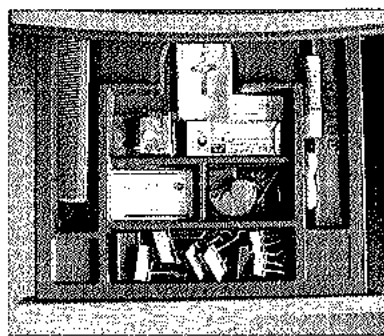


그림 10 서랍속 공간의 모습



그림 11. 서랍속 공간같은 모습

인식이다.

서랍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다. 서랍에는 우리가 아끼는 물건들을 집어넣는다. 연필, 봉투, 돈, 지우개, 가위, 서류, 필름, 갖가지 물건들을 서랍속에 넣는다. 서랍을 열면 한눈에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보인다. 각각은 규격과 형태에 맞춰 서랍속에 위치한다.

서랍에 물건들을 배열하며 공간을 갖고 노는 것에 대한 회열을 느낀다. 물건 배열이 재미있기도 하고 멋이 나기도 한다. 서랍속 공간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넣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집어넣더라도 물건들은 말이 없다. 가지런히 배열된 물건들도 그것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것들을 배열한 사람에게 멋지게 배열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이다. 서랍속 공간은 건축적 공간과는 달리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공간을 만들거나 다루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적 공간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다. 혹시 우리가 설계하는 건물이 마치 서랍속 공간처럼 사람이 들어가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물건 넣는다는 회열 속에 물건을 배열하듯 공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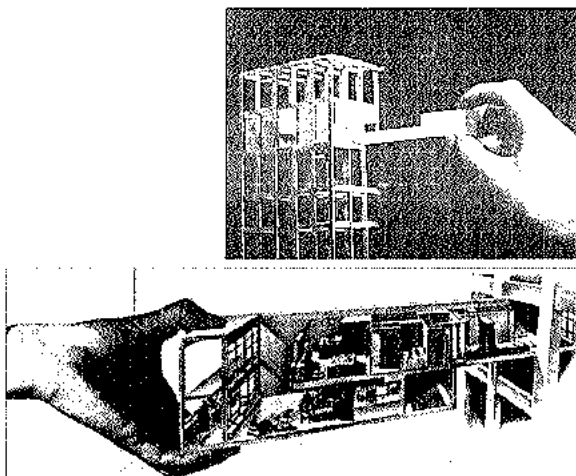


그림 12. 서랍속 공간 같은 오브르비제의 주거모형

서랍에 있는 사물들은 비교적 개인에게 의미있는 것들이다. 아끼는 펜이 있으며,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과 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물건들이 있다. 이것들에 대한 추억은 가슴 속에 품어져있듯이 서랍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물건 하나하나가 의미 있으며 그것을 담고 있는 서랍속 공간은 사실 잘 인식되지 못한다. 책상서랍에 들어있거나, 사물함에 들어있거나, 서랍장에 있거나 그것은 별 상관없이 보인다. 물건이 중요한 것이지 담고 있는 공간은 의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날, 물건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는 순간, 물

건의 중요성보다도 그것을 담는 공간의 중요성이 커진다. 마치 사무실에서 해고당하여 자신의 책상과 공간이 상실될 때처럼, 자신이 아끼는 사물들을 넣어두었던 자신만이 챙기던 공간이 사라질 때의 허무함은 무척 크다. 서랍속 공간은 그것을 의미해준다. 나만이 갖고 있는 공간, 그곳에는 나만이 간직한 추억과 내 것만을 숨겨둔 공간이며, 나의 생활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내 비밀의 일부가 숨겨져 있기도 한다. 그것은 작게는 서랍속 공간이지만, 넓게 보면 내방이 그에 속할 것이며, 내 집이 그럴 것이고, 나의 동네가 그럴 것이다. 다른 가치에 의해 나를 이루는 나의 가치를 잊고 사는 현대인에게 나만이 갖는, 작은 호주머니 공간으로부터 내 서랍 공간, 내방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공간의 소유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으로서 서랍속 공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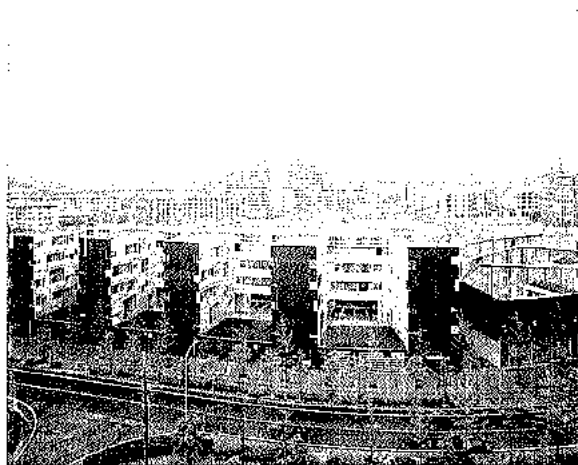


그림 13. 세인트폴의 Nexus 주택단지 - 서랍속 공간 같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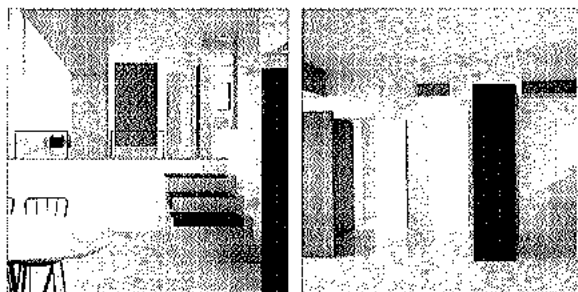


그림 14. 세인트폴의 Nexus 주택단지 - 서랍속 공간 같은 내부

내 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건물속 공간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다. 이들 각각의 속속 공간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할뿐더러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건축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圖

건축계소식 / 67

해외잡지동향 / 73

현상설계 / 82

건축계소식 archi-net

「2003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최

9월 19일~24일까지 BEXCO서

세계 건축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03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문화제의 주제는 '해양도시, 건축문화의 비전'이다.

이 행사는 오는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되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신재)를 중심으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또한 문화제의 보다 안정적인 민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15일에는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가졌으며, 문화관광부의 법인 등록을 통해 8월경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해 2천여명이 늘어난 7천여명의 규모로 기획되고 있는 이번 문화제는 해양도시 부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또한 건축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건축적 안목을 고양시키는데 행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부산국제건축공모전

지난해 UIA와 공동으로 진행된 「부산국제건축공모전」은 올해부터 부산시가 직접 주관한다. 공모전은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방안'을 주제로 광안대교와 그 주변의 개발 방향에 대해 세계 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건축워크숍

전통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장례문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국전통과 이방가르드」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건축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9월 4일부터 2주간 국내외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현장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는 국제워크숍으로 해양도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도시 부산

또한 해양도시 부산에 걸맞는 친환경적 수변공간의 창출을 위해 일본·중국·대만·호주·러시아 등 세계 해양도시들의 워터프론터 개발사례를 비교 전시하는 「해양도시 건축문화기획전」을 비롯해 초청강연 및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특히 시민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부산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축투어」가 마련되었으며, 기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축 시청각실」을 운영과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건설홍보관」이 설치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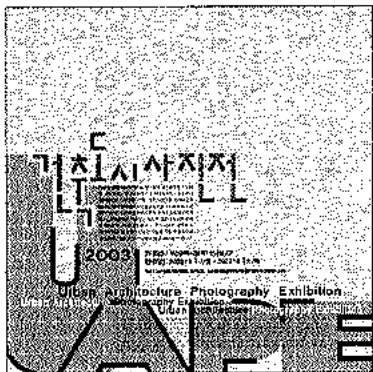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건축과 관련한 미술 공모전인 「조인트 아트전」과 「생활 속의 건축 강연회」를 개최해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안목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산지역 완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다운 건축작품전」과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디자인공모전」,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부산하우징페어」, 「건축환경전」도 개최된다.

문의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051-463-5525

건축도시사진전

9월 27일까지 참가접수



부산의 문화개혁과 타 예술 분야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부산예술제 2003' 축제의 일환으로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는 '건축도시사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 사진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과 삶이 어우러진 도시 속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내어 도시의 또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다.

- 참가접수 및 제출기한 | 2003년 8월 18일 - 9월 27일(오후 5시까지)
-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작품규격 | 11"×14" (칼라 또는 흑백) / 제출시 샘플(5"×7") 동봉
- 접수비 | 10,000원 (1인 3작 이내)
- 시상 | 대상 1점 : 50만원
- 시상 | 최우수 2점 : 30만원
- 시상 | 우수 3점 : 20만원
- 시상 | 특선 5점
- 시상 | 장려 10점
- 시상 | 입선 다수
- 심사발표일 | 2003년 10월 2일
- 응모방법 | 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www.kiabb.org>)에서 다운 받아서 접수시 제출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9월 27일 소인분까지)

- 전시장소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2F
- 전 시 기 간 | 2003.10.13~2003.10.16
- 접수 및 문의처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 부산 동래구 안락동 448-6 4층
- TEL : 0502-555-4455 /
- FAX : 051-521-0467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지난 7월 4, 5일



우리협회 여성건축사위원회(위원장 김화자)는 70여명의 전국 여성건축사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4, 5일 이틀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인동 병산서원, 예천 점토블럭공장 등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2003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대구 힐 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건축물 견학과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장석하 교수의 '전통건축의 이해'란 내용의 특강 등을 통해 많은 여성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동료애를 나누고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제6회 울산시 건축대전

10월 26일까지 작품접수

한국건축가협회울산시지회에서 주최하는 제6회 울산시 건축대전의 원서접수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전은 사니어부와 주니어부, 실내건축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울산시 선사박물관', '유치원 계획안', '혼돈과 질서'이다. 10월 26일까지 작품접수를 마감하여 심사결과는 10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전시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울산시지회

052-266-9005,
www.ulsankia.co.kr

2003 안양시 건축문화상

8월 31일까지 작품접수

안양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물의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와 지역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건축미래를 이끌 후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2003 안양시건축문화상을 개최한다. 공모는 2003년 8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승인부문과 미발표 창작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문의 : 안양시 031-389-2040,

www.anyang.go.kr

2003 JAD 실내환경디자인 공모전

10월 22일까지 신청접수

중앙디자인이 주최하는 2003 JAD 실내환경디자인공모전이 '통합과 소통 (Blur the boundaries) - 경계를 넘어'란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로 9회 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10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1차 작품접수는 10월 22일까지, 2차 작품접수는 11월 24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앙디자인 02-311-6449,
www.jad.co.kr

어린이 건축전시회

9월 30일까지 울트라건축박물관에서

2003년 어린이 건축전시회가 울트라 건축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작지만 큰 일꾼"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옛 건축연장을 소개하는 전시로 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하나의 기능과 원리를 쉬운 설명으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우리문화의 이웃문화를 함께 보여주어 각국 문화의 우열이 아닌 공통점, 차이점, 특징 등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다.

- 일시 : 2003년 7월 15~9월 30일
- 장소 : 울트라 건축박물관
- 문의 : 02)393-0833
- 홈페이지 :

www.ultramuseum.com

안그라픽스, 김봉렬 · 김진애 강연회 개최

건축 현장에서의 느낌표!

고건축 분야의 이론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인사동 길의 설계자인 김진애(서울포럼 대표)씨가 건축 현장에서의 느낌표!-김봉렬의 사찰건축과 김진애의 동네도시'라는 주제로 합동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김봉렬 저)과 '우리도시 예찬'(김진애 저)을 출간한 안그라픽스가 독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저자들의 독특한 건축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시 : 8. 30, 14:00
- 장소 : 인사동 대성그룹 3층 강당
- 문의 : 02-763-2320, lhs@ag.co.kr

2003년도 KIBEX-국제건축 박람회, 전체 전시관 공동관으로 구성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03년 키벡스(KIBEX, www.kibex.com)-국제건축 박람회의 전시계획이 확정되었다. 2003년도 키벡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특정 분야에만 한정했던 공동관 개념을 전체 전시장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점이다. 건축의 모든 분야를 공정별로 사전 기획 및 디자인하여 최적의 업체들을 선별하고 조율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공동관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전시공간을 위하여 키벡스 사

무국에서는 종건사나 건축사사무소, 시행사 등 건축의 각 활동주체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사전기획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전체 전시장을 주제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내 제1전시관은 SMART ZONE이란 명칭하에 주로 상업용 건물 및 건축의 전(前)공정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배치시키고, 실내 제2전시관은 FRESH ZONE이란 이름하에 국내 및 해외의 신제품/신공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실내 제3전시관은 SWEET ZONE으로 배정하여 주로 주거용 건물 및 건축의 마감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야외전시관은 ACTIVE ZONE로 건축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을 수 있는 현장장비 및 시스템비계, 시스템 거푸집 등을 시연하는 공간으로 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키벡스 2003은 한국 건설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KIBEX-국제건축박람회 사무국
Tel : 02-708-4080,
www.kibex.com

정림포럼

- 주 제 : 상업유통시설 건축 디자인
- 강연자 : 문진호(정림건축)
- 일 정 :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정림사옥 1층 정림갤러리
- 문 의 : 정림건축 02-708-8748,
www.junglim.com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200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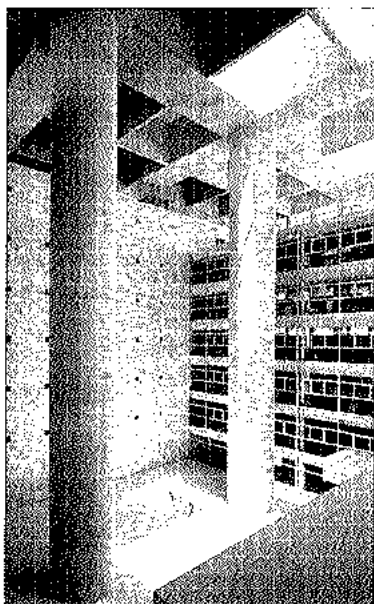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그간 벨기에 건축에 관한 특징에 이어 「스페인 건축」에 대한 특집이 꾸며졌다. 가우디의



건축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건축은 전세계의 주목을 끄는 프로젝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Alberto Campo Baeza) 등의 건축가는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스페인의 현대 건축가이다. 유럽 국가들의 건축 중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페인 건축가들의 최근 작품들을 통해 그 경향을 짚어 보았다.

■특집: 스페인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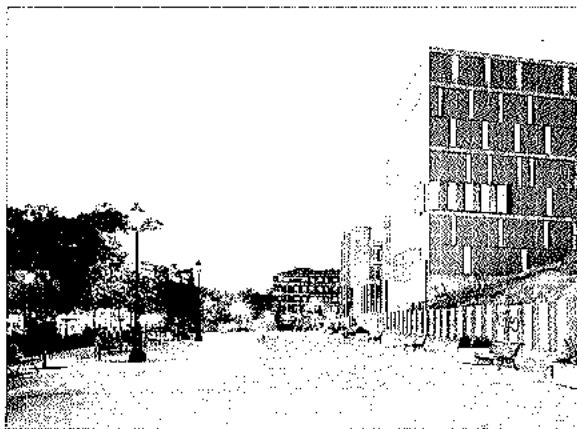
가우디의 작품은 그간 일반인들에게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우디 이후 근대 건축사의



저축은행본사

서술 속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건축가들은 최근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스페인 건축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더니즘의 어휘를 이어가면서도 독특한 재료의 사용과 지역색을 표출하며, 하이테크 건축의 경향과는 정 반대 경향의 건축을 하면서도 날카로움이 있는 스페인의 건축은 분명 그들만의 개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집에는 이러한 그들 건축의 특성을 보여주는 듯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에세이가 호세 발(José Val), 에두아르도 아로요(Eduardo Arroyo), RCR 아란다 피젼 빌랄타 아키텍트(RCR Aranda Pigem Vilalta Architects) 등 3명의 건축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또 가장 잘 알려진 스페인의 현대 건축가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 건축에 관한 에세이가 저명한 건축사학자 케네스 프랭튼의 글로 소개되었다.

소개된 건축가와 그 작품은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의 「저축은행본사」와 「알메리아의 대성당 앞 광장」, 아발로스 & 헤레로스(Abalos & Herreros)의 「우세라의 공공도서관」 및 「그린 하우스」, 마누엘 크라벨 로호(Manuel Clavel Rojo)의 「라 알베르카의 판테온(Pantheon in La Alberca)」, BAAS/ 조르디 바디아(Jorja Badia) & 호세 발의 「레온 시립 광장」, 에두아르도 아로요의 「바리칼도의 시마 플라자」 RCR 아란다 피젼 빌랄타 아키텍츠의 「투솔-바실 육상경기장」



우세라의 공공도서관



레온 시릴 書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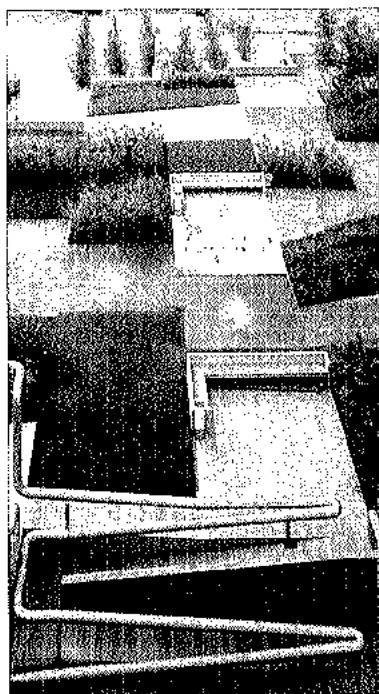
과 파빌리언'의 총 12명의 14작품이다
▶에세이: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 건축 작품의 요소 읽기」 - 케네스 프램튼 (Kenneth Frampton)

캄포 바에자의 현재 작품은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기억에 각인된 다양한 연상작용을 통해 읽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해내기 어렵다. 더욱이 그의 건축적 개성에 있어서는 안도타다오의 친밀성을 떠올리게 하는 주택에서부터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작품을 상기시키는 도서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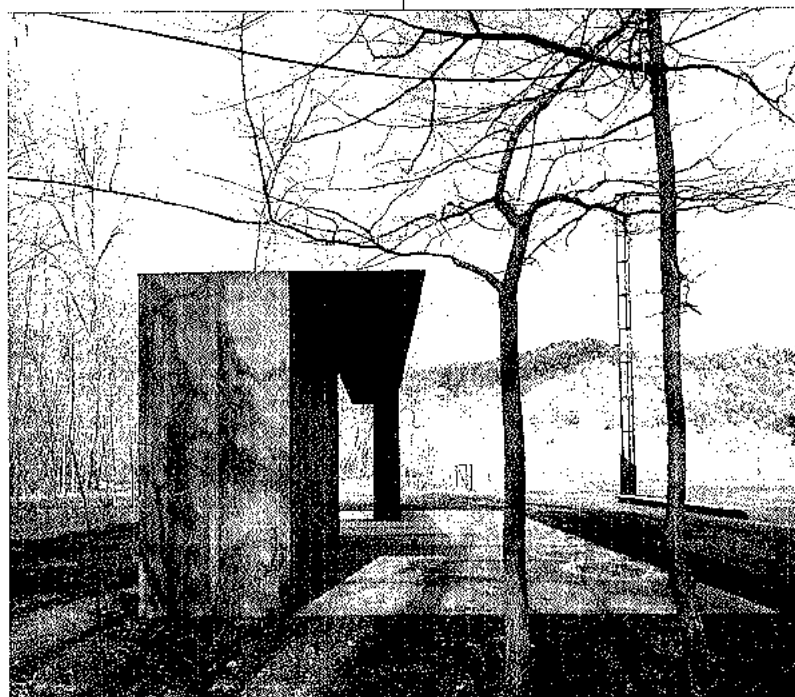
이르는 폭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상은 캄포 바에자가 그 작품을 발표하는 즈음에 잠시 비춰주는 비교적 난해한 수법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어떤 작품에 있어서 특유의 형태나 기능에 대한 단편적인 징후라기 보다는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간소화된 표상의 수법은 안도 타다오의 초기의 주택에서도 볼 수 있는 책략적인 직각의 투영을 떠올리게

한다. 안도의 작품에 있어서는 평면, 단면 심지어 기능적인 요소들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 정보는 상당히 불충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볼륨 혹은 빛의 움직임이나 상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여기저기서 그 단서를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캄포 바에자 건축의 계보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그 레퍼런스는 미스 반데로에부터 알레한드로 데 라 소타에 이르는, 혹은 루이스 바라칸에서 조르주 그라시에 이르는 것으로, 프로젝트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캄포 바에자의 작품에 있어서는 주요한 요소는 몇 개의 대화적인 조합을 형성한다. 그 조합은 벽과 프리즘, 산책로와 매트릭스, 입방체와 중정, 스카이라이트와 볼륨, 텍토닉(구축성)과 스테레오토크(조적기법)과 같은 것으로, 이는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서 언제나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교환 가능한 요소의 연속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의 초기 스페인 국내에서의 작품에서는 서로 대립관계를 이룬 입방체와 중정이 어감없이 나타났다. 이 조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1991년 마드리드



바리칼도의 시빌 폴리자



투쉴-바실 육산경기장과 파빌리언

의 발데모로(Valdemoro)에 세워진 가르시아 마르코스(García-Marcos)주택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3층 높이를 갖는 입방체가 주요한 접근도로 위에 사실상 1층 분의 높이만큼 솟아있다. 입방체는 포디움(기단)의 레벨에서 1개 층 분의 높이를 갖는 둘러쳐진 벽에 의해 모든 면이 구획되었다. 이 주택에서 상호간 얹힌 매트릭스는 2개 층 분의 높이를 갖는 거실공간을 가로지르는 중앙의 축과 마당안의 거실 테라스 한 칸에 미련된 풀(pool)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공간의 비대칭적 굴곡사이의 섬세한 유희에 의해 일어난다. 루프 테라스를 내부로 끌어들이고, 거실의 전 폭에 걸쳐 만들어진 천정면의 빛의 슬롯이 중2층을 그 아래의 살롱과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화적인 주제 속에서도 캄포 비에자가 가장 좋아하는 패러다임은 통상 조적기법에 의한 기초공사 혹은 포디움(기포)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대지의 자연적인 하강, 혹은 상부에 위치하는 건물의 주요한 볼륨을 기대하게 하는 보조적인 지하실로서 건설되면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단차를 만들어 내는 포디움은 1990년대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3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그 존재가 분명해진다. 이 3개의 프로젝트라는 것은 마드리드 교외에 세운 문화센터(1992년), 코펜하겐콘서트홀(1993년), 그리고 아리칸테 대학의 중앙도서관(1995년)이

다. 톨라이트가 콘서트홀에 적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조적술에 의해 단차를 만들어낸 포디움 위에 올라탄 톨라이트를 지닌 구조적 볼륨의 유희는 이들 세 개의 프로젝트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콤비네이션인 것이다.

이제까지 캄포 비에자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2001년에 완성된 그라나다의 저축은행본사이다. 이 작품은 9년 정도 전에 이루어진 설계경기 당선안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작품은 역설적인 「기적의 상자」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4면 모두가 그 전체에 걸쳐 창이 만들어져 있지만 외부로부터는 관입불능한 존재라는 불가사의한 감각을 갖추고 있다. 접근 불가능성이라는 이 감각은 이 건물이 4면 모두가 둘러싸여진, 다시 말해 벽으로 둘러싸여진 중정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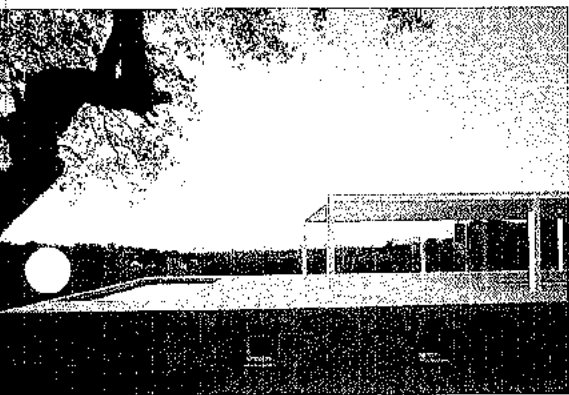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캄포 비에자는 중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세계를 배제하는 것에 의존하였던 그의 편향된 초기의 집착, 혹은 수평선을 보여주기 위한 시선의 장(場)으로서 건물을 계획하는 마찬가지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하여 거대한 랜드스케이프 속에서 하나의 오브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순수하게 스스로의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를 지닌 그라나다의 저축은행본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해에 세빌리아 아 누베 근교에 완성한 데 브라스 주택의 작은 스케일과도 일치하는 것이 된다. 이 주택은 콘크리트의 포디움 위에 8개의 컬럼을 지닌 작은 신전(tempieta)으로서, 미스 반 데 로에의 판스워즈 주택의 래디컬한 재창조이자 마드리드를 포함한 인근 산들의 랜드스케이프를 조망하는 형이상학적 망루라 할 수 있다.

▶아발로스 & 헤레로스(Abalos & Herreros)의 우세라(Usara) 공공도서관 우세라의 도서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메인 홀이나 거대한 수장고(收藏庫)와 같이 한눈에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 대신 점점 늘어나는 외부와의 접점에 대한 수요, 다양한 서비스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이 요구되었다.

도서관의 부지에 인접하는 시청사의 건물에서는 마드리드 서역을 향해 가히 특권이라 할 정도로 훌륭한 조망을 얻어낼 수 있으며, 또한 부지에는 고저차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해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시청에서 바라보는 시계(視界)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을 계단식으로 만들던가, 혹은 반지하의 건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서관에서의 조망은 포기해야 하며, 공공적인 성질도 획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구역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도서관은 어떻게 이미지화되며, 건축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부지의 상황과 지형적인 성질로부터 얻어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두개의 물음에 대하여 명쾌하고 효과적인 해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설계의 주안점이 되었다.

도서관은 중규모의 독립된 요소들을 동가(同價)로 취급하면서 계획되었다. 그리고 경관적인 요소와 행정적인 요소에 관한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과 수직적인 구성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 계획은 최소한의 코어와 순회경로, 구조의 단순화, 반투명한 바닥을 사용하며 작성되어져 갔다. 이 수직 매스는 단순히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중규모의 타워가 있음으로 해서 도서관은 우세라의 다양한 활동의 중심으로서 이들 활동들을 연결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인접하는 주차장과 연속되어 부지의 지형에 나타난 고저차(高低差)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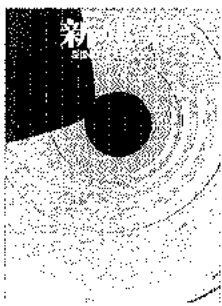


가르시아 마르코스(García-Marcos)주택

신건축

200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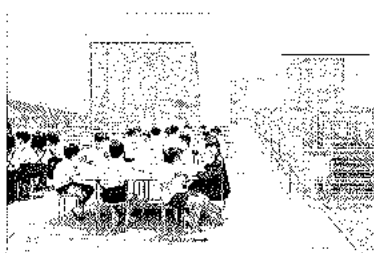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소개된 「롯데 기 힐즈」 재개발 구역 안에 건설된 「태레비 아사히(아사히 방송국)」



(横總合建築事務所)와 일련의 학교 프로젝트 및 재개발 계획인 「리버워크 키타큐우슈우(北九州)」 등이 소개되었다. 건축사가(建築史家)인 동경대학의 후지모리 교수가 설계한 2개의 다실 작품도 흥미로운 기사이다. 인테리어 작품으로는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에이의 「이세이 마야케」 점포가 눈길을 끈다.

▶ 학교건축

일본의 최근 학교건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학교 건축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일렬로 늘어선 동일한 교실의 나열에서 탈피한 지는 오래이고, 학교별로 각 학교별 대지의 상황과 교육 환경 조성의 방향에 따라 건축가들이 각기 다른 해법들을 제시하여 학교별로 독특한 개성을 만들고 있다. 이번 호에도 2개의 초등학교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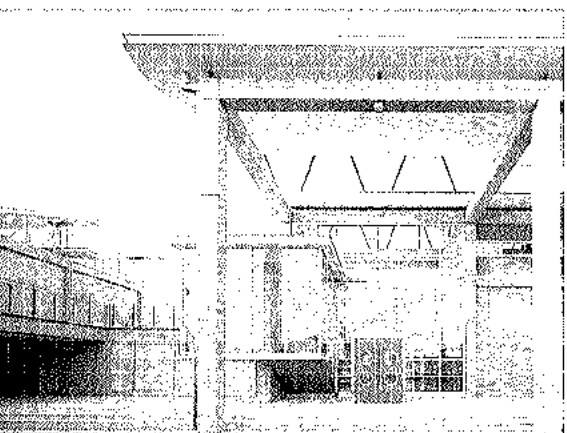
가와지리(川尻) 소학교

개의 고등학교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리처드 로저스의 일본사무소에서 설계한 「南山城村立南山城小學校」는 변형된 톱날천정을 이용해 리처드 로저스의 하이테크 건축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2층의 이 건물은 1층에 식당과 다목적 홀, 도서관 및 특별 교실들을 배치하고 톱날천장으로부터 일광을 받아들이는 2층에는 각 학년의 일반교실들이 배치되었다. 무라카미 토오루(村上徹)건축설계사무소의 「카와지리(川尻)소학교」는 건물의 중앙에 아트리움 공간을 두고 중심적인 홀로 이용한다. 중앙 아트리움의 이용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1층의 넓은 다목적 공간과 2층의 단위 공간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엮어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옥상에는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데크와 식물 표본의 자연학습장을 마련하였다. 소개된 3개의 학교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하야가와 쿠니히코(早川邦彦)의 「東京都立ロカ(芦花)고등학교」이다. 건물들과 그 사이를 건물과 동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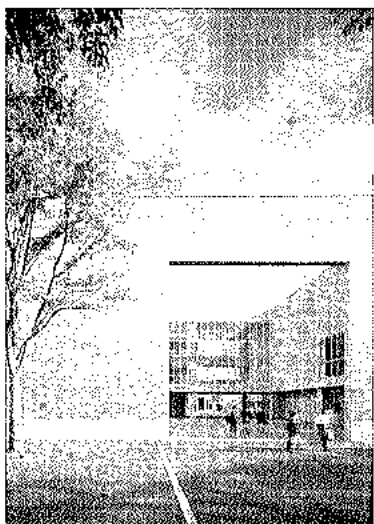
높이로 연결한 벽에 의해 교사(校舎)는 굳건한 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성(城)을 연상케 한다. 이들 건물과 벽에 의해 전정(前庭)과 중정(中庭)공간을 만들어 학생과 교사들만의 독립된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중정과 접한 체육관은 중정을 향한 벽을 유리로 처리하여 중정과 체육관간의 공간적 상호 침투와 확장을 노렸다. 가히 답답하지 않을 만큼의 규모로 마련된 중정은 주위를 둘러싼 학교 시설들과 관련을 맺으며 학교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중복도 형의 교실동 중앙의 로비나 복도 등에 만들어진 학습갤러리(Learning Gallery)는 흐름과 강의실을 두고 운영하는 학습체제에 적합한 학습공간들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 후지모리(藤森)교수의 다실(茶室)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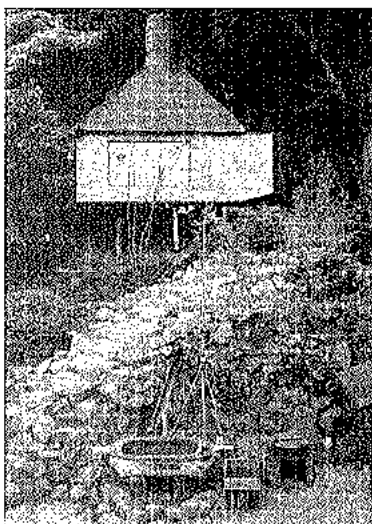
일본의 근대건축을 연구하고 있는 동경대의 후지모리 테라노부(藤森照信)교수가 건축사가(建築史家)로서는 독특하게 2개의 일본 다실 건축을 내 놓았다. '21세기에 초보자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물품은 건물이며, 그것도 다실(茶室)이라는 이름의 소옥(小屋)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그의 말이 두 개의 다실건축을 설계한 건축 역사가(歴史家)의 솔직한 소감일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다실



南山城村立南山城小學校



東京都立ロカ(芦花)고등학교



一夜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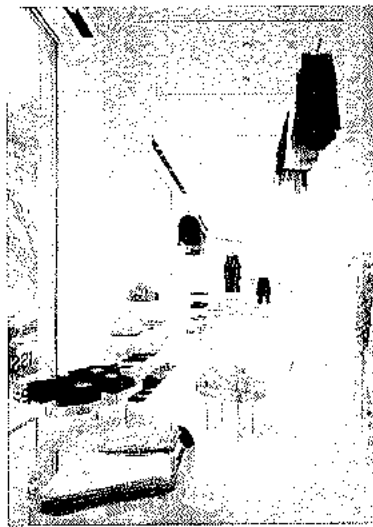
작품인 「一夜亭」은 규모는 작지만 독특한 건설과정과 새로운 다실공간의 면모를 보여준다. 「一夜亭」은 湯河原의 細川 護熙씨의 별장인 不東庵에 도예용 공방을 후지모리교수가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다실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후 돌연 細川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달 안에 다실을 완성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실에 모시고 싶다는 것이다. 결국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시라크의 방문은 취소되었지만 작업은 이렇게 급하게 시작되었다. 어떻게 한 달 안에 다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생각 끝에 떠오른 것이 무대장치였다. 이미 資生堂의 긴자갤러리에서 긴자(銀座)건축전을 했을 때 「카페 기린」의 파사드 실물 모형을 제작해준 俳優座의 대도구 부문(무대장치 부문)팀에 작업을 의뢰해 보기로 하였다. 이 대도구 부문은 독립하여 '주식회사俳優座劇場'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무대장치들은 패널공법을 이용해 신속한 공사와 철거를 행하고 있었다. 현장에 외분 俳優座 극장 팀은 무대공사의 포인트는 운송비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바닥의 구조를 알루미늄 용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료비가 비싸지더라도 운송비가 절감된다는 것이었다. 골조의 작업은 아침 9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시작되었다.



矩庵

하루만에 공사가 끝나 건축주는 이 다실의 이름을 「一夜亭」이라 지었다. 이후 마감재 공사가 후지모리 교수와 건축주 그리고 협력건축가인 오시마 아들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통의 다실과 비교하여 색다른 점은 평면 계획측면에서 본다면 水屋과 같은 부속부분과 토코(床)가 없는 점일 것이다. 水屋이 없으므로 茶道口도 없다. 벽과 천정은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다 제거해 내고 내부를 환한 동굴처럼 만들면서 기능적 측면과 시각적 측면 모두에 걸쳐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었다. 하나는 커다란 창. 주위의 공간을 좁은 다실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화로. 다실의 내부 공간의 구성을 보면 그 중심이 토코(床)로부터 화로로 옮겨져 있다. 토코가 없더라도 차는 보관할 수 있지만 화로가 없으면 물을 끓일 수가 없다.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독특한 공법 외에도 후지모리의 다실은 본래 근대기에 절제된 궁극의 공간이라 일컬어졌던 다실을 더욱 절제되고 본질만을 남긴 공간으로 만들어 낸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두 번째 다실 작품인 「矩庵」은 「一夜亭」의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다른 건축주가 의뢰한 것으로, 전체적인 설계의 컨셉은 「一夜亭」과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의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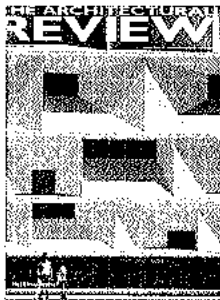
동일하다.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의 인테리어
롯데기 힐즈에 오픈한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1호점의 인테리어이다.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는 미야케 이세이씨의 후임 디자이너인 타카자와 나오키의 이름을 내건 제 1호점이다. 디자인은 건축가 세지마 카즈오(妹島和世)와 니시자와 류에이(西澤立衛)에 의해 이루어졌다. 점포의 크기는 폭3.2m×길이23m×높이5.2m의 세장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도로측에 4.5m×4.7m의 거대한 개구부 3개가 연속되어 외부로부터 내부가 잘 들여다보이는 공간이었다.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이너인 타카자와씨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요청은 계절별로 옷들이 바뀌므로 그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도 변했으면 한다는 것과 옷이 주인공이 되어 옷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공간이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가동식 무대기구를 이용하여 옷을 공중에 띄우는 것이었다. 上下前後로 움직이는 막대에 의해 무대위의 자유로운 연출공간이 생겨나는 것처럼 계절별로 행거의 위치를 바꾸어 다양한 장면과 구성을 점포 안에서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다. 공간 전체는 옷의 색상과 크게 반발하지 않도록 흰 색으로 하였고, 이는 반사성을 높여 옷의 색상이 실내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바닥면은 도로면 보다 조금 높여 도로에서 보았을 때 점포안의 공간이 무대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 공간 안에서는 옷 뿐만 아니라 방문한 손님도 무대위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번역/강상훈)

Architectural Review

2003년 5월

도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고찰과 함께 최근의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극장, 콘서트홀에서부터, 호텔, 레스토랑, 파칭코센터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물들이 자세히 다뤄졌다.

■ 도시 엔터테인먼트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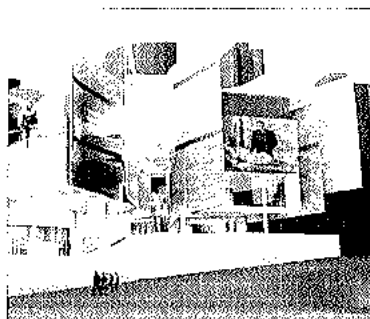
도시가 일종의 가상의 극장이라는 생각은 도시 및 사회역사학자들을 매료시켰다. Martine Christine Boyer는 '극장과 도시공간은 재현의 장소인 동시에 집회의 장소이며, 배우와 관객, 드라마와 무대장치사이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일상의 집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혼돈속에 있는 경험들에 질서를 부여한다. 투시도적인 장치에 의해 건축과 극장은 분명한 의미와 상상력 넘치는 표현을 제공한다'고 한 바 있다. 특히 극장은 중세와 바로크의 도시조직 개념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청과 수렴이라는 규칙 하에 제작된 무대장치는 도시 형태에 영향을 주었으며 반면에 무대 배경화는 원근도법에 근거하여 제작되었다.

18, 19세기에는 극장, 오페라하우스, 콘서트 홀 그리고 박물관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유럽도시를 신고전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기념비 건물로 기능하게 된다.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도시와 엔터테인먼트 시설간의 관계가 더 복잡화되고 있다. 여가생활과 관련된 산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레저는 소파와 스타디움으로 대변되어 가정적 스케일과 도

시적 스케일로 양극화되었다. 상업화와 더불어 스포츠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스펙터클을 선전, 가공하려는 미디어의 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우리는 책이나 CD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술이나 공연의 관람, 장소의 직접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번 호는 이러한 경험을 가능케 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Renzo Piano의 로마 오토리움 콤플렉스는 도시의 거대한 야외 정원으로서 활력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내었으며, Mansilla Tunon의 Leon 콘서트홀은 고전 음악에 대한 현학적 해석과 도시적 이상이 담겨져 있다. 멜버른의 Lab Architects는 엔터테인먼트를 최신 유행의 급진적 건축과 대중과의 능동적 관계 속에서 해석하였다. 다음에 소개된 작품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를 모색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장소가 어떻게 도시를 풍부하게 하는지를 예시한다.

▶ Francis Jones Morehen Thorp의 Moving Image Center, Sydney,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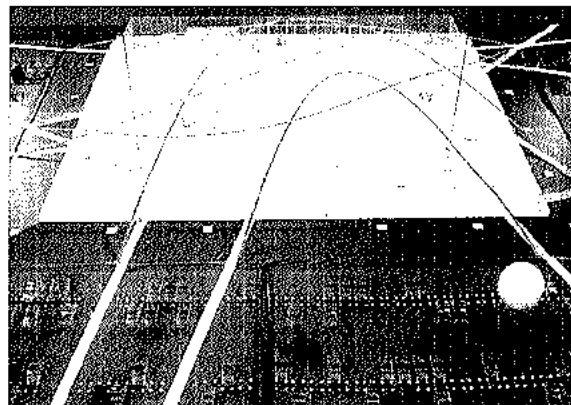
시드니는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도심공원과 고층 건물군의 조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시드니 코브의 Circular Quay는 1788년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했던 곳이면서 수해동안 도시의 관문이 되어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 서쪽 지구



Francis Jones Morehen Thorp의 Moving Image Center, Sydney, Australia

에 위치한, 이민 초기에 지어진 조지안 양식과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들은 호텔, 카페, 레스토랑, 관광상품점 등으로 리노베이션 되어 새로운 도시환경을 이루고 있다. 1952년에 지어진 선박청 건물도 Francis Jones Morehen Thorp의 현상 당선 안으로 과감하게 리노베이션되었다. 샌드스톤으로 된 기존 건물은 유지한 채 새로운 통기시스템을 가진 벽이 부기되었다.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지느러미 같은 벽이 공기의 통로가 되면서 이를 타고 유입된 공기는 대류에 의해 지붕 상부로 빨려 올라가게 된다. 상부에 떠있는 지느러미 벽 하부에는 샌드스톤으로 마감된 보행자 전용 광장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느러미 벽 사이에 있는 두개의 영화관으로 진입하게 된다. 일반적인 영화관이 기능적인 어두운 방인 반면에 Moving Image Center의 극장은 투명한 벽을 갖고 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벽 너머로 석양속의 하버브리지나 오페라 하우스를 볼 수 있다. 영화가 시작되면 스크린이 내려오고 오토리움은 일반적인 극장의 기능을 하게 된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이미지들은 스크린을 통과하여 광장에까지 투사됨으로써 Moving Image Center의 기능을 광고함과 동시에 도시 분위기를 생기기 있게 고조시킨다.

▶ Itsuko Hasegawa Atelier의 Pachinko Centre, Japan



Itsuko Hasegawa Atelier의 Pachinko Centre, Japan

Itsuko Hasegawa는 서커스라는 개념으로 빠칭코센터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은 커다란 텐트 안에 온갖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 있는 것이다. 빠칭코가 물론 주된 시설이 되고 슬롯머신, 당구장, 뷰티살롱 등이 위치한다. 보다 활력 있는 프로그램인 수영장, 복싱링, 헬스클럽 등도 한 지붕아래 오픈된 평면에 계획되었다. 하얀 막구조의 텐트는 지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초로 하여 완만하게 솟아오른다.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는 보행자 다리는 야외 주차장으로부터 텐트까지 방문객을 인도하며, 다리위에서 방문객은 그 아래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조망하고 선택하게 된다.

그 밖에 ▶ Mansilla+Tunon의 콘서트 홀, Leon, Spain ▶ Lab+Bates Smart의 도심 재개발, Melbourne, Australia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콘서트 홀, Rome, Italy ▶ Marsh:Grochowski의 D.H. Lawrence Pavilion, University of Nottingham, England ▶ Eva Jiricna Architects의 호텔, Prague, Czech Republic ▶ Camenzind Grafensteiner의 Lunch Complex, Zurich, Switzerland ▶ De Matos Storey Ryan의 스파, Cowley, England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Architectural Record

2003년 5월

이 번 호 는 AIA 2003 Honor Awards의 수상작들을 소개하였다. 건축, 인테리어, 도시설계 등 각



부분에 뛰어난 작품을 선정 발표할 뿐 아니라 우수한 작품을 발표해온 건축설계 회사, 준공된 지 25년 된 건물 역시 선정 대상이 되었다. 근작으로는 최근 완공된 Steven Holl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소개하였으며, 최근 관광시설의 기능이 강화된 포도주 양조장을 주제로 건물 유형 연구 기사가 켜어졌다.

■ AIA 2003 Honor 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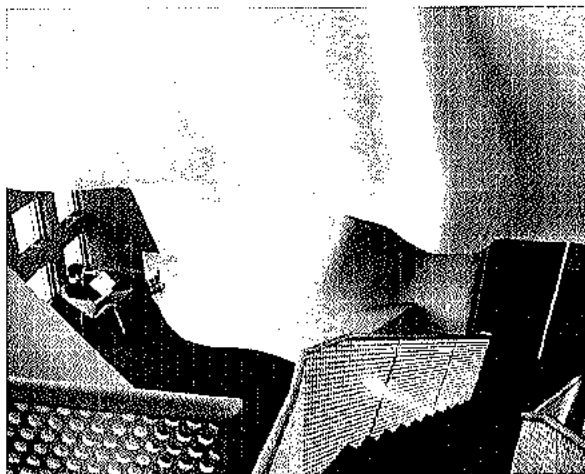
건축, 인테리어, 도시설계, 건축설계 회사 부문, 25년 상 부문으로 나누어져 각각 수상자가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는 세 명의 전문 비평가, Mark C. Taylor, Cynthia Davidson, Greg Lynn의 수상작에 대한 비평을 실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Taylor는 철학과 종교에 정통한 학자로서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네트워크 문화와 건축과의 관계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Davidson은 이미지에 집중하여 건축비평을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Lynn은 건축가로서 그가 통찰하고 있는 건축 조류 전반과 관련지어 논 의한다. 이러한 각각의 시각을 통해서 세 명의 비평가들은 불확정성의 시간 속에서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주제아래 수상작들을 들여다본다. 오늘날의 건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노스탤지어의 매력

으로 과거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올해 수상한 건축가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상상력 있게 전달한다.

■ 근작소개

▶ Steven Holl의 Simmons Hall, MIT, Cambridge, Massachusetts
MIT Simmons Hall에서 사용된 무광 알루미늄 마감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은 실제로 외피이면서 구조체의 역할을 한다. Perfoon이라는 고강도의 프리캐스트 시스템을 개발한 엔지니어 Guy Nordensen에 의해 고안된 이 구조시스템은 규칙적인 패턴의 창을 가진 외벽 자체가 내력벽의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외골격 시스템은 Helsinki의 Kiasma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Het Oosten의 스펀지 건물과 같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건축형태에 접근해왔던 그의 이력과 궤를 같이 한다.

MIT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는 Holl의 말은 일리가 있다. 최근 Simmons Hall 이외에도 Frank Gehry, Fumihiko Maki 등 여타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캠퍼스 내 건물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은 존중되고 있다. 캠퍼스내 공공공간의 기능을 확장하고 흩어져 있는 장소들을 연계하는 방법이 강조되었다. Holl은 학교 내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캠퍼스 밖의 이웃에도



Steven Holl의 Simmons Hall, MIT, Cambridge, Massachusetts

관심을 가졌다. 캠퍼스의 경계에 위치한 Simmons Hall은 캠퍼스 외부에 대해 배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면과 똑같은 입면으로 대응한다. 그의 초기 스케치에서 그의 건물을 다공성의 침투성 있는 건물로 표현한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이다. 이 건물은 개념적으로 개방적 태도로 도시 콘텍스트에 접근한다. Simmons Hall 곳곳에 여러 개 층을 관통하는 학생 라운지는 스페인의 구멍에서 유추한 것이다. 이러한 조각적인 공간은 각 주호들을 연결하고 학생간의 교류를 증진시킨다. 또한 건물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수직적인 공기의 흐름을 증진시키고 건물 내부 깊숙이 햇빛과 맑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 Stanlet Saitowitz의 Oxbow School, California

학교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개념에 더 가까운 이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화가인 Ann Hatch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각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은 16주간 이곳에 모여 배우고 생활하게 된다. 스튜디오 건물은 강의 전망을 위해 북쪽을 향해 지어졌으며, 북측 벽에는 차고에 쓰이는, 벽 전면이 열리는 문이 설치되었다. Hatch는 스튜디오가 빛과 맑은 공기가 가득 찬 장소이길 원했다. 초기부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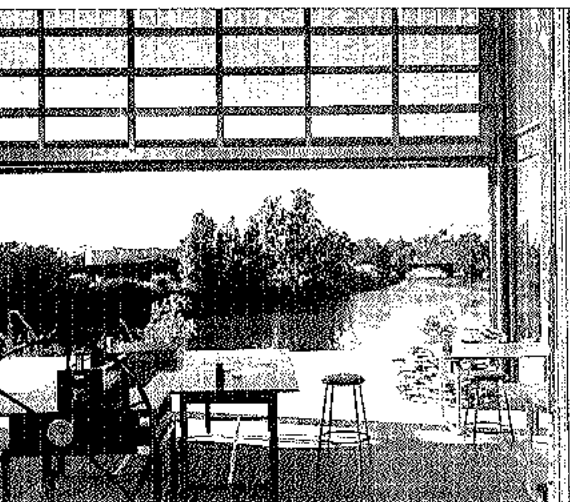
물을 외부화하고자 하는 그의 비전은 건축가에게 전달되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동성을 갖추면서 외부화된 스튜디오는 팀작업이나 타 전공간 협력 교육시 좋은 환경이 되었다.

그 밖에 ▶ NBBJ-HUS-PKA 협력설계의 Telenor 본사, Oslo, Norway ▶ Fumihiko Maki의 TRIAD, Harmonic Drive System 사내 갤러리, Nagano, Japan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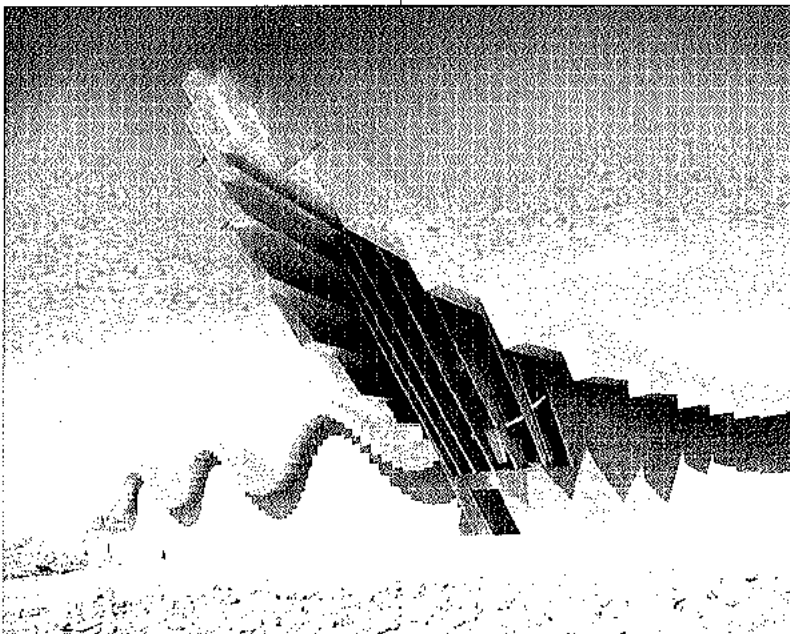
■ 건물유형 연구-포도주 양조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 양조장은 단순히 공장이나 창고 수준의 건물로서만 인식되어, 건축매체에서 그리 잘 다루지지 않았었다. 오늘날 포도주 양조장이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됨에 따라 건물들도 선전효과를 위해서 각각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포도주 양조장은 일반 방문객 뿐 아니라 숙박하면서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따라 관광상품으로서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기도 한다. 건축가들은 관광시설과 공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Rafael Moneo는

Bodegas Julian Chivite 지역의 토양과 어울리는 모던한 건물을 지었고 이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Santiago Calatrava의 물결치는 지붕이 Bodegas Ysio 언덕위에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후에는 이 두 건물과 함께 Frank Gehry의 Marques de Riscal 양조장을 위한 호텔이 이 지역의 경관을 구성할 것이다. 칠레의 Jose Cruz는 포도주 제조공정을 감각적으로 형태와 연관시켜 나갔으며,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는 전통적인 포도주 양조 마을의 경관을 재현하였다. (번역/최원준)



Stanlet Saitowitz의 Oxbow School, California



Santiago Calatrava의 Bodegas Ysio 포도주 양조장, 스페인

장지지구 아파트 / 82

잔주산업대 기숙사 / 92

종로문화체육센터 / 96

154kV화양변전소 주거용 복합시설 / 100

장지지구 아파트

Jangji Apartment

▶ 최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건원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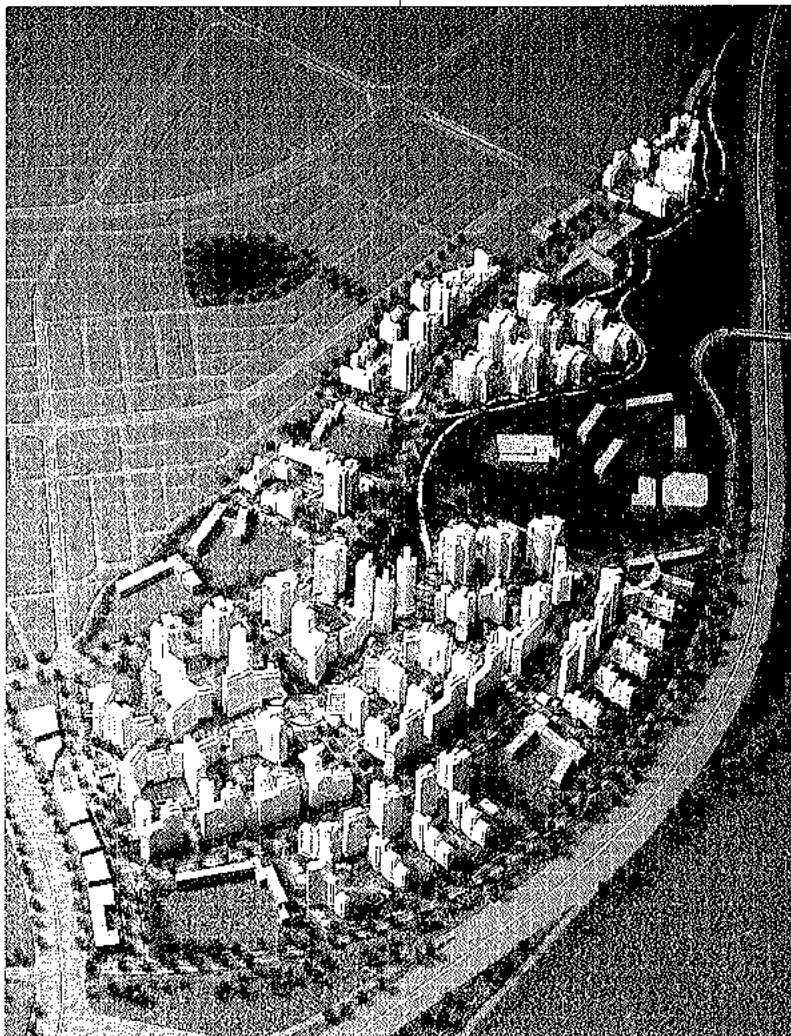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송파구 장지지구 마스터플랜을 담당할 건축사 사무소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지난 6월 30일 작품을 접수한 결과 14개 작품이 접수되어 최우수로 당선된 업체는 각 지구의 마스터 플랜의 계획설계를 맡게되며, 당선작을 포함하여 5위까지 입선한 업체는 지구 내 블록

플랜의 중간 및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17만9천 평에 11개 단지, 5480세대가 들어선다. 2004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0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우수작 외에 입선작은 (주)희림종합건축과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의 공동안, (주)원양건축의 안, (주)강남종합건축과 도시건축의 공동안, (주)토문엔지니어링의 안이다. 심사는 김혜정(한양대), 함정도(서울대), 조장식(동국대), 이경희(연세대), 최찬환(서울시립대), 진철훈(서울시), 이명훈(후쿠바대), 여흥구(한양대), 류근명(도시개발공사), 이의은(서울대), 김형진(연세대), 양병이(서울대), 김덕삼(경희대), 최정권(서울대), 이승복(연세대) 씨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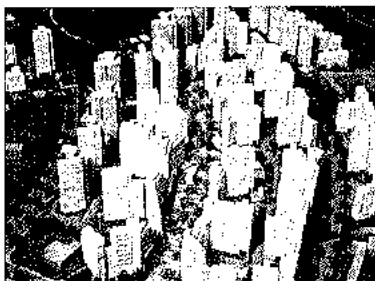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227,122.00㎡
건축면적	52,410.00㎡
연면적	642,982.35㎡
건폐율	23.08%
용적률	209.29%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6,271대
설계팀	윤용근, 고성호, 아영준, 최정일, 하산진, 김동철, 최홍석, 김형근, 김법건, 안대현, 박혜리, 송영무, 이호섭, 김민성, 나기운, 이은정, 정명훈

계획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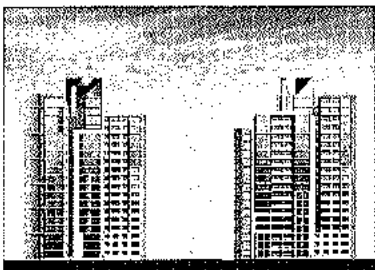
- 환경친화
 - 보행전용가로와 녹지가 연결된 길고 싶은 거리의 조성
 - 고속도로변 주동 축벽녹화, 옥상녹화, 장지천 활성화로 생태환경의 연결(새의 이동통로 고려)
 - 친수공간과 보행공간의 네트워크화로 가로 활성화
 - 지구내 각 단지별 우수저수조를 계획하고 학교 및 근린공원에 저류지 기능의 친수공간 조성
 - 단지내 자연지반 조성을 최대화하고 침투성 포장계획



- 상습침수지역이므로 장지천변이 저류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
- 인간친화
- 단지별 보행동선의 네트워크화로 주민 교류촉진
- 주민공용시설의 활용성 극대화(생업을 위한 작업공간, 탁아소, 가정의례실, 공부방 등)
- 공공공간(보행전용가로) : 공용공간(단지내 오픈스페이스) : 사적공간(생활공간)의 위계설정
- 공용시설은 개방적 접근구조와 방어적(범죄로부터의) 공간을 갖는 주동계획 적용
- 중심보행광장의 장소성제공
- 기존주택지변에 담장을 없애고 가로공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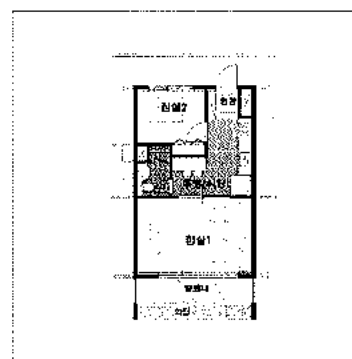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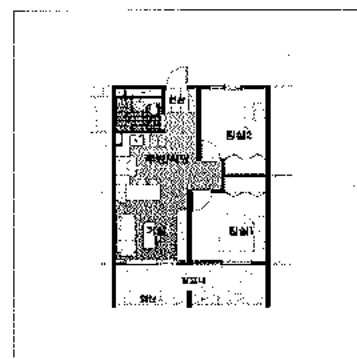
- 원화 계획과 주민교류 프로그램(장터, 벼룩시장)
- 경관친화
- 7가지 경관지구설정으로 각 경관별 특성을 단지계획에 반영
- 획일적 입면 반복에서 탈피하여 경관별로 주요(主調, Dominant)를 갖는 구성과 변화를 계획
- 보행전용가로는 녹지의 연결과 길의 연계, 그리고 생활공간으로 기능하는 장소성을 제공
- 숲속을 가나는 도시경관으로 추억을 만드는 가로로 계획(Forest Promenade)
- 지구진입부의 상징성(Vista)설정과 원경에서의 인지성 고려
- 지구중심부에 지구상징타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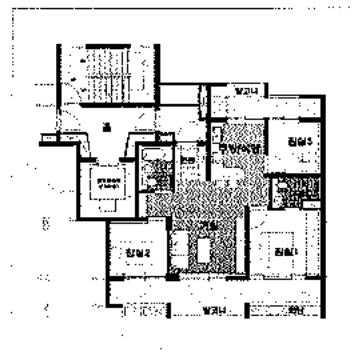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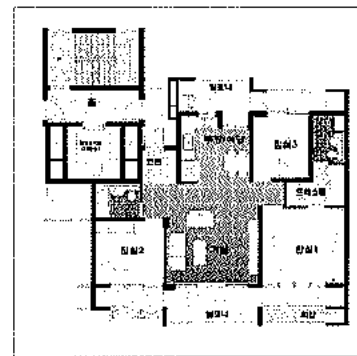
39m² 기본형



49m² A형



59m² B형



84m² B형

단위세대 평면도

▶ **업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 (주)디에이그룹엔지
니어링**

대지면적	227,122.00㎡
건축면적	36,991.58㎡
연면적	648,395.63㎡
건폐율	16.29%
용적률	203.5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용도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규모	지하 2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6,071대(법정 4,699대)

현황

서울의 남동측 16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끝부분으로 경기도와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교통의 요충

지로 도로교통, 지하철 등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잠실권역에 속하며 대상지의 위쪽으로 가락지구에 인접해 있고 성남시와의 경계부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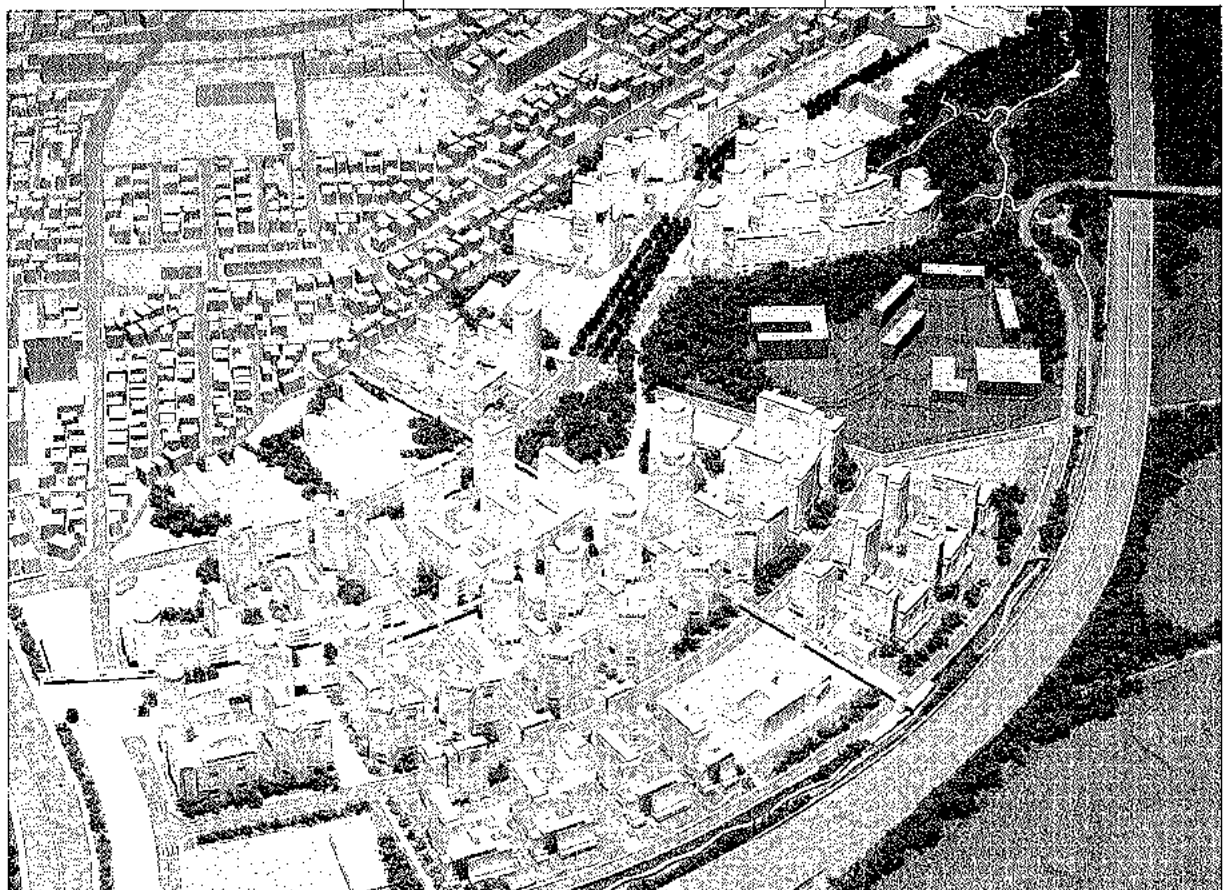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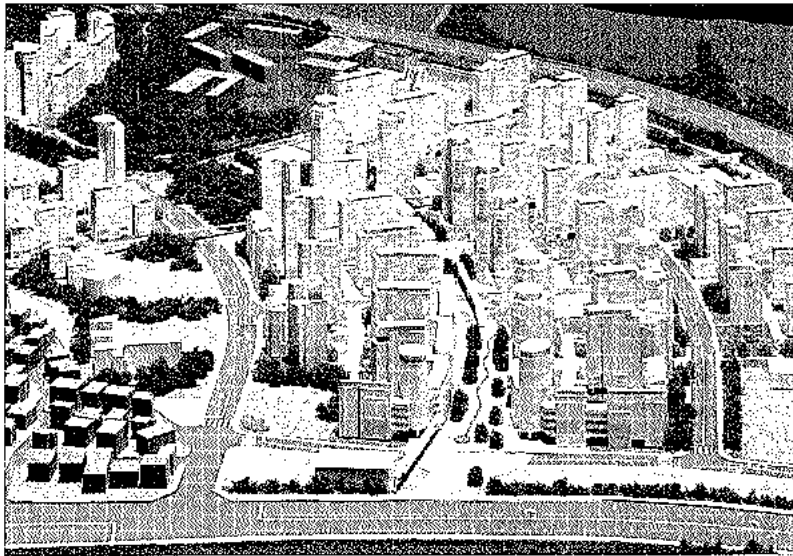
- 자연과 인간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주거지(버들풍경)
- 장기(長策) : 잔버들, 긴 버드나무란 뜻에서 유래, 버드나무는 장수를 의미 - 잔버들(장지) + 도시 + 인간 —> 자연과 하나되는 도시 삶

주요 계획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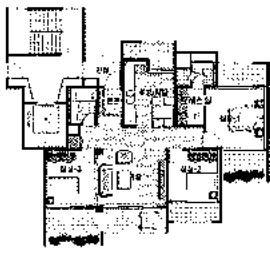
- 인간중심 주거단지 계획 + 환경친화 주거단지 계획 + 경관친화 주거단지 계획
- 생태종합계획도
-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생태종합네트워크
- 생태기반인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 비율 25%)
- 주요 서식생물의 이동통로 및 대체 서식지 개발

- 보존수목에 대한 이식
- 미기후 및 바람통로를 고려한 건축계획
- 자연체험장소 및 프로그램을 보행 네트워크와 연계
- 단위세대 특화계획
- 자연채광과 자연 통풍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내부공간 계획
-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가변적인 평면계획
- 발코니 공간과 전용 주거공간의 적절한 통합계획
-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수납공간과 기구 배치 공간계획
-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용
- 평면계획(탑상형주동)
-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부여
- 넓은 외부공간의 확보
- 외부공간의 연계성의 다양화 : 시각축, 시선개방 확보
- 도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조합
- 가로 및 보행로 보행자 스케일에 대응한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바치도



전용 85㎡



전용 85㎡



전용 50㎡



전용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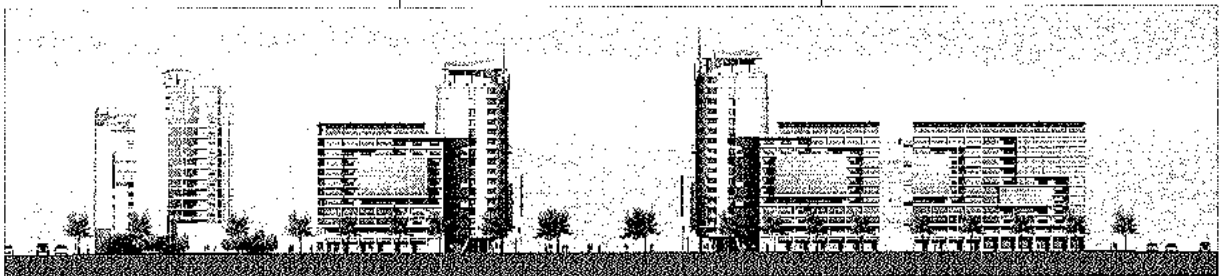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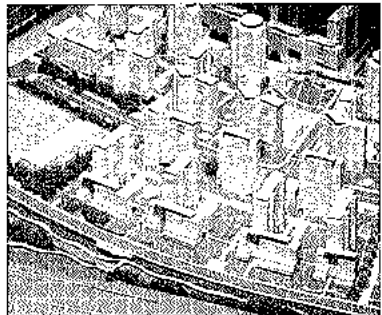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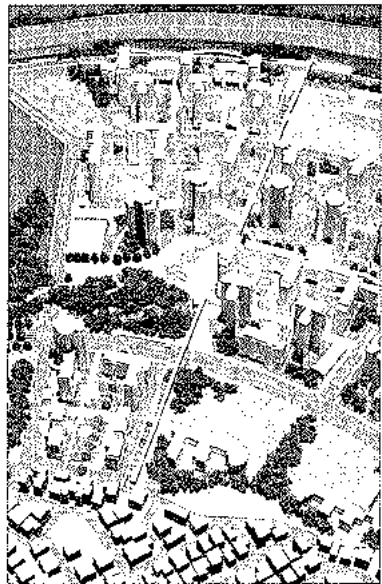


전용 40㎡



전용 40㎡

단위세대 분면도



입면도

▶ 입선작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대지면적	227,122.00㎡
건축면적	62,585.87㎡
연면적	609,062.14㎡
건폐율	27.56%
용적률	210.06%
주차대수	6,137대(법정 : 6,046대)

대지현황분석

- 광역적 위치분석
- 서울 강남의 끝자락, 수십년간 자연녹지로 보존
- 서울(거대도시)과 성남(위성도시)의 경계지역(그린벨트)에 위치
- 그린 벨트의 축선상에 위치하여 도시와 자연이 중첩 되어지는 점이 지대

- 성남과 서울, 하남 및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서울동남부권의 교통의 요충지

· 도시맥락

- 도시(서울과 성남)의 파장 확산과 중첩
- 대모산 - 장지천 - 옥영동산 - 장지근린공원 - 남한산성으로 연결되는 GREEN NETWORK
- 송파구 테마거리와 연계하여 장지천, 탄천변을 중심으로 친환경문화거리로의 개발가능성

· 위치분석

-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 및 송파대로
-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교통축을 구상하여 송파대로 및 장지동길과 연계되는 도로체계 구축
- GREEN AXIS(대모산 - 장지공원 - 남한산성)
- 도시, 인간, 자연이 하나되는 친환경 거리 조성
- 송파대로 버스노선 및 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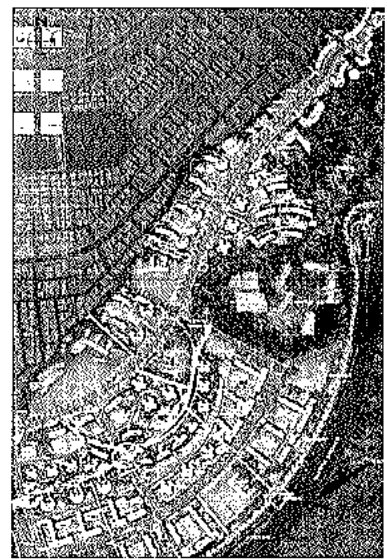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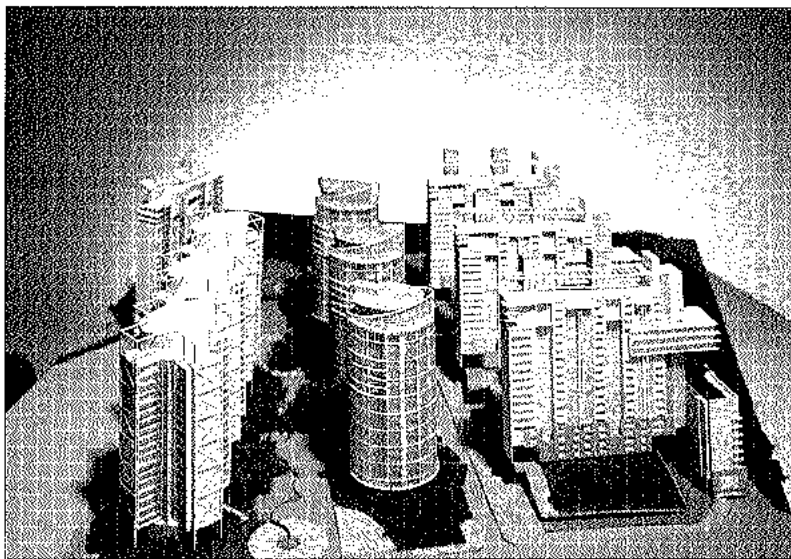
- 송파대로의 버스노선 및 장지역과 연계하여 단지내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체계 구축

- 문정로데오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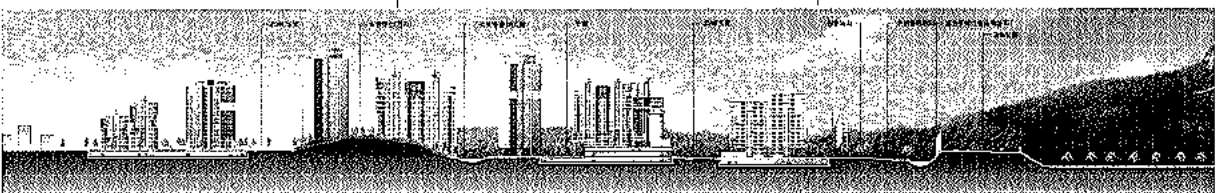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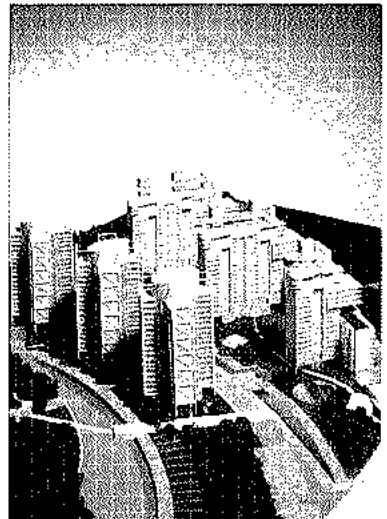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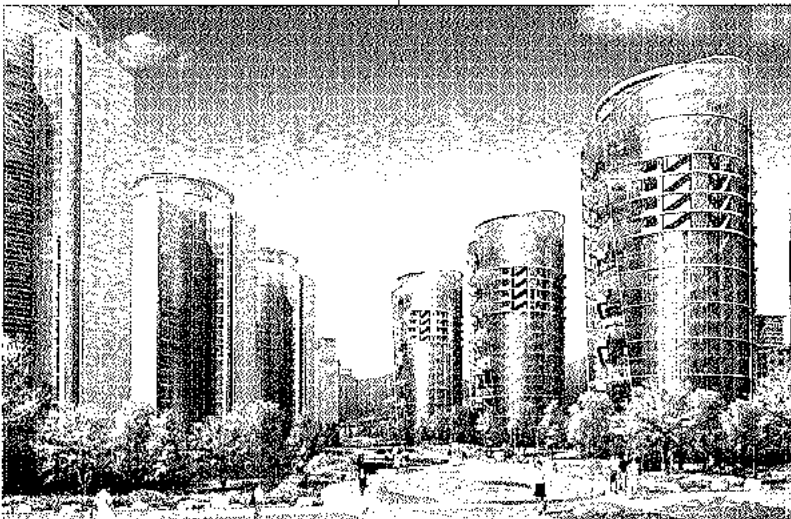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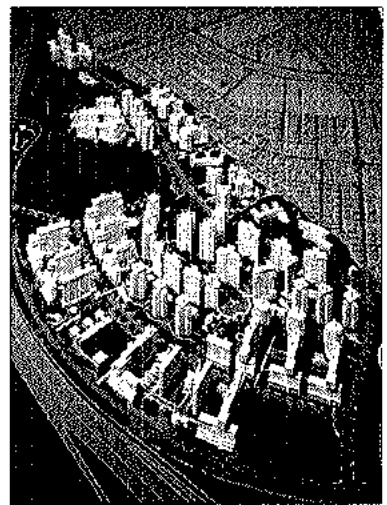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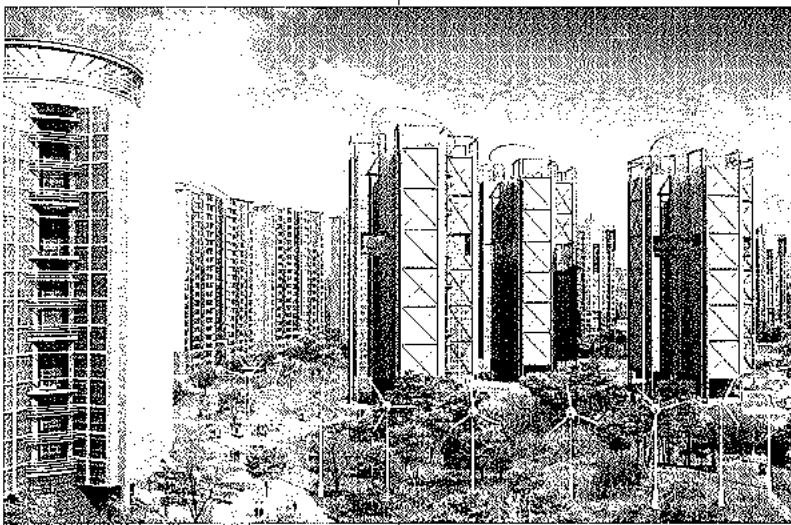
· 대지분석

- 도로, 보행, 소음
-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 소음 차단 버퍼존 구성
- 송파대로 및 장지역과 연계 : 보행동선체계 구축
- 단지내 자연환경 분포
- 탄천, 장지천(생태호수로 활용)
- 물순환체계구성
- 단지내 녹지를 활용한 배치계획
- 도시구조
- 도시화 파장의 연속적 흐름
- 주변 지역녹지와 연속성
- 도시와 자연과 인간의 중첩





바치도



단지활단면도

▶ 입선작 / (주)강남종합건축사
사무소 + 도시건축사사무소

대지면적	227,122㎡
건축면적	38,718.747㎡
연면적	654,82.867㎡
건폐율	17.04%
용적률	211.0%

계획개념

환경친화

- 기존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Green Network 구축
- 「대모산-남한산성(청량산 등)」의 Green Axis과 장치천변의 Green Enclosure의 연계
- 친환경 요소의 적극 도입과 소규모 생태계(Bio Top)와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 포장면적 최소화를 통한 자연 자반보

존과 녹지면적의 최대화

- 보행공간의 생활공간화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계획
- 지속가능한 계획을 통한 에너지전략
- 자연자원(우수, 태양열 등)의 순환 및 활용

경관친화

- 기존주거지역,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와 높이를 고려한 배치
- 기존의 인문환경과 조화되는 미래지향적 주거단지로서의 아이덴티티 부여
- 쾌적하고 매력적인 자연친화경관의 연출

인간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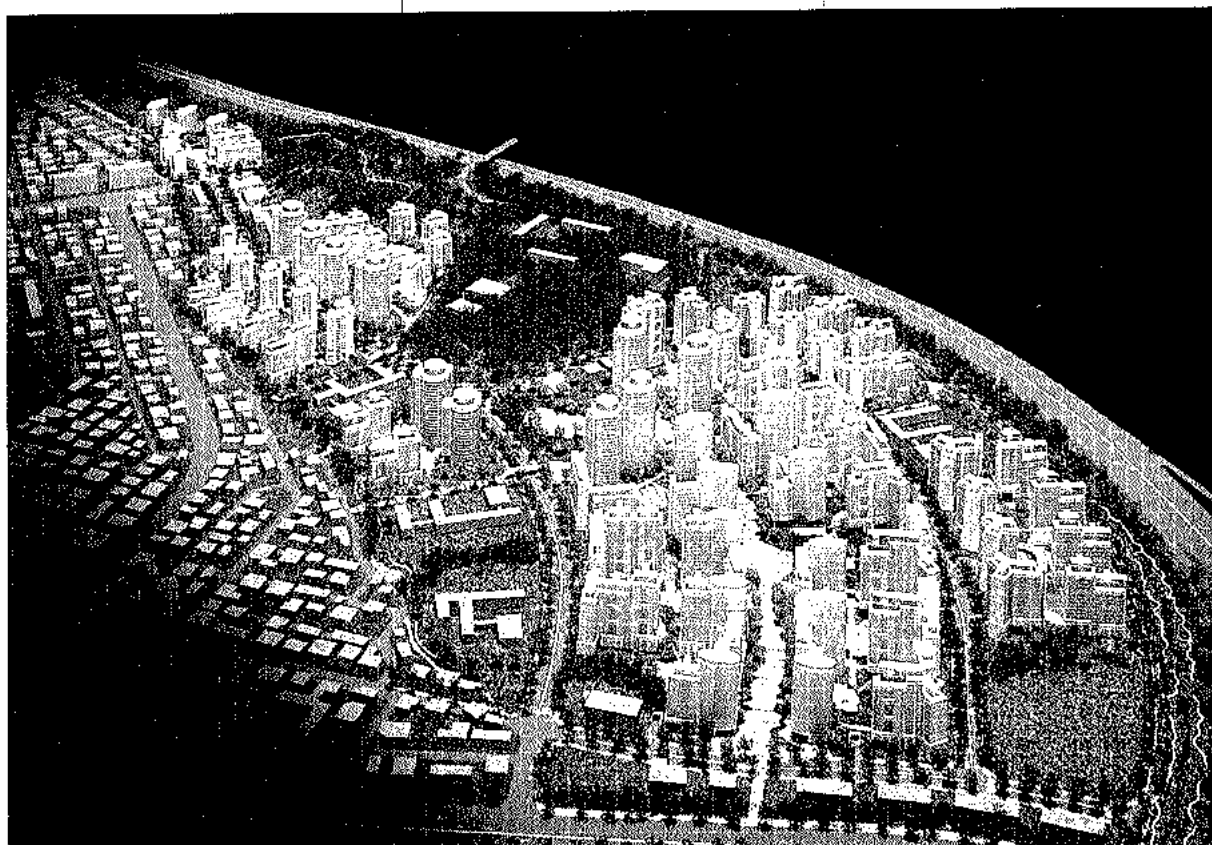
- 다양한 생활양식과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주거계획
- 재워용 가능한 가변적 주택도입으로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
- 공동체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 단지내 텃밭 및 외부공간조성

- 한국적 정서 표현
- 진입의 전개(단지입구)
- 보행공간의 sequence 확보에 있어서 전통마을 배치개념 적극 채용
- 변화있는 역동적인 삶의 공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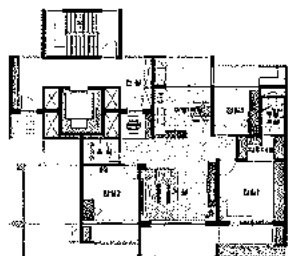
주동배치개념

- 외부공간의 위계적 구성을 통해 단지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구성
- 외부공간은 Cluster를 이루며 보행 Network를 통해 다른 단지와 단지 내 공원, 녹지시설과 연계
- 각각의 단지는 저마다의 특색있는 중심 외부 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보행 Network를 통해 서로 연결됨
- 단지의 중심부인 누리공원과 5, 6, 7단지가 만나는 곳에 커다란 어울림을 위한 누리광장을 두어 보행공간의 핵심이며, Green Network, Blue Network를 이어주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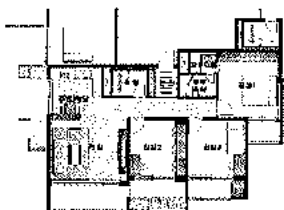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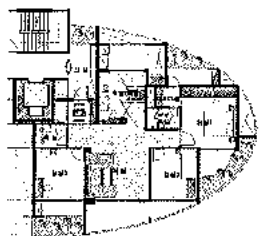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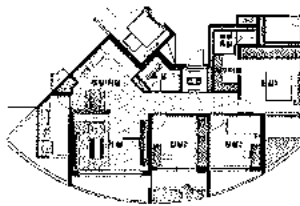
85㎡ A형



95㎡ C형



85㎡ D형



85㎡ G형

단위세대 평면도



D-D' 단면도



입면도

▶ 입선작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대지면적	227,122.00㎡
건축면적	53,894.94㎡
연면적	633,405.62㎡
건폐율	23.73%
용적률	209.01%
주차대수	6,096대

배치계획 개념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를 존중하는 친환경
적 주거단지 계획
기존의 자연적 여건과 특성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교통망과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
체계 계획

녹지와 연계된 친환경적 보행환경 계획
경제적,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배치구상

자연이 자라나는 Housing-Hub

- 자연녹지의 흐름과 보행로가 중첩된 공
간구성
- 자연의 흐름 및 보행로와 연계된 연도형
주동배치

미소가 피어나는 Housing-Hub

- 주변의 녹지를 향유하는 쾌적한 주거공
간 계획
- 이웃간의 교류 증진을 고려한 가로공간
체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의 연계

풍경이 태어나는 Housing-Hub

- 도시 그리드에 순응하는 블록형, 연도형
주동배치
- 입구성 및 경관 흐름을 강조하기 위한
포인트 탑상형 주동배치

외부공간계획

외부공간계획의 모티브 : 장지동의 유래,
대지의 형상(葉), 동선체계의 줄기형상
(脈), 중심마당의 형태(形), 송파산대놀이
12마당의 지역 놀이마당

외부공간계획 내용 : 녹지축의 단지내 유
입, 풍부한 녹지와 자연적 소재의 도입,
외곽 완충부에 거점녹지 조성, 기온 및 습
도 조절을 위한 계류도입, 다양한 색깔 형
태로 연출되는 보행가로 연출

건축 세부 계획

선큰광장 (버들목 마당)

- 지구내 중심보행가로의 장지역사쪽 주
진출입부에 선큰광장 계획
- 보행로와 주동간의 수직, 수평적 연계로
커뮤니티 활성화
- 보행자 동선에 순응하는 Mass 계획
- 다양한 문화 퍼포먼스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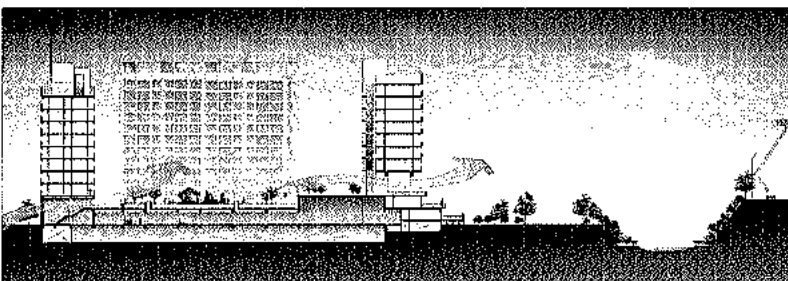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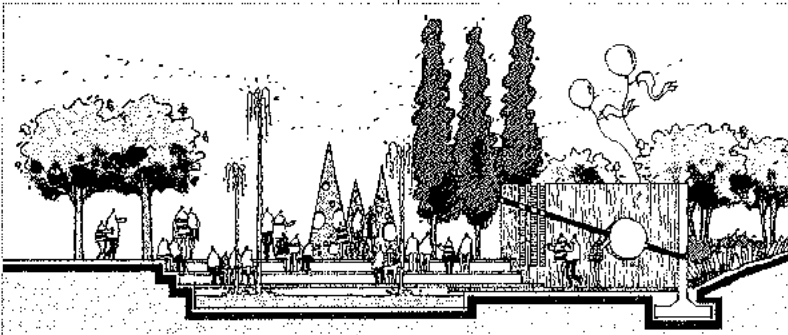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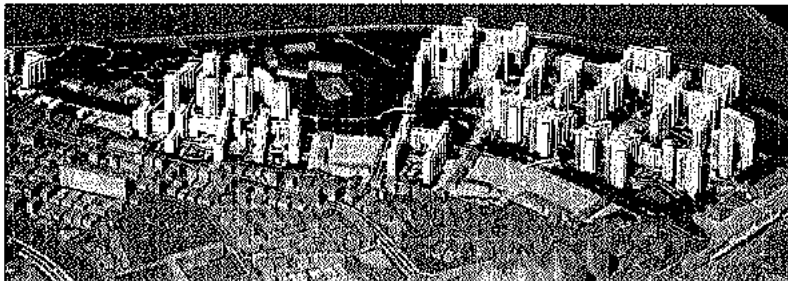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연도형 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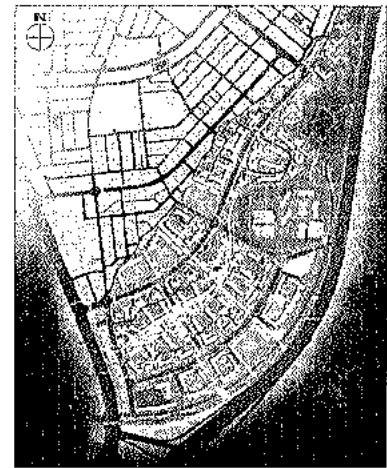


- 보행가로변에 대응하는 연도형 주거시스템 도입으로 도시형 주거대안 제시
- 단지 및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로 연속된 보행공간 계획
- 커뮤니티 시설과 주호동의 복합화로 활기찬 외부공간 구성
- 블록형 + 테라스형 주동
- 저층고밀의 블록형 주거시스템 도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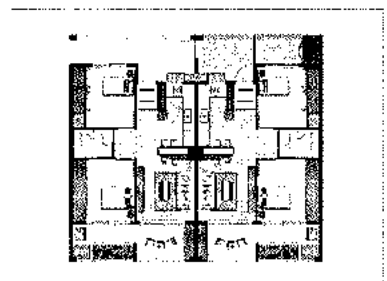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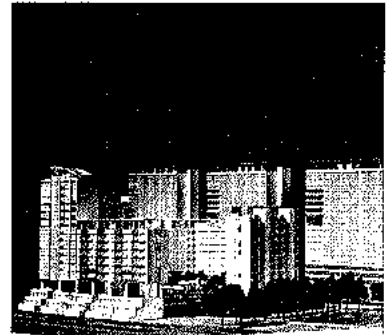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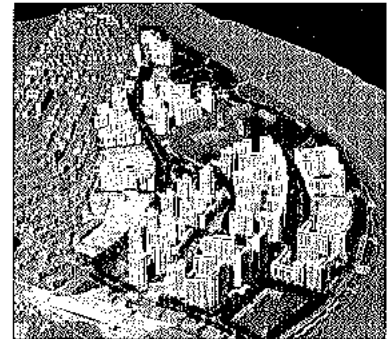
- 로 도시형 주거대안 제시
- 데크층을 통한 보차분리 시스템 구축
- 데크하부 주차시스템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 주동하부와 데크 사이 공간에 부대복리시설 계획
- 장지천과 완충녹지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하부 테라스 주동계획



단면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진주산업대 기숙사

Jinju National University
Dormitory

▶ 당선작/남건축사사무소(남상금)

진주산업대학교는 오래되고 시설이 부족한 기존의 기숙사를 대신할 새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당선작에 남건축사사무소(남상금)의 안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의 안이 선정됐다. 새 기숙사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처럼 평면을 계획하여 후생복지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형성을 갖춘 고층화 계획으로 진주산업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칠암동 130-8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301㎡
건축면적	557.65㎡
연면적	5,183.04㎡
건폐율	42.86%
용적률	298.60%
규모	지하 2층, 지상 10~1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부미감	드라이브트, 화강석, 알루미늄 복합판

지방대학의 학생편의시설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며 또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숙사는 학생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대학측은 기숙사의 높이를 최대한 높여 상징적 부각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인근에 흐르는 남강과 주변 공원에서의 경관이 같이 고려되어야 했다.

이 기숙사는 대학캠퍼스 밖으로 25m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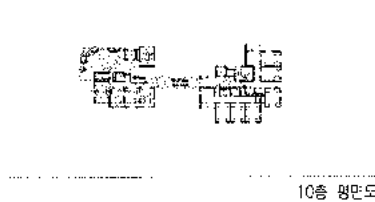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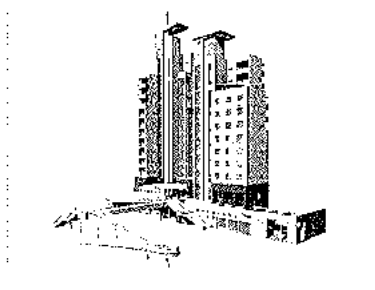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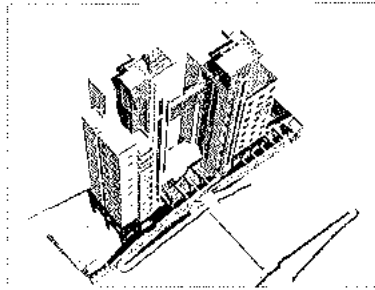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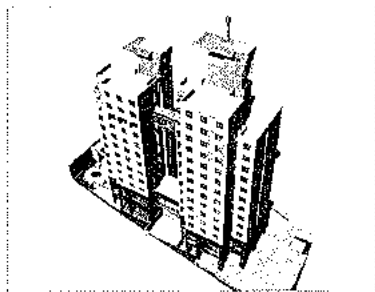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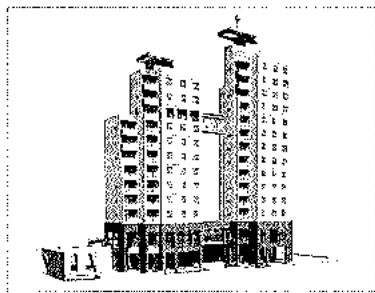
로 건너편에 위치하며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캠퍼스 - 육교 - 기숙사 진입을 연속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접근계획의 핵심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캠퍼스에서의 시각과 육교진입 시 거대한 벽체가 가로막게 되는 상황에서 중앙의 트임을 연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므로 2개의 타워를 연결하는 형식에서 1층의 피로티 2층의 주현관 홀이 위치하며, 10층의 휴게실을 연결하는 브리지는 커뮤니티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한다.

각 유닛은 3실(2인실)이 거실을 공유하는 주거형으로서 2유닛이 한 블록의 타워를 이룬다. 또한 일조와 조망을 극대화하여 캠퍼스와 남강,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다.

공동편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는데 채광, 환기를 위해 Sunken garden이 중심에 위치한다. 학습과 휴식을 돕고 무엇보다 학생 상호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간구성과 동선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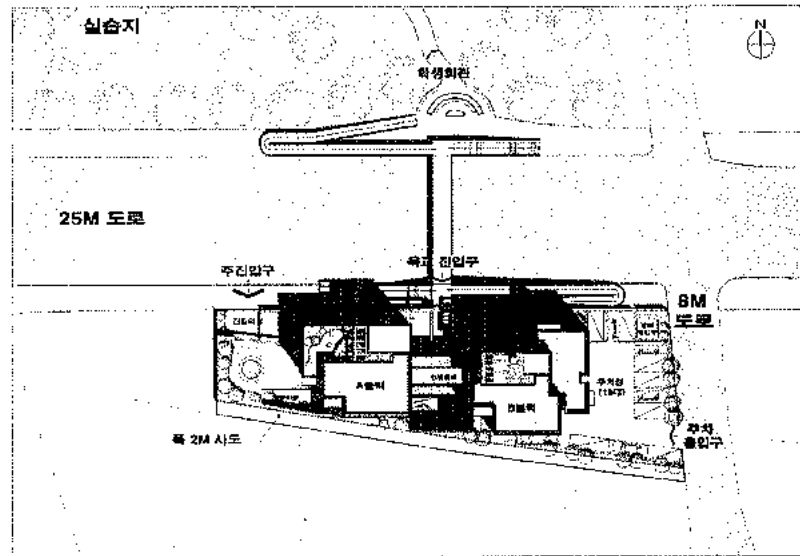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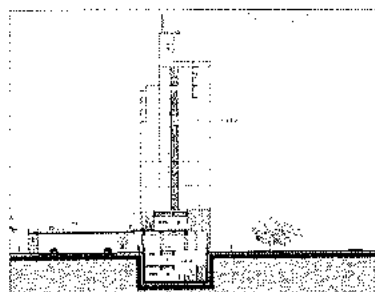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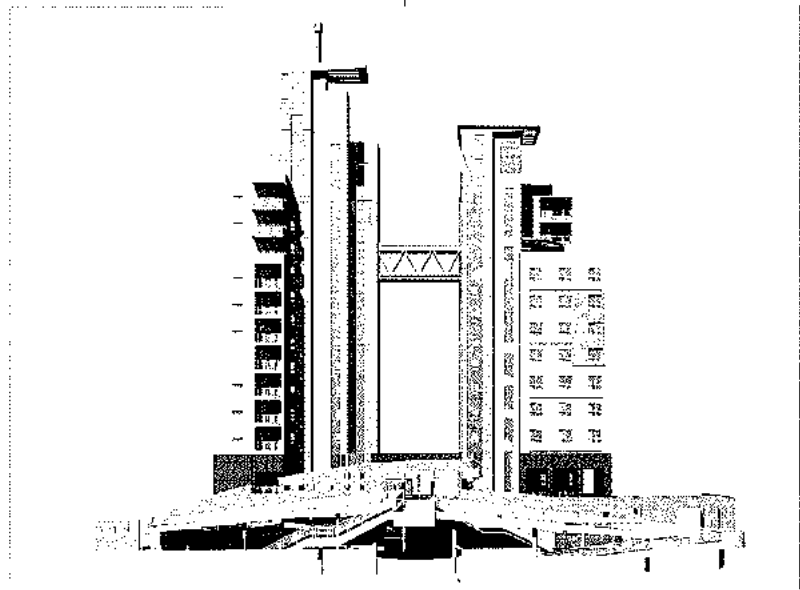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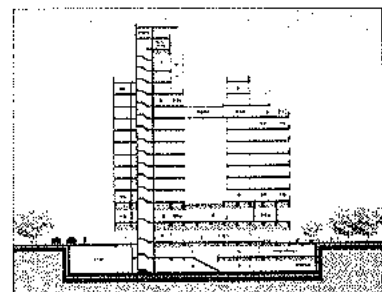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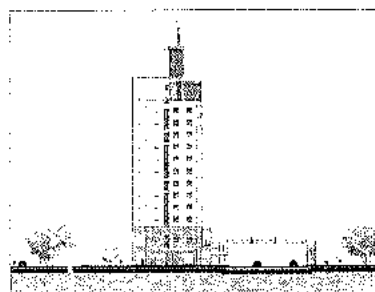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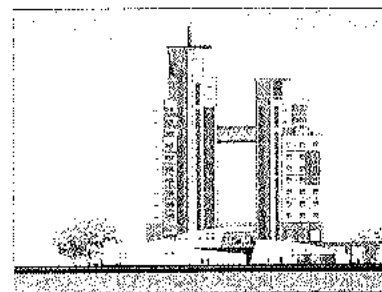
중단면도



횡단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 우수작 / (주)간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칠암동 130-8번지
건축면적	724.9㎡
연면적	5,086.7㎡
건폐율	66.7%
용적률	297.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주차대수	18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외부마감	외부용수성페인트, THK30 화강 석 고운다듬, THK3 알마늄 쉬트
설계팀	고종준, 우영준, 최정훈, 허 한, 김동원,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김영주

진주산업대 기숙사는 그 지침에서 보통의
대학교 기숙사와는 다른 몇가지 특이한
점이 전제 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지가 캠퍼스 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의해 캠퍼스와 단절
되었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프로그
램상 기숙사생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없
으니, 대지에 인접한 육교를 이용해 캠퍼
스내 학생식당으로 동선 및 통학로를 확
보 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이 육교를 이용한 통학로의 확보는
장방형으로 생긴 대지 형태와 함께 배치
결정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 해결을 위
해 육교를 기준으로 동측과 서측으로 대
지를 분리하였다. 이에따라 동측은 학교
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타워형 주동으
로 계획하였고, 서측은 주변 건물들의 맥
락을 수용하는 저층 복도형 주동으로 구
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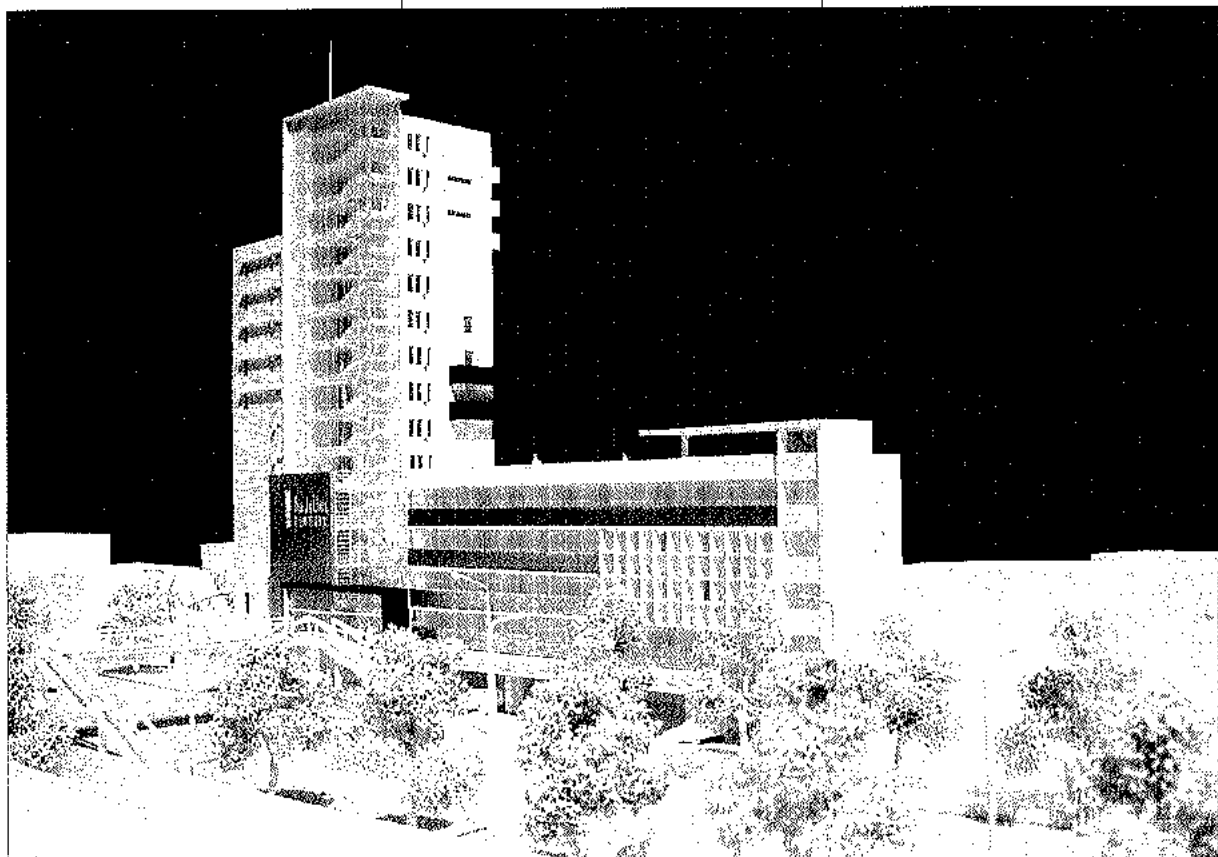
이 두가지 상이한 주동의 결절점에는 육
교와 연결된 진입홀이 형성되고 육교의
연장된 부분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학생들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이곳은 기숙사의 수평, 수직동선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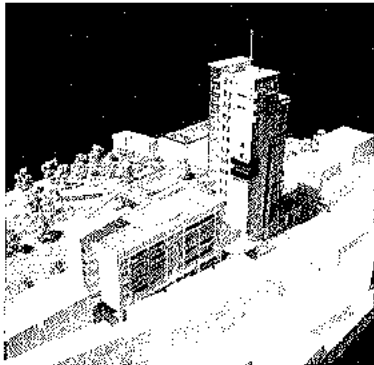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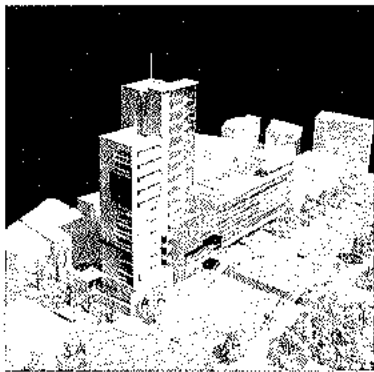
점으로 소음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버퍼존
을 형성하게 되며 학생활동의 중심점이
되므로 쾌적한 환경을 고려해 아트리움으
로 계획하였다.

학생들의 통학동선은 2층 데크와 연결된
육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1층과
지하층에 위치한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은
1층에 위치한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게
하여 통학동선과 분리하였다.

또한 도로측 소음을 고려해 북측 도로에
접한 부분에 복도를 계획해 소음과 프라
이버시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였
으며, 복도형 주동의 하부는 피로티로 계
획해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유니트는 향과 조망을 고려해 남동측에
배치하였으며, 설비시설의 효율성을 위
해 위생공간은 통합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타워형의 코어는 도로에 면한 북
측에 투명한 커튼월로 처리하여 밝고
활기찬 학교의 상징적 이미지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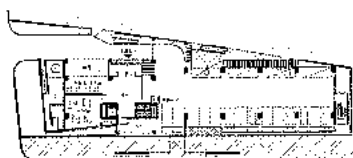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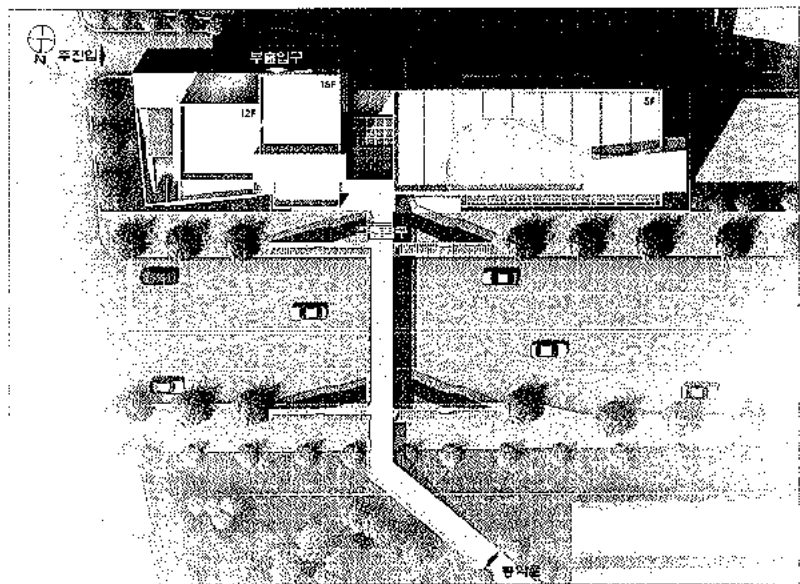
3~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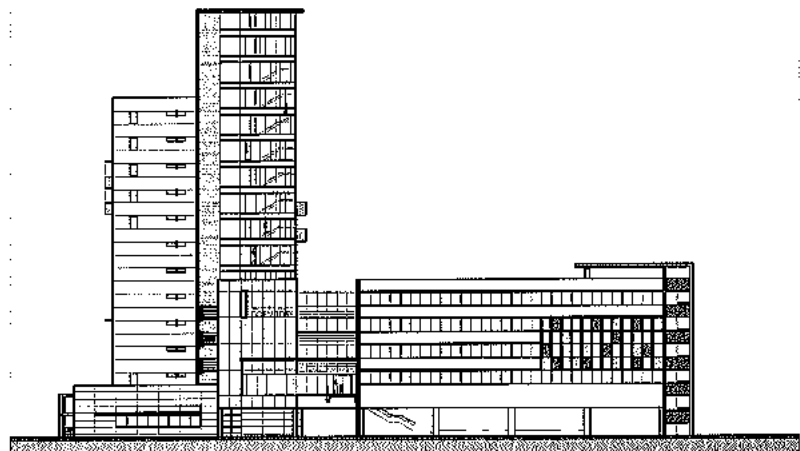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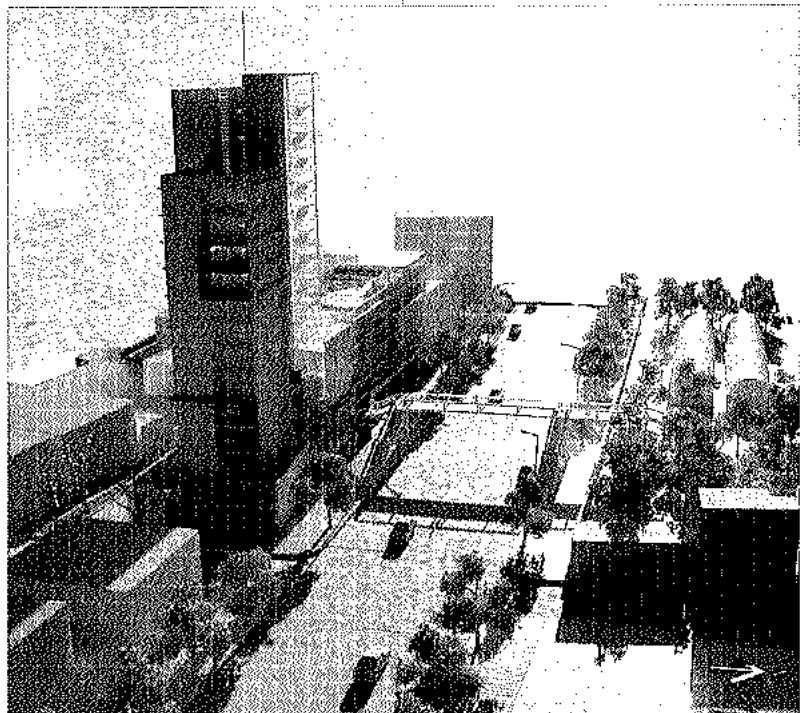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종로문화체육센터

Jongno Culture & Sports Complex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 임동건)

서울시 종로구에서 상징성, 기념성, 기능성 및 예술성을 갖춘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7월 14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임동건)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2개작품이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수작으로는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김하준)와 김영중건축사사무소(김영중)의 공동안이, 가작으로는 건축사사무소 함집(최영철)의 안이 각각 선정됐다.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62-186, 188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부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669.80㎡
건축면적	2,514.40㎡
연면적	7,021.41㎡
건폐율	3.39%
용적률	6.27%
용도	문화집회시설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55대/장애인2대, 화물1대 포함 (법정대수 54대)
외부마감	AL SHEET, 24mm 로이복층 유리
설계팀	정진환, 박노옥, 김학건, 윤종호, 김형배, 최지영

Traditional Culture

서울의 종로구는 옛 왕조의 궁궐과 국가의 중요 시설들이 남아있는 곳으로서 오늘날 까지 약 600년 동안 최고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풍수지리에 의한 최

고의 자리로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요우사의 원칙에 따라 종묘와 사직을 두고 권위를 세운 왕조의 역사가 내려오는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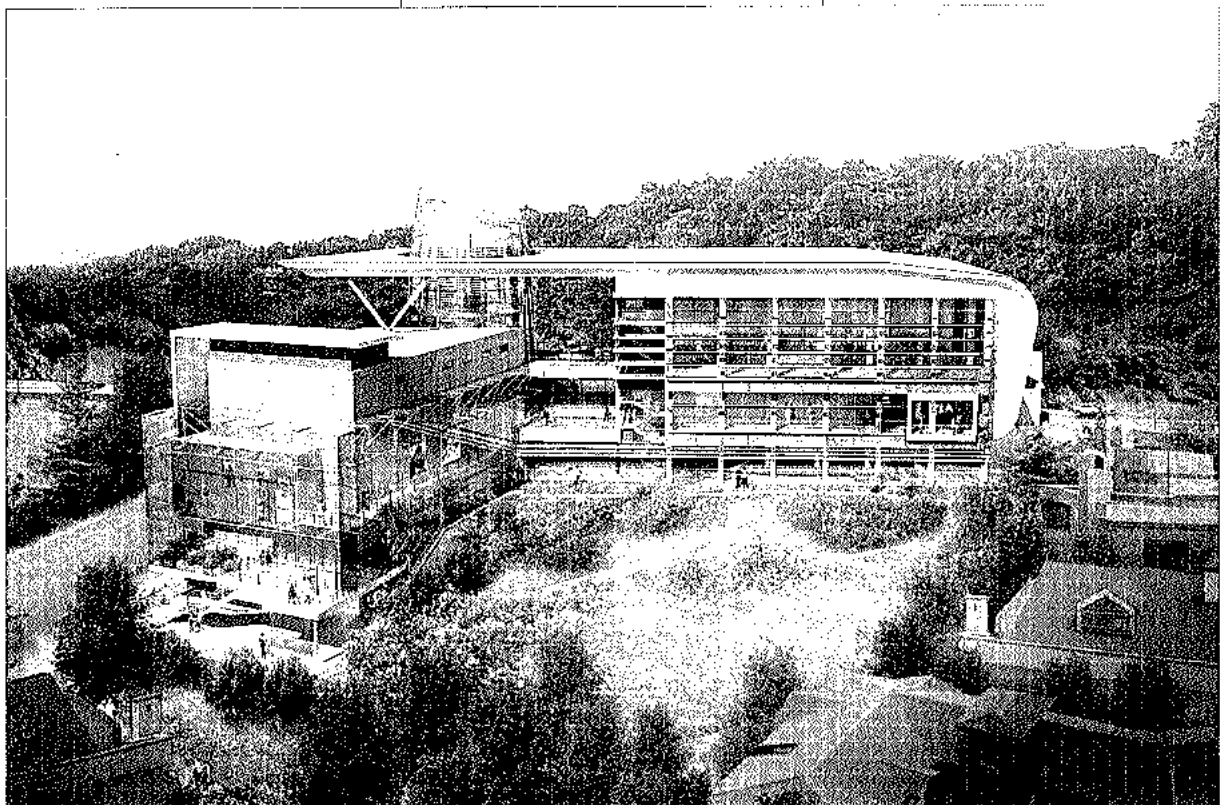
Contemporary Culture

현재 종로구는 옛 역사의 흐름을 되찾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시행중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 성곽복원사업 등이 구체화되어가고 있으며, 사직단의 중요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 또한 같은 맥락이다.

Intensive Ring

경복궁을 가운데로 하여 오른쪽의 창덕궁-종묘-인사동은 현존하는 하나의 문화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왼쪽의 덕수궁-경희궁-사직단을 하나의 문화고리로 간주하기엔 왠지 약한 느낌을 지울 길 없다. 존재하고는 있으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옛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통의 문화고리를 바탕으로 하여, 경복궁 근처와 인사동, 종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의 거리를 서쪽으로도 확산시켜 종로구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에 이번 프로젝트의 큰 맥락과 출발점이 되었다.



Ring City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사직단을 중심으로 한 서쪽의 링의 중추역할을 하게 된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던, 옛 문화의 연결고리들이 한데 얹혀져 하나의 코드를 형성하고 또한 이것과 맞물려 주변으로 또 하나의 다른 문화적 코드가 생겨나고, 종의 은은한 소리가 퍼져 나가듯이 고리고리 형성된 문화적 띠는 미래세대의 탄탄한 문화적 바탕이 될 것이다.

Architectural Process

-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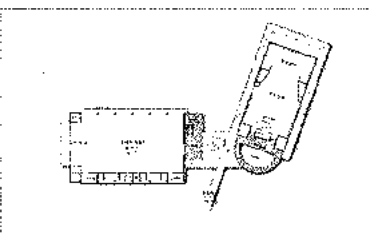
도시 및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요소로 데크 및 브리지를 이용하여 인왕산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한편, 대지경사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수법을 활용하였다.

-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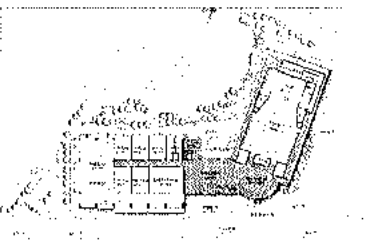
보신각종을 모티브로 상징성을 부각시켰으며 유리의 투명성 및 두 매스사이가 만든 스크린을 통해 도시풍경과 인왕산이 투영되는 계획을 시도하였다. 또한 비상하는 지붕디자인으로 체육시설로서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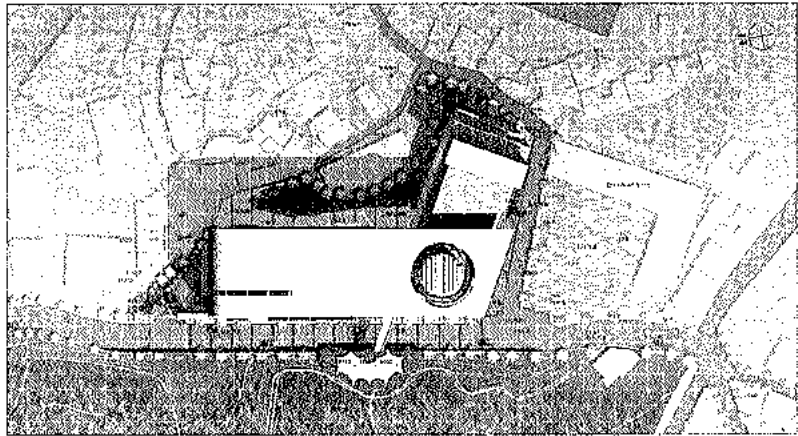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생활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의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종로구의 현대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종로구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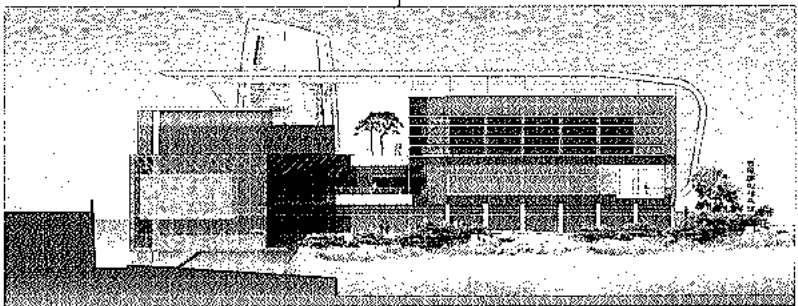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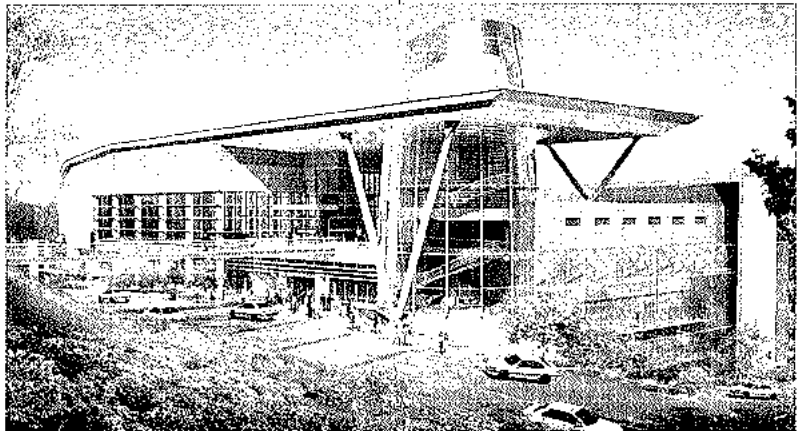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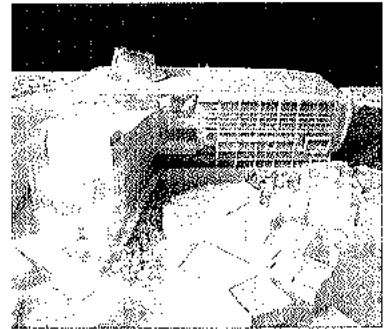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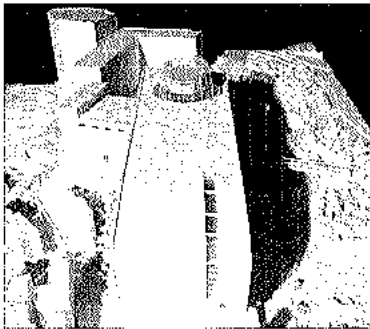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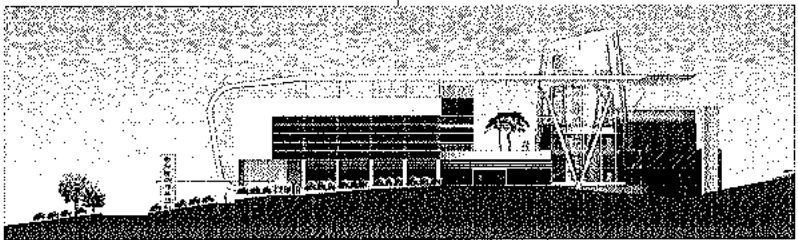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배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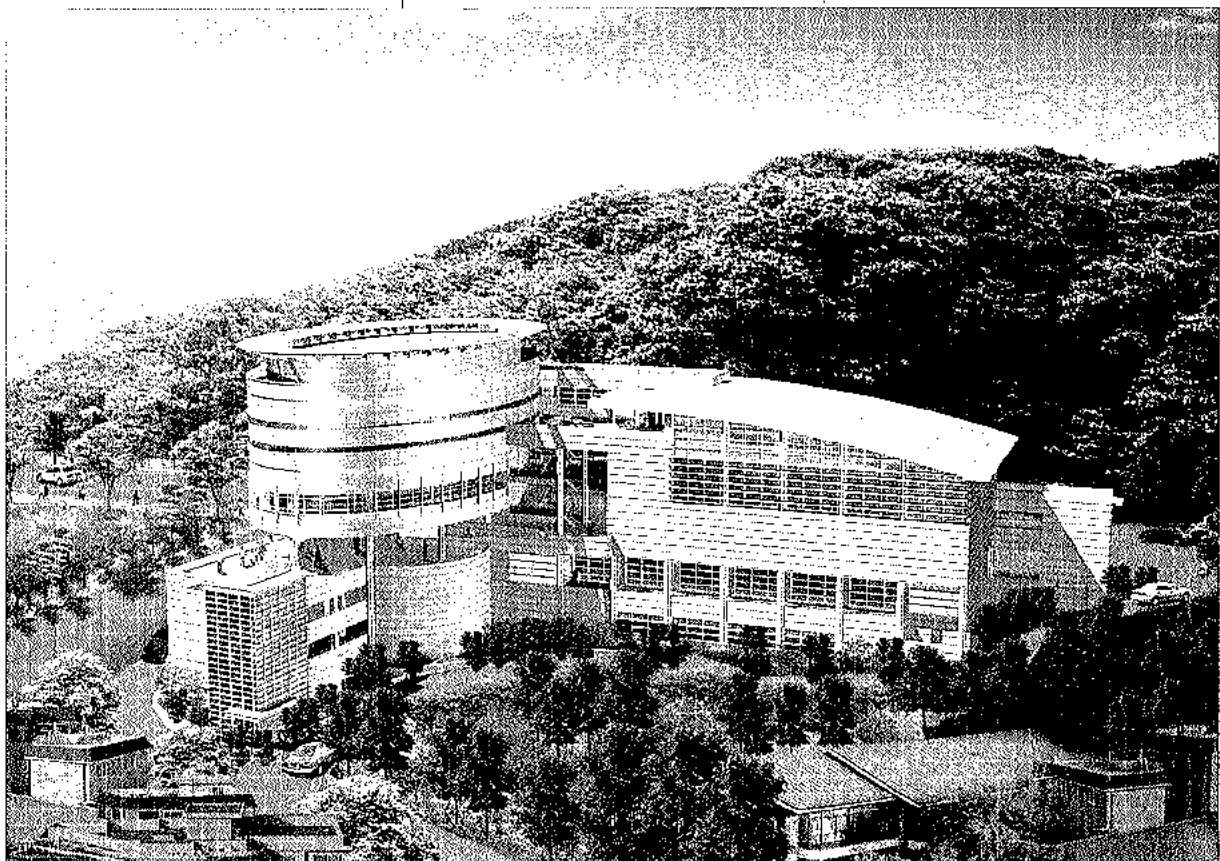
▶ 우수작/김영중건축사사무소(김영중)
+ (주)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김한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48외 1필지 (산1-56호)
지역지구	일부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부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3,669.80㎡
건축면적	1,979.26㎡
연면적	7,019.69㎡
건폐율	3.13%
용적률	6.60%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주차대수	54대 (장애자주차 2대 포함)
설비개요	FCU + CAV 방식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알미늄복합판넬, THK24 로이복층유리
설계팀	정철수, 이흥재, 김한만, 최상혁, 홍승섭, 이승근, 전선미, 김성민,

박승오, 김남용, 김종안
C.G : 이기범

종로구청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복지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이번 현상경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시설 내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공연장, 다목적 강의실 등을 설치하고 지하2층, 지상3층 규모, 연면적 6,756㎡ (2,043평)을 요구하였다. 본 건물은 사직근린공원내의 시직단, 어린이 도서관, 종로도서관등과 근접하여 있어서 종로구의 서북부지역의 종합문화단지를 형성하고 서울의 역사적인 자연환경인 내사산 중에서 좌청룡에 해당하는 인왕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계획이므로 가능한 인왕산 경관이 보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요구하였으며 부지의 동측부분에 신설될 4m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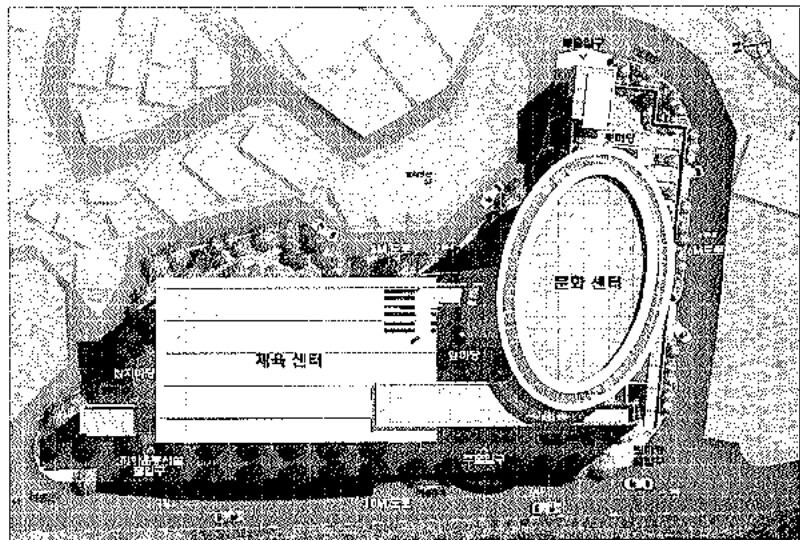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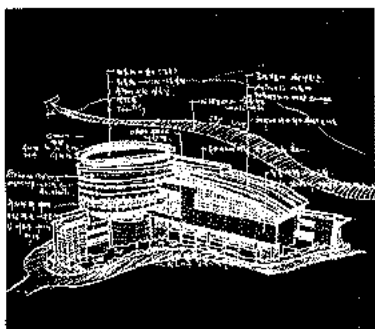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인왕산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직근린공원의 일부이므로 주변 환경과 전망은 최적의 조건이었지만 산자락 끝에 위치하여 복잡한 지형적 고저 차 때문에 대지의 접근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었으나 차량의 진출입을 대지의 남측에 위치한 폭6m의 도로로 설정하였으며 추후 신설될 대지 동측부분의 폭4m 도시계획도로로 대지주변의 순환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보행자의 진출입은 대지의 고저차를 적극 활용하여 대지의 4면의 다른 높이에 서 시설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치상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런 공간의 위계를 형성,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대지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하였다. 평면 계획에 있어서 각 기능별 적정 요구 공간 및 기능에 따른 모듈 선정하고 장애인 위한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자용 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하였다. 또한 기능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총별 분리를 유도하고 정적공간과 동적공간, 자연스러운 내외의 휴게공간 기능에 따른 조화로운 공간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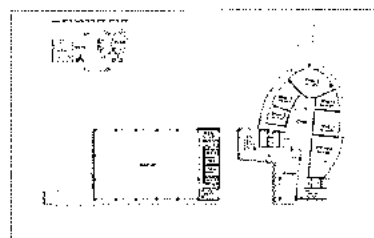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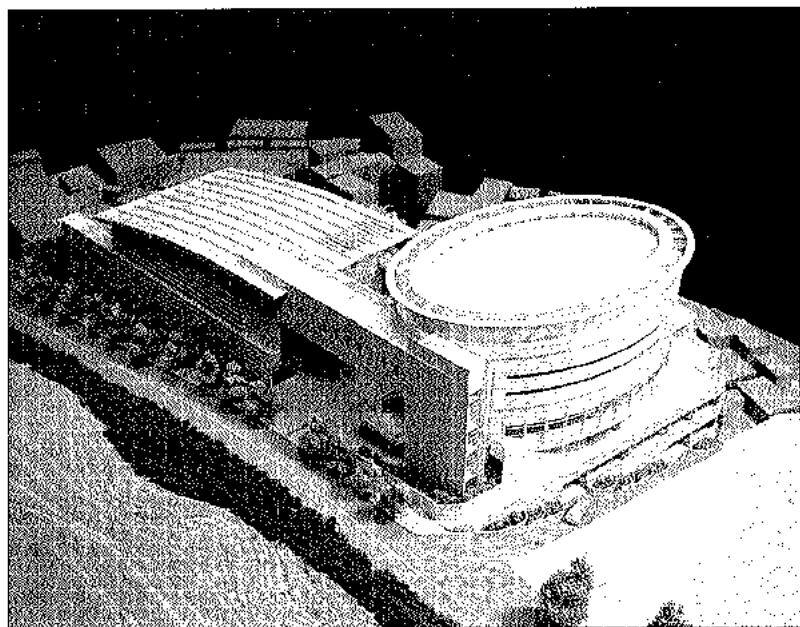
수용에 따른 시설 공유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가진 유연한 평면으로 계획하였다. 일면 계획에서는 수직적·수평적으로 적절히 분리하여 대지에 대한 상승감과 안정감을 표현하고 기능별로 분절된 매스의 구성으로 기능에 대한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상징성을 확보 기존의 환경에 융화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산자락에 위치하여 여러 곳에서 조망이 가능하여 지역공공시설로서의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구현을 추구하였으며 재료의 대비에 따른 인지성, 투명성 강조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이며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면계획은 자연 조망의 확보와 빛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한 매스계획을 통한 친환경성을 강조하였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유효 층고와 공간 볼륨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 및 내부 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우선시 하였다. 또한 1층 부분을 앞마당과 뒷마당(필로티)를 두어 오픈시킴으로서 공용공간으로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절로, 성토량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단계적 토지 이용을 실현하였다.

작품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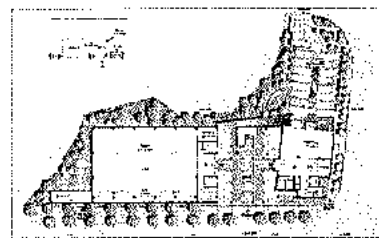
이번 현상설계는 종로구청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공간 확보와 현장설명지침에서 강조한 주변의 상황과 부지 동측부분의 4m 도시계획도로 산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나 그러한 지침반영의 평가가 다소 부족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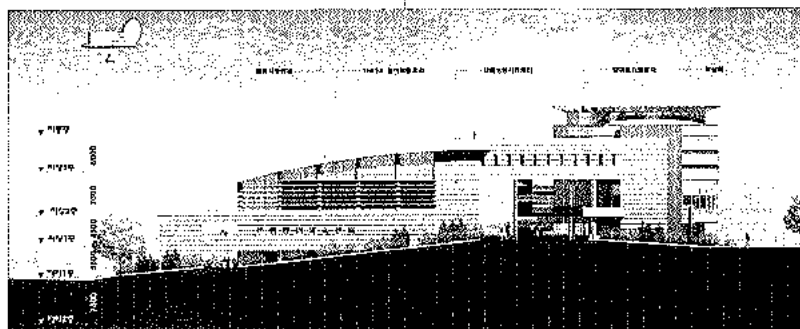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측면도

154kV 화양변전소 주거용 복합시설

Hwa-yang Substation & Housing

▶ 당산작/(주)간심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8-2(154kV 화양변전소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대지면적	18,304.0㎡
건축면적	1,009.78㎡
연면적	7,325.93㎡
건폐율	5.52%
용적률	14.93%
용도	복합시설(공동주택, 공관, 변전소)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RC조

주차대수 계획 51 대 법정(29대)
설계팀 윤홍노, 윤상현, 윤형진, 이 홍,
김지수, 김성훈, 박정연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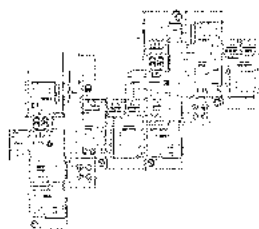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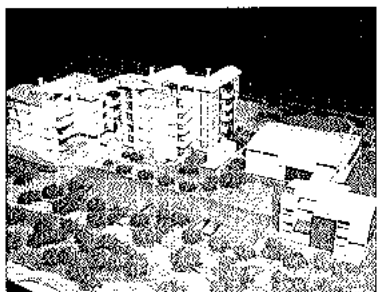
- 배치 축에 의한 역동적 단지 이미지
- 주동 사선배치로 한국전력의 역동적 이미지 부여, 동선유도
- 남측 중심광장의 다이나믹한 공간과 북측 주동 출입구의 정적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
- 토지이용의 효율적 사용
- 남측 전면의 커뮤니티 공용마당 형성(추가 증축 가능공간)
- 북측 및 동측 출입구의 동선 접근을 위한 선형공간
- 충분한 일조의 조망
- 남향으로의 일조 확보, 동쪽 용마산으로 조망 확보
- 전세대 남향 배치, 세대간 간섭을 피하며 프라이버시 확보
- 게이트와 알코브(ALCOVE)마당

- 주거공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상징성을 부여
- 세대와 세대 사이 형성된 사적인 마당으로 경계없는 공간, 장소성 형성
- 주민 공동시설의 전통적 기능수용
- 마을어귀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전통적 점자와 같은 기능
- 공용마당과의 연계 및 공용공간의 감시로 방어적 기능 수용

동선계획

- 보차 분리
-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엄격한 분리
- 보행자 동선
- 거주자 출입 : 마을 단독의 게이트를 지나 공용마당을 통해 각 세대로 진입
- 변전소 출입 : 입주자의 동선과 분리되는 별도의 동선 형성
- 차량 동선
- 거주자 차량 : 정문을 통과하여 단지 내부의 주차장 동선을 통해 주차
- 변전소 차량 : 진출입구 바로 옆에 마련된 변전소 및 방문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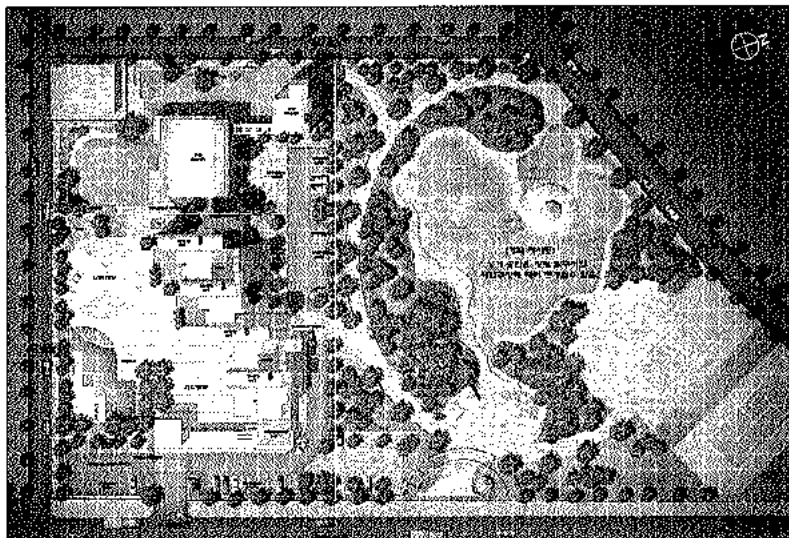
단위세대 분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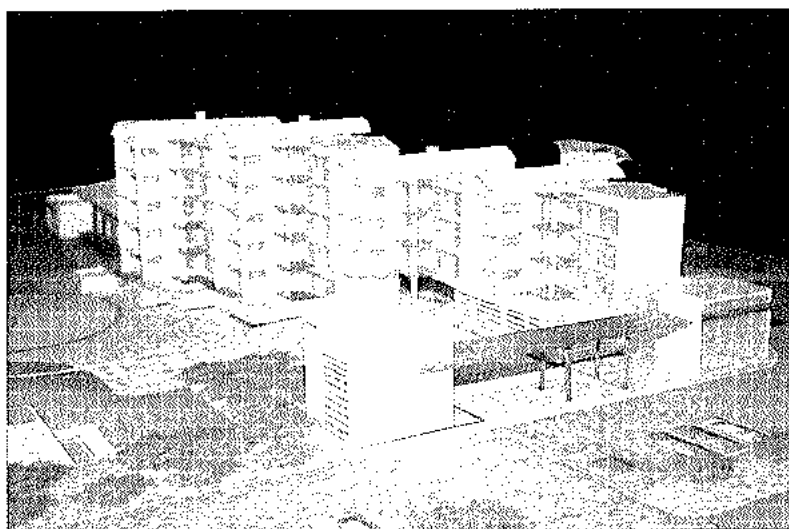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서쪽입면도



북쪽입면도

▶ 우수작 / 도담건축사사무소(최홍구)
+ 명안건축사사무소(양성중)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68-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미관지구
대지면적	118,304.00㎡
건축면적	1,274.00㎡
연면적	7,403.66㎡
건폐율	6.9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9층
주차대수	32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
외부마감	석재 및 커튼월마감

대지와 프로그램

중곡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마주치는 대지의 주변은 3-4층의 다세대 주택들과 근린생활시설들이 밀집된 곳이다. 대지는 현재 높은 축대와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담장 안에는 철탑들의 늘어섬으로 단조로운 풍경에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하

고 있다. 변전소라는 기능 자체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기피시설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직원을 위한 사택과 시장의 공간인 공관을 변전소와 복합시킨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이번 프로젝트는 변전소에 대한 인접성의 홍보 및 변전소 시설 자체에 대한 미관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변전소와 직원용 공동주택, 그리고 공관이라는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는 흐름으로 배치하면서도 각각의 요소가 기능적으로 명쾌하게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설계를 진행하는 열쇠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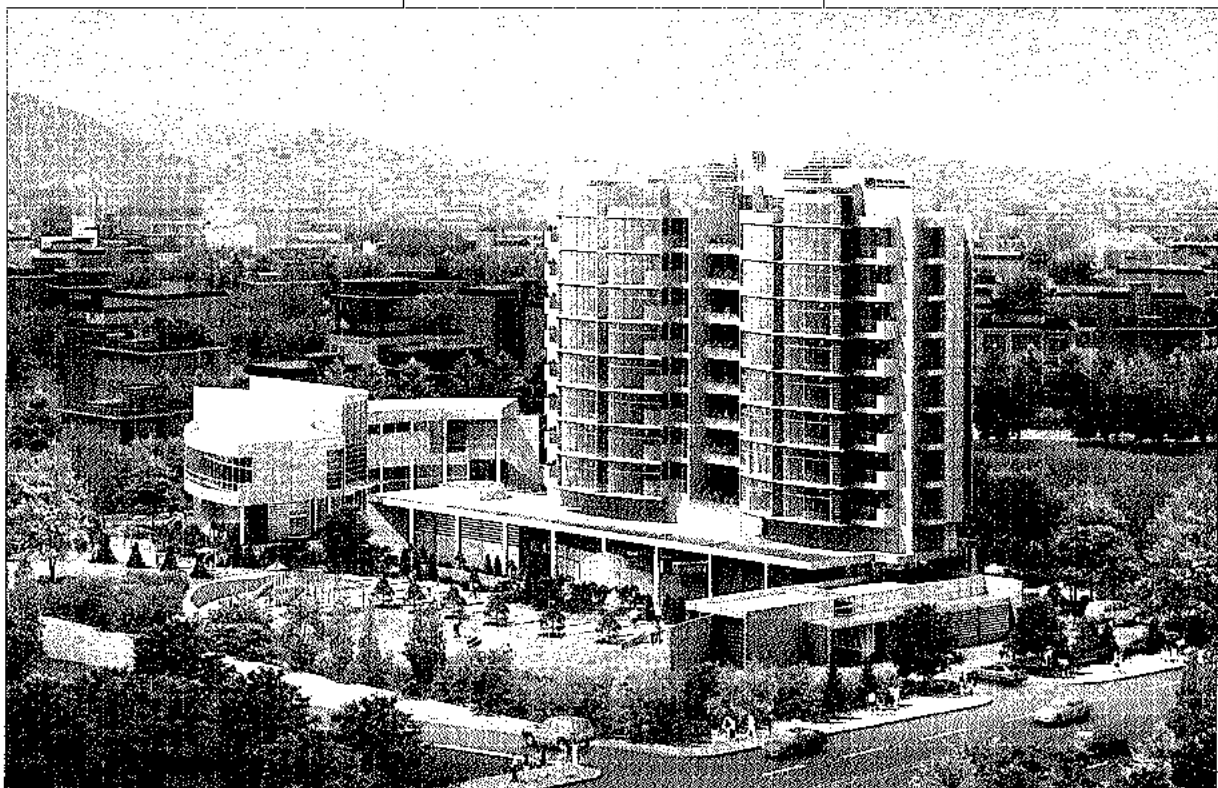
배치와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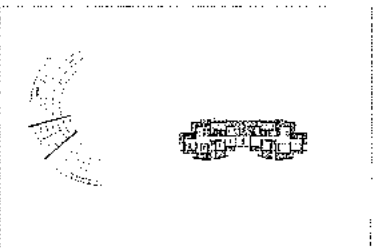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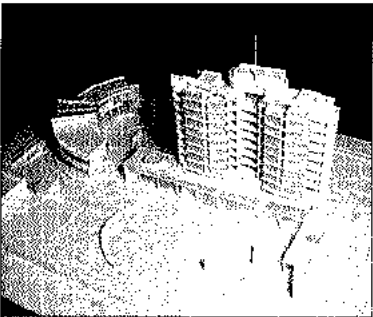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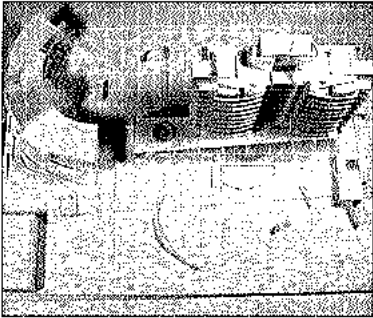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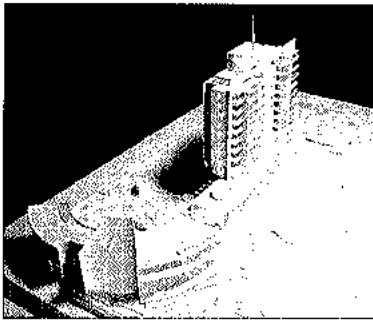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특수성으로 인해 하부 변전소 계획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상부의 직원용 공동주택 역시 지하의 변전소에서 결정된 모듈의 축을 따라 남남서의 향으로 배치되었으며, 공관은 이 축을 감싸앉은 동시에 25m도로상에서의 정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원형의 형상으로 계획되었다. 변전소 시설 중 감시실 및 주출입구 등 직원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은 지상으로 분리시킨 후 독립된 매스와 동선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의 마당과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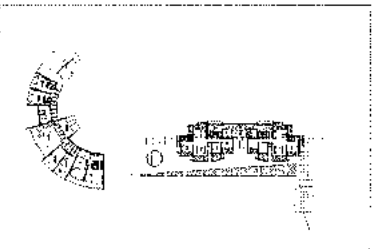
단위세대 계획

'분양대상이 아닌 임대주거'란 단위세대에 기존아파트와의 다른 파격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기존 아파트의 평면이 갖고 있는 동선상의 편리함을 집약시키는 동시에, 주거의 곳곳에 자연을 끌어들이므로써 변전소라는 시설에 대한 심리적 상해를 유도하였다. 맞둥풍과 채광의 극대화를 위한 4-Bay방식에 주방 측면을 개방시킴으로써 모든 실에 고른 만족을 주고자 했으며, 이는 33평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넓은 단위세대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매층마다 2세대에 하나씩 공유되는 하늘마당을 계획하여 삭막했던 엘리베이터와 계단 홀이라는 공간을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꾀하는 유기적인 장소, 자발적으로 가꿀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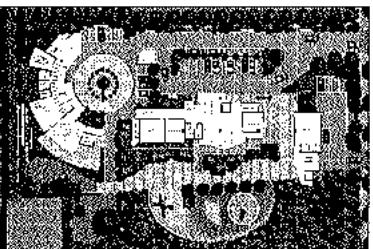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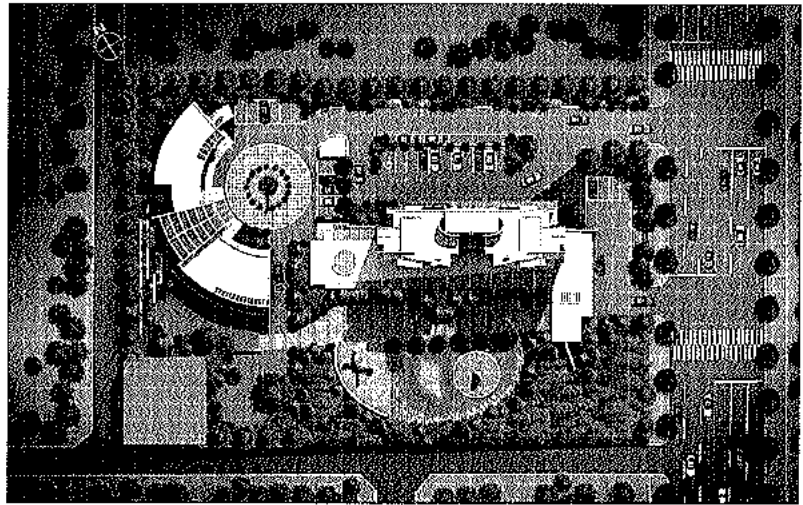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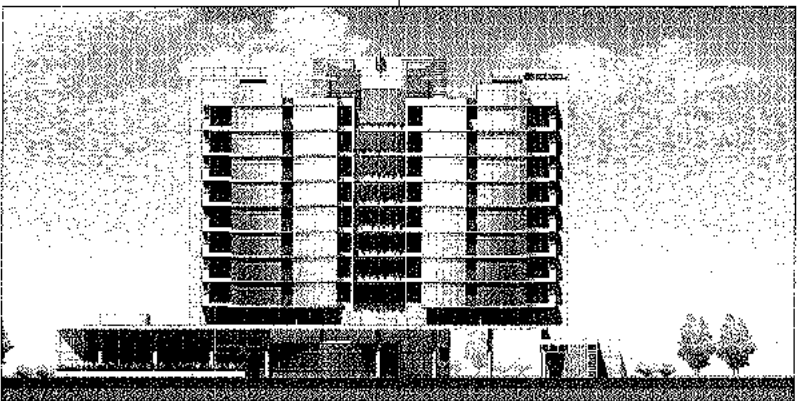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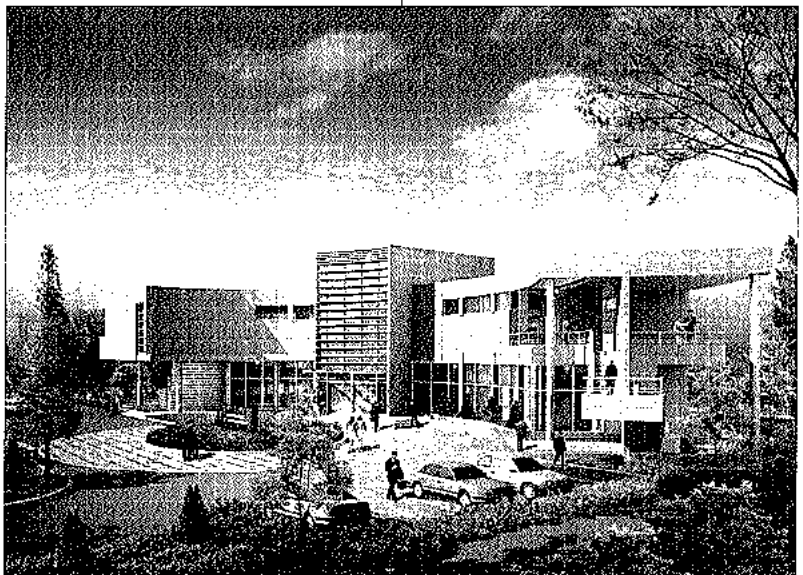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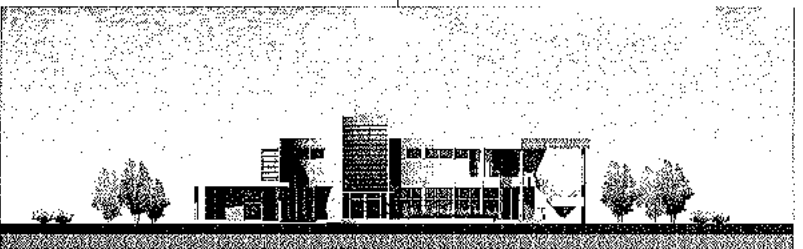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아파트 정면도



정면도